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2022**

2017. 12

문화체육관광부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본 보고서를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 책임: 최 성 호



연구진

---

|       |            |          |
|-------|------------|----------|
| 연구책임자 | <b>최성호</b> | 한양사이버대학교 |
| 공동연구원 | <b>강성중</b> | 건국대학교    |
| 일반연구원 | <b>김진희</b> | 공공디자인학회  |
|       | <b>이보미</b> | 건국대학교    |

---

|      |            |             |
|------|------------|-------------|
| 연구자문 | <b>김연금</b> | 조경사무소 올     |
|      | <b>김은희</b> |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
|      | <b>김연진</b>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b>박노섭</b>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 <b>박혜은</b>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
|      | <b>오창섭</b> | 건국대학교       |
|      | <b>윤혜경</b> | 연세대학교       |
|      | <b>이희정</b> | 서울시립대학교     |
|      | <b>장영호</b> | 서울특별시청      |
|      | <b>정규상</b> | 협성대학교       |
|      | <b>조주연</b> | (주)티팟       |
|      | <b>채민규</b> | 명지대학교       |
|      | <b>채완석</b> | 경기도청        |
|      | <b>최 범</b> |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
|      | <b>황승흠</b> | 국민대학교       |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                |   |
|----------------|---|
| 1. 계획의 배경      | 2 |
| 2. 계획의 목표 및 의의 | 3 |
| 3. 계획의 주요 내용   | 4 |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                     |    |
|---------------------|----|
| 1. 공공디자인의 이해        | 8  |
| 2.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 23 |
| 3. 공공디자인 환경 변화      | 28 |
| 4. 공공디자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 | 43 |

## III.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               |    |
|---------------|----|
| 1. 기본 방향      | 84 |
| 2. 비전 및 추진 전략 | 87 |

## IV. 추진 과제

|                     |     |
|---------------------|-----|
|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90  |
|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108 |
|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 126 |
|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160 |
|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185 |

## V. 과제별 추진 체계 및 일정

|     |
|-----|
| 210 |
|-----|

# 표 목차

|         |                                |     |
|---------|--------------------------------|-----|
| 표 II-1  |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특징 비교            | 13  |
| 표 II-2  | 공공디자인 주요 변천사                   | 17  |
| 표 II-3  | 공공디자인 조례 현황 분석                 | 61  |
| 표 II-4  | 모법 유무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지자체 현황  | 63  |
| 표 II-5  |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분석               | 64  |
| 표 II-6  | 공공디자인위원회 현황분석                  | 66  |
| 표 II-7  | 경관위원회 설치 현황분석                  | 68  |
| 표 II-8  | 모법 유무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의 지자체 현황 | 69  |
| 표 II-9  | 유사위원회 설치 현황분석                  | 70  |
| 표 II-10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현황분석                | 73  |
| 표 II-11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현황분석               | 75  |
| 표 III-1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중점과제               | 86  |
| 표 IV-1  | OO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현황              | 187 |
| 표 IV-2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 인력 현황         | 194 |
| 표 IV-3  | 공공디자인관련 교육 커리큘럼 요구사항           | 195 |
| 표 IV-4  | 청와대와 백악관의 공간 배치와 특징 비교         | 197 |
| 표 IV-5  | 유럽 국가들의 의회 공간 구성과 배치           | 198 |
| 표 IV-6  | 지자체별 공공디자인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201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I-1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추진 체계         | 6  |
| 그림 II-1  | 최종성과물을 기준으로 하는 디자인 분류        | 10 |
| 그림 II-2  |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가치                | 12 |
| 그림 II-3  | 각국의 공공디자인 특성                 | 20 |
| 그림 II-4  |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정책들  | 22 |
| 그림 II-5  | 신호등 배치 위치의 조정을 통해서 정지선 준수 유도 | 25 |
| 그림 II-6  |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역할               | 27 |
| 그림 II-7  |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 비교            | 28 |
| 그림 II-8  | 서울시의 자치구별 65세 인구 비율          | 29 |
| 그림 II-9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1시간이상 기록된 일자     | 30 |
| 그림 II-10 | 넷지의 개념을 적용한 미국의 연비 규제 라벨     | 33 |
| 그림 II-11 | 철도 폐선을 재생한 뉴욕의 하이라인          | 34 |
| 그림 II-12 | 공공디자인 방향의 변화                 | 35 |
| 그림 II-13 | 서울 올빼미버스 노선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36 |
| 그림 II-14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된 올빼미버스 노선도    | 37 |
| 그림 II-15 | IoT 기술을 활용한 바르셀로나의 쓰레기통      | 38 |
| 그림 II-16 | 파리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Velib          | 39 |
| 그림 II-17 | UX 디자인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예시)  | 40 |
| 그림 II-18 | OO구 가로시설물의 관리주체              | 49 |
| 그림 II-19 | OO구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 50 |
| 그림 II-20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비교               | 53 |
| 그림 II-21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Panasonic의 세탁기  | 54 |
| 그림 II-22 | 지자체 공공디자인 조례수의 변화            | 60 |
| 그림 II-23 |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지자체 현황          | 63 |
| 그림 II-24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위원회 추이            | 65 |
| 그림 II-25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현황         | 69 |

|          |   |     |
|----------|---|-----|
| 그림 II-26 |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의 추이  | 72  |
| 그림 II-27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변화 추이   | 74  |
| 그림 II-28 | 서울시 CI와 유사한 디자인의 지자체 CI   | 77  |
| 그림 II-29 | 지자체 CI 디자인 변경 사례  | 78  |
| 그림 II-30 | 지자체 캐릭터 사례  | 79  |
| 그림 II-31 | 일본 구마모토의 캐릭터 구마몬  | 80  |
| 그림 II-32 | 2017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프로젝트 부문 대상   | 82  |
| 그림 III-1 | 공공디자인의 방향   | 85  |
| 그림 III-2 |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국정목표와의 관계  | 87  |
| 그림 III-3 |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5대 전략  | 88  |
| 그림 VI-1  |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91  |
| 그림 VI-2  | 주요범죄 발생 지점 분석, 경찰청「2015 범죄분석」                                       | 92  |
| 그림 IV-3  |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적용 전과 후  | 93  |
| 그림 IV-4  | 학교 폭력 발생 장소   | 94  |
| 그림 IV-5  | 서울 OO초등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사업 사례   | 95  |
| 그림 IV-6  | 화장실 안심벨(비상벨)  | 97  |
| 그림 IV-7  | 화장실 안심벨 연락 체계도  | 97  |
| 그림 IV-8  | 복잡한 색채의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 100 |
| 그림 IV-9  | 옐로우 카펫 사례   | 100 |
| 그림 IV-10 | 서울 OO구 행촌이음길 안전보행로 사업   | 101 |
| 그림 IV-11 | 주차장에 관한 법률 조도기준에 의한 일반적 조명 설치(좌) /<br>후면 벽면을 활용한 조명처리로 안전성 확보(우) 비교 | 103 |
| 그림 IV-12 | 안전디자인을 적용한 OO시 공영주차장 사례   | 103 |
| 그림 IV-13 | 동일본 대지진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대피소   | 105 |
| 그림 IV-14 | 포항 지진시 OO체육관, OO동 교회에 설치된 개인용 텐트                                    | 106 |

|          |   |     |
|----------|---|-----|
| 그림 IV-15 | 미국의 안전디자인 사례  | 106 |
| 그림 IV-16 |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109 |
| 그림 IV-17 | 도쿄 마루노우치 친환경 보행가로 조성                                  | 111 |
| 그림 IV-18 | 런던 Exhibition Road 보행자 최우선의 공유공간                      | 111 |
| 그림 IV-19 | 제주 OO봉 산책로(좌), OO산 무장애 탐방로(우)                         | 113 |
| 그림 IV-20 | 런던 자연사박물관 층별 안내도                                      | 116 |
| 그림 IV-21 | 런던뮤지움의 층별 안내도   | 117 |
| 그림 IV-22 | 65세 인구 증가 추이  | 118 |
| 그림 IV-23 | 영등포구 OO동 기억키움마을 만들기 사례                                | 119 |
| 그림 IV-24 | 치매예방디자인을 적용한 OO아파트                                    | 120 |
| 그림 IV-25 | 영국 국민의료보험 및 국립병원 사이트 웹                                | 122 |
| 그림 IV-26 | Nottingham City Hospital 웹 페이지                        | 122 |
| 그림 IV-27 |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행정서식(좌)와 등초본 교부 신청위임장(우)                   | 125 |
| 그림 IV-28 |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126 |
| 그림 IV-29 | 런던의 길찾기 통합 안내체계                                       | 128 |
| 그림 IV-30 | 영국 브리스톨시의 길찾기 안내체계                                    | 129 |
| 그림 IV-31 | 한국의 고속도로 출구 사인(좌)과 스페인 고속도로 출구(우)                     | 130 |
| 그림 IV-32 | 복잡한 교차로 안전 유도를 위한 색깔 도로의 국내외 사례                       | 132 |
| 그림 IV-33 | 수도권 지하철 및 도시철도 노선도                                    | 135 |
| 그림 IV-34 | 일본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  | 136 |
| 그림 IV-35 | 일본 도쿄 교외 철도 노선도                                       | 136 |
| 그림 IV-36 | OO시 가구거리 가로등 활용 번호판,<br>OO시 오이도 상업가로 가로등 번호판          | 138 |
| 그림 IV-37 | 출입구 안내/번호가 없는 지하상가,<br>임시 표시로 박물관을 안내하는 지하철 역사 안내 표지  | 140 |
| 그림 IV-38 | 지하철 출구번호와 차별화된 출구 번호 체계의 지하상가 출구,<br>진행 방향과 일치시킨 안내지도 | 141 |

|          |   |     |
|----------|---|-----|
| 그림 IV-39 | 구획별 색을 달리한 기둥(좌), 인지성을 높인 소화전 표시(중앙), 화재시 피난과 대피를 돕는 안전디자인(우) | 141 |
| 그림 IV-40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좌)와 승차안내 정보(우)                                     | 143 |
| 그림 IV-41 |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와 환승정보  | 145 |
| 그림 IV-42 | OO시외버스 터미널의 매표소와 안내정보 개선 전과 후                                 | 146 |
| 그림 IV-43 | OO시외버스터미널의 승차장과 외관의 개선 전(좌)과 후(우)                             | 146 |
| 그림 IV-44 | 게이트까지의 이동시간을 표시한 창이공항 안내판                                     | 147 |
| 그림 IV-45 | 같은 시설이나 ‘몸과마음닦음터’와 ‘체육관’ 다른 이름의 표기                            | 148 |
| 그림 IV-46 | 전체 안내도에 ‘빙상장’ 표기, 건물에 ‘아이스링크’ 부착                              | 149 |
| 그림 IV-47 | 영국 Derby Riversided, 체육 시설 안내도                                | 150 |
| 그림 IV-48 | 미국 Mary Carter Greenway Trail의 탐방로                            | 151 |
| 그림 IV-49 | 스위스 전국 하이킹코스 안내도  | 152 |
| 그림 IV-50 | 미국 Whitefish Trails의 탐방로 통합 안내 사인 체계                          | 152 |
| 그림 IV-51 | 나가사키 전망대 안내판(4개 국어 병기 안내)                                     | 153 |
| 그림 IV-52 | 하카다역 관광안내 바닥사인(중) / 하코다테 관광안내 방향사인(우)                         | 154 |
| 그림 IV-53 | 스위스 취리히역 안내소 사례   | 154 |
| 그림 IV-54 | 미국 국립공원 안내책자 (디자인통합)  | 155 |
| 그림 IV-55 | 영국 국립병원(NHS)의 표준 의료환경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사례                           | 156 |
| 그림 IV-56 | 네덜란드 미술관의 청소 카트 사례  | 158 |
| 그림 IV-57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160 |
| 그림 IV-58 | 정리되지 않는 거리의 시각이미지   | 161 |
| 그림 IV-59 | OO동 벽화마을  | 162 |
| 그림 IV-60 | OO 폴리III  | 163 |
| 그림 IV-61 | 부산 OO동 책방거리   | 164 |
| 그림 IV-62 | 중복 또는 과다한 시설물과 조화되지 않는 시설물 사례                                 | 167 |
| 그림 IV-63 | 서울 OO터미널앞 가로판매대(좌)와 OO시의 가로판매대(우)                             | 167 |
| 그림 IV-64 | 시경계로 서로 다른 가로등 사례: OO시(좌)와 OO시(우)                             | 168 |

|          |                                |     |
|----------|--------------------------------|-----|
| 그림 IV-65 | 국내 지역 축제용 텐트(좌)와 해외 우수 사례(우)   | 170 |
| 그림 IV-66 | OO관광특구 육의전 축제(좌)와 OO 보부상 축제(우) | 171 |
| 그림 IV-67 | 빌바오 쌈지공원(좌)과 OO시의 쌈지공원(우)      | 173 |
| 그림 IV-68 |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휴식기능이 낮은 공개공지 사례    | 174 |
| 그림 IV-69 | 서울 OO동 스테이트타워 공개공지 사례          | 175 |
| 그림 IV-70 | 서울 OO구의 공개공지 설계 지침             | 175 |
| 그림 IV-71 | 세종문화회관(좌)과 창덕궁의 야간 경관(우)       | 177 |
| 그림 IV-72 |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의 야간 경관(우)       | 178 |
| 그림 IV-73 | 여권디자인 개선안(서울대 김수정 디자인, 2007년)  | 180 |
| 그림 IV-74 | OO시 표준 색채 (2008년)              | 181 |
| 그림 IV-75 |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우리나라가 개발한 픽토그램      | 183 |
| 그림 IV-76 |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한 국내 개발한 픽토그램     | 184 |
| 그림 IV-77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의 중점 영역           | 185 |
| 그림 IV-78 | 일반인의 고령자 체험                    | 186 |
| 그림 IV-79 | 어린이 디자인교과서(서울시 교육청)            | 187 |
| 그림 IV-80 | OO시 시민제안 디자인 프로젝트 안내 웹사이트      | 189 |
| 그림 IV-81 | 지자체 대상 공공 디자인교육의 필요성 조사        | 195 |
| 그림 IV-82 | 공공디자인 분야 기술개발 관련 주요 애로사항       | 202 |
| 그림 IV-83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서울시 OO구) | 204 |
| 그림 IV-84 |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OO도청)          | 206 |

# I

---

## 계획수립의 개요

# I.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본 연구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의 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기초한 연구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지자체와 기관별로 이루어졌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계획을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디자인이 국민의 삶의 질, 지역의 발전, 국가 및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 있어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관별 사업의 중복, 지역별 공공디자인 격차 증대, 공공디자인 제도 미비, 공공디자인 산업 기반의 취약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전략개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이후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공공디자인이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사업이 많지 않았다. 지자체 중심의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정책들이 단기적 목표와 효과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관 개선과 시설물 개선과 같이 한정된 디자인의 기능을 담당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공공디자인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사회, 경제, 문화,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바,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계획, 집행되는 만큼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와 체계도 시대 요구에 맞추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면서 환경변화 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공공디자인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 2. 계획의 목표 및 의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디자인을 통해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디자인의 물리적, 심미적 기능을 넘어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향후 5년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할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제안한다. 2000년대 초 공공디자인이 정책과 사업으로서 시작된 이후 경제, 사회, 기술 등의 환경 변화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역할도 함께 변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이 이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17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226개 시·군·구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써, 공공디자인과 관련을 갖는 경관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등과 차별되는 지향점, 가치, 내용을 제시하여 공공디자인의 명확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3. 계획의 주요 내용

#### (1) 계획의 성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공공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본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성격에 기초한다.

첫째, 법에 기초하는 계획이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법에 의거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중기전략 수립이 핵심 내용이 된다. 둘째,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에서 제시되는 전략과 원칙들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의 지역별 계획과 사업에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획이다. 이전 기관과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공공디자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다양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개발한다. 넷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이다. 언어와 표현 중심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지향한다.

#### (2) 주요 내용

본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년을 기준으로 하며, 계획의 실행은 2018년~2022년(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계획의 기본 방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내용에 기초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상기와 같이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사업과 정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기초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가 규정한 사항을 포괄하며, 이를 위한 실행 사업은 제10조에 기초하여 개발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의 지속성장을 위해 각 사업들을 단계별로 실행 순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사업별로 시범 사업 등의 실행 과정, 타부처와의 협력 방안,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추진 체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중앙행정부서와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종합계획은 중앙 진흥위원회와 지역 진흥위원회의 체계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리는 별도의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를 따르도록 한다.

I.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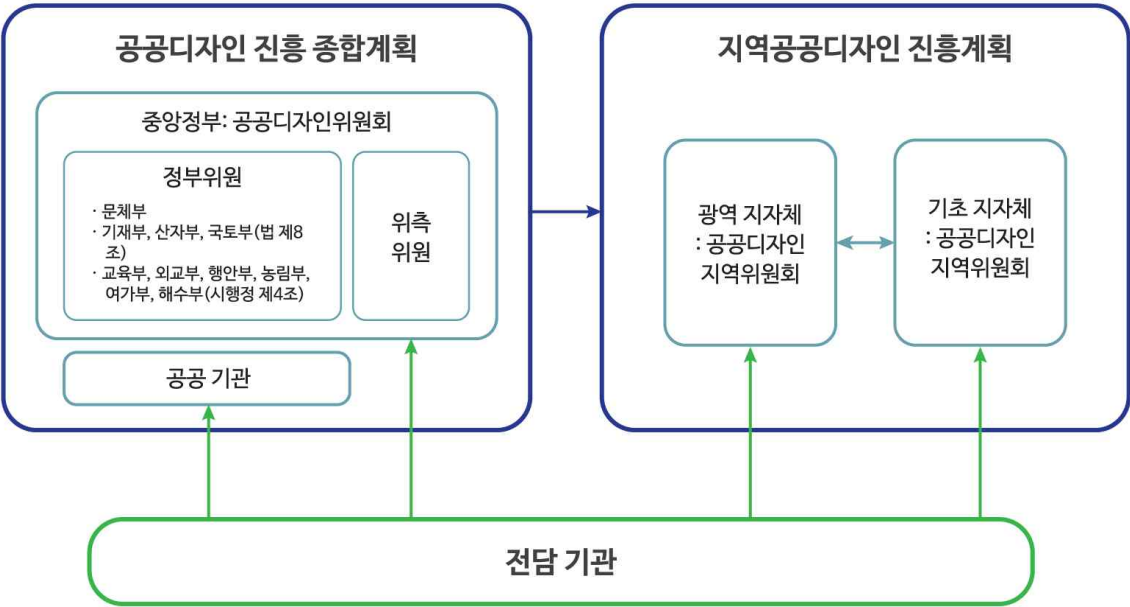


그림 1-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추진 체계

# II

---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 1. 공공디자인의 이해

#### (1)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계획하다, 설계하다, 지시하다’라는 라틴어의 “데시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정한 사물을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오늘날의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산업혁명’을 꼽고 있으며, 대량 생산된 물건(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디자인은 물건이 소비되는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런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시장이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디자인이 크게 발전하였다.

초기의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포장 등과 같이 조형적, 심미적 가치를 지니는 부가적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디자인 고유의 창의적, 통합적 접근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디자인은 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 판매, 홍보 등의 모든 과정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pple, 영국의 Dyson, 일본의 MUJI 등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디자인 주도로 제품과 브랜드의 혁신을 이끌면서 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디자인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동사)’와 ‘창조하는 행위의 결과물(명사)’를 함께 지칭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웹스터(Webster) 사전에서도 디자인을 명사와 동사로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명사로서 디자인은 “결과 추출을 전제로 한 하나의 정신적 계획이나 과제, 목적, 지향적인 정교한 계획, 제작될 사물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여주는 스케치나 개요, (기계나 기술을 사용해) 인공 생산 예정인 요소들의 배열”이며, 동사로서 디자인은 “마음 속의 계획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목적을 갖는 것, 특정 기능이나 목적을 고안하는 것, 도면, 문양, 혹은 스케치를 제작하는 것, 계획에 따라 창조하고 유행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 디자인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 대다수의 디자인학과와 전공들이 미술(예술) 계열에 속해 있어 디자인을 미술(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회화나 조각과 같은 순수

미술과 디자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순수 미술이 작가의 자기표현이 핵심 목표라면, 디자인과 디자인 행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는 ‘목적지향적’ 행위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은 공예로부터 파생되었지만 시장과 결합하면서 기술, 마케팅, 공학과 자연스럽게 융합하게 되었으며 디자인의 이러한 다학제(多學制)적인 성격과 접근법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유용한 문제해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술의 한 영역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법으로 디자인을 이해하고 인식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디자인을 보다 광의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디자인 행위를 선진사회 모델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동시에 디자인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송망이나 금융망 설계와 같은 것도 디자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디자인 과정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오늘날 디자인의 활용 영역과 그 쓰임을 보면 허버트 사이먼의 정의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디자인 영역의 분류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 영역의 분류는 디자인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 패션디자인, 광고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자동차디자인 등과 같이 ‘사물(최종결과물)+디자인’의 용어 조합을 가진다. 이러한 분류법은 근본적으로 디자인을 행위(동사, 動詞)보다는 디자인을 물적(物的) 대상(명사, 名詞)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동시에 과거와 같이 산업간 또는 제품간 경계가 뚜렷한 시대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대표적인 디자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그림 II-1. 최종성과물을 기준으로 하는 디자인의 분류

### ① 제품디자인

- 일상에서 사용되는 물건(사물)의 디자인
- 일반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업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으로 지칭되기도 함
-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생산도구, 통신기기, 자동차, 주방기구 등의 디자인
- 디자인에서 공학적 고려가 필요하고, 제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

### ②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 이미지, 글자, 영상 등 사람들의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 포스터, 책자편집, 광고, 포장, 영상물, 브랜드, 홍보물, 안내사인, 캐릭터 등의 디자인
- 현재 디자인인력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가장 변화가 많은 디자인 영역

### ③ 공간디자인

- 인간을 둘러싼 공간적 시설과 장치를 위한 디자인
- 건축, 실내공간(인테리어), 옥외공간(환경), 전시, 디스플레이 등
- 건축의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건축공학(Engineering)과 미학적 부분을 다루는 건축설계(Design)로 구분되며, 건축설계는 공간디자인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 ④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 디지털 기술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매체와 콘텐츠를 위한 디자인
-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APP 디자인 등
-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한 디자인 분야
- 컴퓨터공학, 인지심리학, 사회학 등 인접분야와의 협업 활성화
-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등 신규 디자인 분야 출현

2000년대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의 다원화, 학문 영역의 파괴와 융복합 등 디자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디자인의 대상이 제품, 공간과 같이 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에서 사람의 경험과 행동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영역의 출현과 더불어 디자인이 공학, 심리학, 인문학, 사회학, 인지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디자인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널리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경험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경험디자인(UX design)은 제품, 공간, 정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을 차별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게임, APP, 콘텐츠, 브랜드 등 모든 디자인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경험디자인은 제품과 공간 이용자들의 행태(behaviour)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이용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시한다.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은 공공행정, 의료, 교육 등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절차와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공공디자인의 개념

공공(公共)디자인은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과 같이 디자인의 최종결과물에 따른 개념이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디자인 활동과 목표가 지향하는 가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가치 지향적 성격을 가지며, 제품, 공간, 시각매체 등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공중을 위해 공익성을 주는 디자인 활동 모두가 공공디자인이며, 그런 이유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대상에 따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건축과 같은 용어로 공공디자인의 세부 항목들을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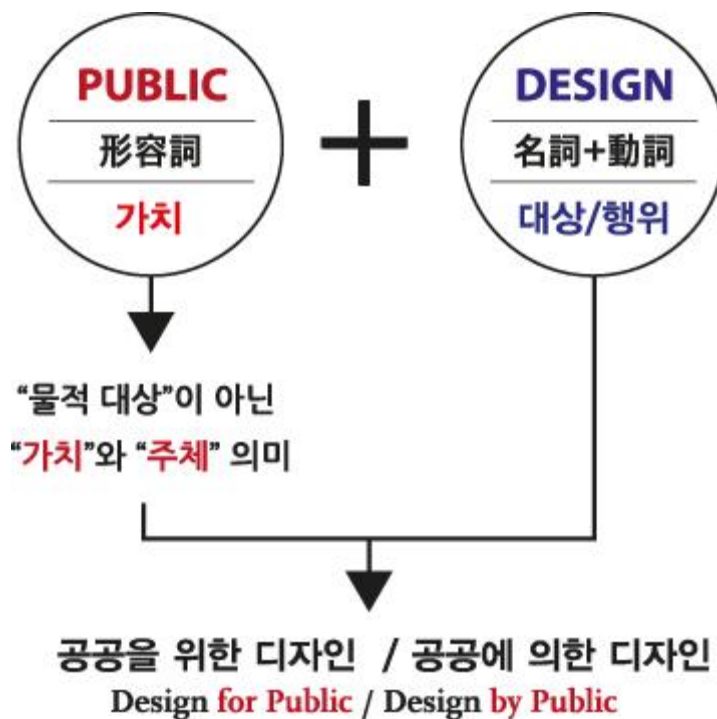


그림 II-2.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가치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시장과 소비자를 지향하는 산업디자인과 대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의 실행 주체를 기준으로 산업디자인은 기업이라면 공공디자인은 공공

기관이 주체가 된다. 산업디자인은 기업의 자본에 의해 실행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된다. 디자인의 지향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산업디자인은 판매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유로 산업디자인의 성패는 제품 판매량, 판매 수익 등과 같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공공디자인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수혜자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은 한정된 목표 고객(target customer)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시민과 같은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에서 이용자의 니즈 및 욕구 파악과 수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해 디자인 활동에 법률 등의 제도적 규제와 지배를 많이 받는다.

표 II-1.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특징 비교

|      | 공공디자인    | 산업디자인     | 공공디자인 비교 특성 |
|------|----------|-----------|-------------|
| 실행주체 | 공공기관     | 기업        | 법과 제도 기반    |
| 지향목표 | 공공성 증대   | 판매/수익 증대  | 평가의 어려움     |
| 과정   | 민주성, 투명성 | 효율성       | 과정 중시       |
| 수혜자  | 국민/시민    | 목표 고객/소비자 | 니즈 파악의 어려움  |

이러한 ‘공공기관에 의해 공중(公衆) 대상의 공익성(公益性) 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은 최근 디자인과 사회문화의 추세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 ① 참여의 디자인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실행되고 국민과 시민이 디자인의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의 수렴, 평가, 관리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 유럽과 일본 등 공공디자인의 추세를 보면 시민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디자인은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이익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형평성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국민

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수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에 따라 국민 참여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민 참여를 위한 체계와 제도가 필요하다.

### ② 통합의 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 속한 항목들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은 민간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만,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이유로 주요 도시에서는 민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은행, 병원, 학교, 박물관, 체육시설 등은 민간 시설임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의 활용을 권장한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효율적 조화와 통합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이 다루는 영역은 건축, 제품, 시각물, 서비스, 정보 등 기존 디자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디자인 대상과 영역의 확대에 따라 공공디자인 활용에는 디자인 분야 외에 공학, 사회학, 인문학 등 타분야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이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되면서 사회와 사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적 접근이 중시되고 있다.

#### (4) 공공디자인의 변천사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 환경에 디자인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디자인은 주로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이후로 디자인은 가로, 광장, 교통시설, 공원 등 도시공간과 환경에 적용되었는데, 유럽과 일본은 이를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amazon.com)에서 서적 ‘public design’을 검색하면 해당하는 단행본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대상의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2005년 국회에서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이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7년 서울특별시는 부시장급으로 디자인전문가(디자인총괄)를 영입하고 공공디자인을 서울시 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디자인 위원회를 통해 디자인의 심의와 자문을 강화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 서울거리’와 같은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이었다.

서울시로부터 시작된 공공디자인은 빠른 시간에 다른 지자체로 확산 되어, 경기도에 부지사급으로 디자인 총괄이 영입되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가이드라인, 위원회, 주민협의회 등이 만들어졌다. 공공디자인이 시민 행정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에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2006년 공공디자인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부족으로 법률 제정을 이루지 못했다. 2007년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관법은 공공디자인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관을 다루고는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경관법에 따라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경관종합계획 등을 만들어졌으며, 한동안 이들 조례와 위원회에 의해 공공디자인이 시행되었다.

2009년 공공디자인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공무원 임용에 디자인 직류가 신설되어 디자인전공자들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2011년 공공디자인을 주도하던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달라지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대신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 따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라 공공디자인 업무부서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관디자인팀,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팀, 도시재생팀, 도시건축팀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행정도시, 신도시 조성에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5년부터 공공디자인 현황 등의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6년 2월 문화관광체육부의 주도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법률이 시행되었다. 공공디자인법의 제정은 법률적 토대 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공공디자인 조례, 위원회, 사업, 정책에 근거가 되는 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관련 부처 간의 조정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 대상이 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2. 공공디자인 주요 변천사

| 시 기        | 공공디자인 주요 변천사                              |
|------------|---|
| 2002.05.20 | 서울특별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2006.7폐기)      |
| 2004.02    | 문화체육관광부 광복로 간판개선사업                        |
| 2005.12    | 문화체육관광부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
| 2005.12.08 | 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창립                        |
| 2006.03.22 |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인가                 |
| 2006.07.19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
| 2007.05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자인전문가 부서장 영입                  |
| 2007.05.17 | 경관법 제정 (2007.11.18시행)                     |
| 2007.10    | 2007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국내 최초 공공디자인 엑스포)       |
| 2008.05.29 | 서울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                            |
| 2009.02    | 디자인직류 신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직군 시설직렬)      |
| 2009.04.22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국내 최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 2009.07.02 | LN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국내 공공기관 최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 2009.07.31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광역시도단위 최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 2009.08.30 |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국내 시군단위 최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 2012.06.30 |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용역(국내 최대규모 공공디자인 설계)    |
| 2013.08.06 | 경관법 전부개정 (2014.2.7시행)                     |
| 2015.11.27 | 디자인백서201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간행, 문체부 최초 현황조사)  |
| 2016.02.03 | 공공디자인법 제정 (2016.8.4시행)                    |
| 2016.12.15 |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시행(시군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
| 2016.12.29 |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시행(광역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

## (5) 해외의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해외 많은 국가와 도시들은 도시 환경 개선, 시민의 편의성 증진,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공공 영역에 디자인을 활용하여 왔다. 지방자치제가 일찍 정착된 유럽, 미국, 일본에서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 도시들은 인구 구조, 가로 형태, 주력 산업 등의 차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활용과 전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의 재개발, 시민 복지 확대, 관광 산업 육성 등에 있어 디자인의 활용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주요 국가들의 공공디자인의 활용과 정책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미국

미국은 연방제로 공공디자인에 있어 주별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개별 디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공건축과 공간 대상의 ADA와 같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공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로 뉴욕(New York)을 꼽을 수 있다.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 시설과 건축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어진 유리창의 원리(Broken Windows Theory)’를 적용하여 도시 환경 개선을 적극 개선하였다. 특히 지하철철도 역사, 슬럼가에 훼손된 건물 등을 개선하여 범죄발생률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도시 재생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첼시마켓, 뉴욕 하이라인과 같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의 공공디자인은 시카고, LA와 같이 낡은 구도심 재생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와 마케팅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 ② 영국

1980년대 영국의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영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금융과 창조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디자인은 창조산업의 핵심으로서 영국 정부는 디자인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이러한 토양 속에 영국의 공공디자인도 함께 발전하였다.

런던은 공공디자인 정책과 운영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라 할 수 있다. 건축, 도시, 디자인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가 중심이 되어 런던의 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인위원회는 런던시청 산하의 조직이지만 민

간기구의 성격을 가져 시민 중심의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전문가들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여 창의적이면서 런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런던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디자인 영역을 물품과 공간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를 주도하고, 이를 디자인 산업으로 결합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런던의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이 보건, 범죄, 교육, 고령화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에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영역에 디자인 사업들을 실험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주민 참여 확대 등의 새로운 디자인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③ 일본

일본은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한 곳으로 일본은 자연재해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각 영역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철저한 디자인 설계, 시공, 감리의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고품질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여 재료, 마감, 시공 등 공공디자인 전반에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 시공과 철저한 감리의 풍토가 정착되어 있다.

일본의 공공디자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지역의 특성을 중시하고 주민의 니즈를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풍토 속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이 발전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이유로 빠르게 붕괴되는 일본의 농어촌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일본에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아닌 커뮤니티디자인(communitiy design)으로 통용되었다. 일본의 커뮤니티디자인은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 지역 주민의 공동 활동 지원,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개발 등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공공디자인은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에 대비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일본은 고령자들의 생활, 건강, 복지, 문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고령 이용자를 중심으로 공공건축, 시설물, 시각안내, 공공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있다.

### ④ 북유럽 국가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노르딕)국가들은 텍스타일, 목공예, 도자기 등의 수공예가 발달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발달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공공디자인에도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의 공공디자인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복지차원에서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구도심의 개발, 친수 공간 조성 등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에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특유의 목재 등의 감성적 재료 사용, 유기적 곡선의 형태, 이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등을 적용하여 기존 도시와의 감각적 조화를 꾀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진일보하여,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넘어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포괄적(Inclusive) 디자인, 정상화(normalization)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선 등 고령자들의 주거 공간 개선을 지원하여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의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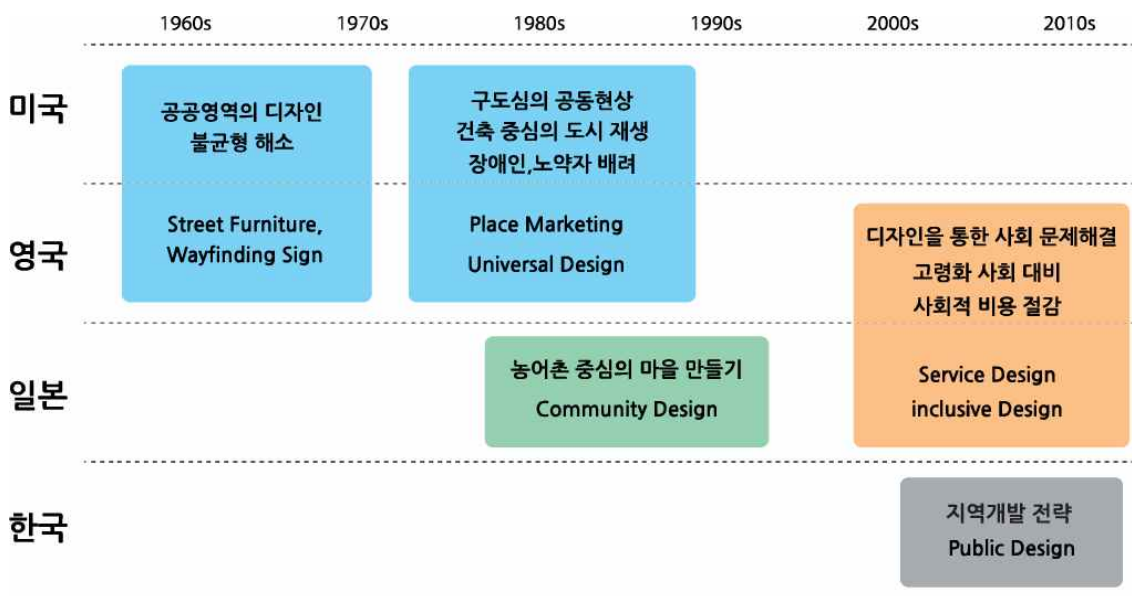


그림 II-3. 각국의 공공디자인 특성

## (6) 부처의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업과 정책의 내용과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부처별로 이미 다양한 공공디자인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디자인 초기의 주요 사업이었던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경관 개선, 도로시설물 개선 등의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졌다.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입지에 따라 농촌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촌 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해왔던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은 기존의 부처 관할 업무에 관련한 정책과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확산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사업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정부 중앙부처에서 분리된 사업과 정책은 광역/기초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의 비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별로 사업의 목표와 성격이 유사한 경우, 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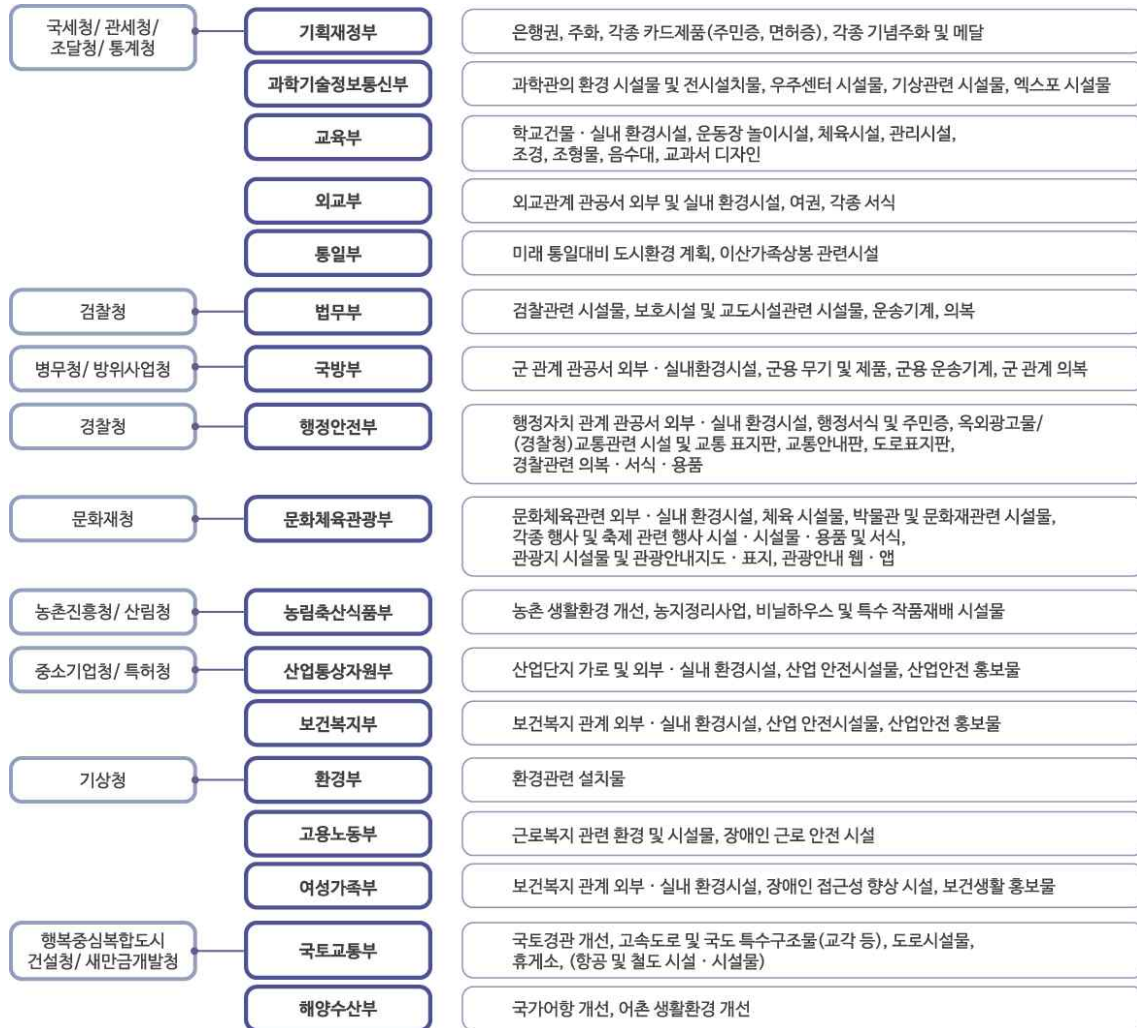


그림 II-4.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정책들

## 2.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 (1)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2005년 우리나라에서 행정과 정책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될 때 그 필요성으로 언급된 것은 민간영역의 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질적 차이였다. 당시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반면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의 품질과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국민 모두를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초기의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중앙부처,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공공디자인이 제공하는 물리적 기능과 편익을 넘어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① 문화창조자로서 공공디자인

공공영역에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도시의 풍경으로 무미건조한 도시 경관들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더해지면서 차별화된 풍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디자인으로 개선된 도시는 아름다움과 함께 감성을 더하고, 더나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산업의 관점과 문화의 관점이 함께 작용한다. 해외 국가의 디자인 정책의 지향 가치를 보면, 수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중시하는 대만, 일본 등의 국가는 디자인을 산업의 관점에서 주로 지원하는 반면에, 북유럽 국가 등은 디자인을 문화로서 인식하여 문화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효과는 제품 판매와 같이 금전적 이익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문화적 감성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효과는 지역의 역사, 인물, 자산 등의 인문적 요소를 통합시키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공공디자인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브랜드로 발전한다. 디자인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 자산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 일본의 디자인 기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 브

랜드의 확립은 지역민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장소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관광, 특산품 판매 등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환경은 도시 구성원을 심리적으로 더 편하게 하고, 해당도시가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국민들은 잘 디자인된 공공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일상을 촉진하게 한다. 최근에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은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재건축과 같이 전면 철거와 신축이라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 기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은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다. 도시재생에서 공공디자인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역의 시간적 경과를 반영하고, 재건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디자인에서 문화적 특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국민의 삶과 인식 속으로 문화가 확산되도록 기능할 수 있다.

### ② 문제해결자로서 공공디자인

유럽에서 공공 영역에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시설물의 품질을 높임으로서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디자인이 가지는 심미적, 조형적 기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효과도 낳았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디자인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공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 심미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디자인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창의적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으며, 유럽과 일본은 디자인의 문제해결의 창의성을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자인의 대상이 제품과 공간과 같은 물리적 대상에서 행동, 경험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공공디자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공간, 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삶에 대한 균등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가치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목표 실현에 기여한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고밀도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였다. 범죄, 보건, 안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 해결에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곳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병원의 응급실의 폭력 방지, 저소득 어린이 교육 등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디자인

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발전시켰다.

공공디자인이 사회문제 해결에서 특히 유용한 점은 문제 발굴과 대안 모색 과정에 체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대안 제시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와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이러한 접근은 시각적, 물리적 대상이 아닌 행동, 과정, 감정 등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학, 인류학, 인지과학 등 다른 학문 영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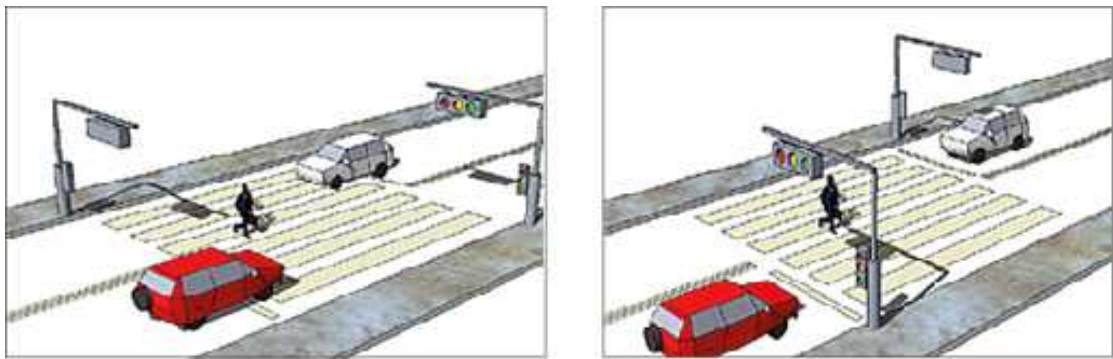


그림 II-5. 신호등 배치 위치의 조정을 통해서 정지선 준수 유도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가 공공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일반 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물, 용품, 환경, 시각이미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고령자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주택 개선 등은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고령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본과 북유럽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다.

### ③ 경제활성자로서 공공디자인

1980년대 영국이 제조업의 붕괴로 경제적 위기에 빠지자 영국 경제의 돌파구로 활용된 것이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아니면 사임하라(design or resign)는 문구가 말하는 것처럼 영국은 디자인 육성을 통해 다이슨(Dyson), 폴 스미스(Paul Smith) 등 디자인의 높은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또한 도시재생, 건축, 사회기반시설에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 경관을 일신하였다. 특히 런던(London)은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을 참여시켜 도시 곳곳을 명소로 만들어 방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였다. 런던은 새로운 시설과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쇠퇴 이후 사용하지 않는 산업 유산과 구도심의 가로 등의 도시 재생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과 장소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관광 등의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발전은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이끌고 이와 연관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의료, 범죄예방 등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걷기 편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에게 삶의 안심을 제공하고, 경찰력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하게 치안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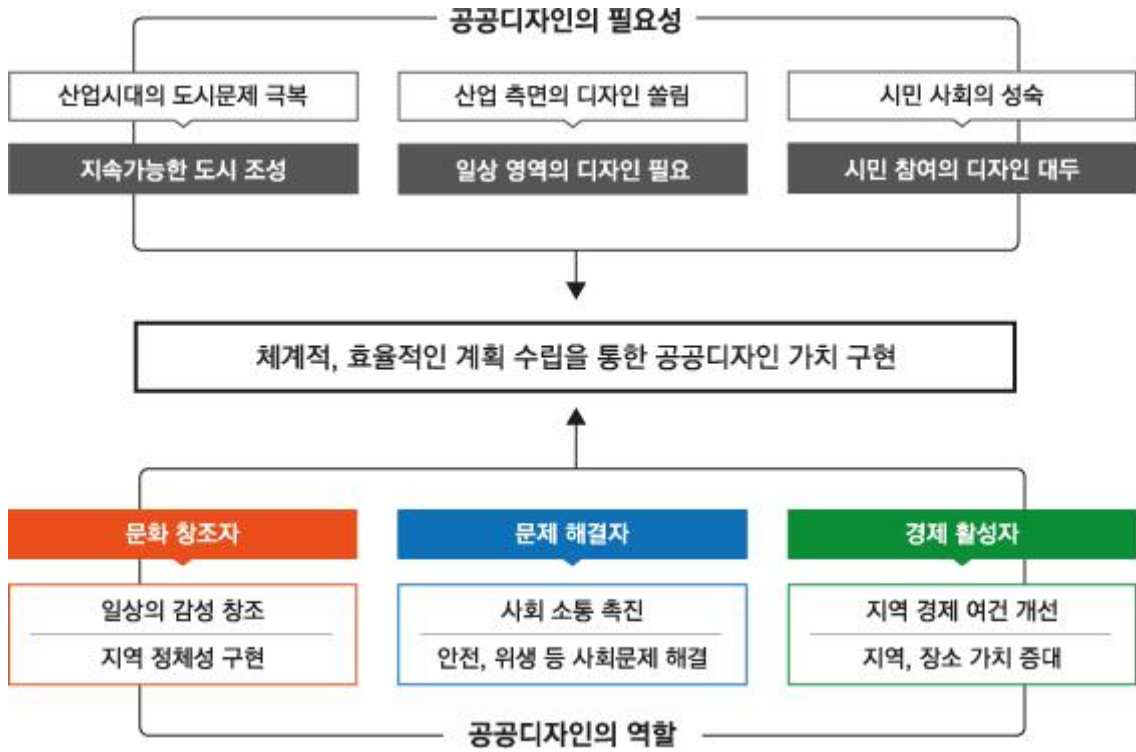


그림 II-6.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역할



### 3. 공공디자인의 환경 변화

#### (1) 사회 환경 변화

##### ① 저출산, 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UN 기준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UN에서는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로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sup>1)</sup> 현재의 인구변화 추이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6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것으로, 미국의 94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었다는 일본의 26년보다 빠르게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7)

####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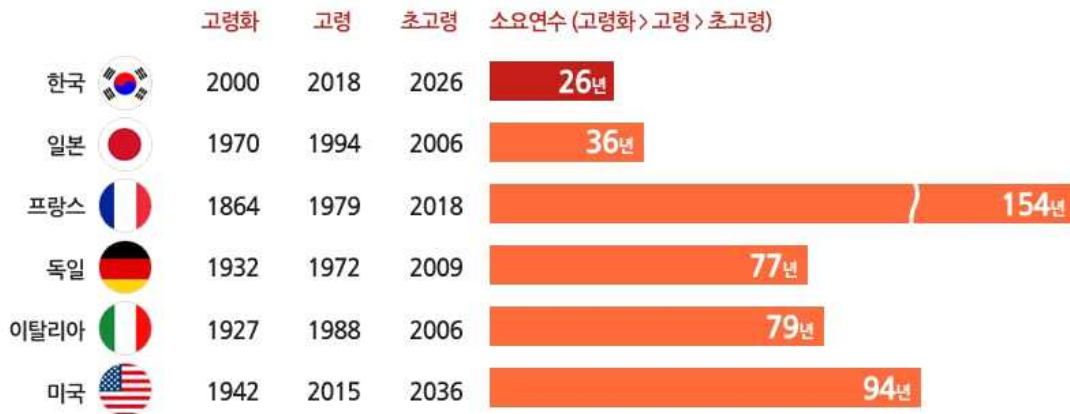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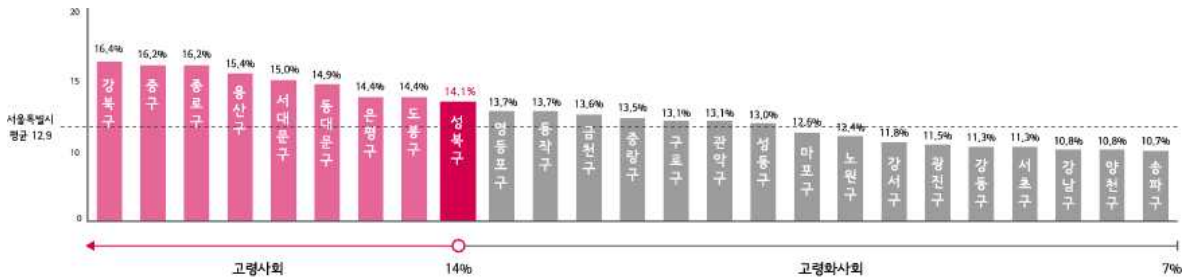


그림 II-7,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 비교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의 준비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고령화에서 유의할 점은 지역별로 고령화 진행 속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전남, 경남 등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해있다. 서울시의 경우에

1) UN 기준, 인구대비 65세 인구 비율 14%: 고령사회, 인구대비 65세 인구 비율 20%: 초고령사회로 규정

도 강남, 서초 등의 기업체가 집중된 지역과 강북구, 도봉구 등 주거지 중심지에 따라 고령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II-8) 일본, 유럽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영역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16년 10월 기준  
출처 : KOSIS 통계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

그림 II-8, 서울시의 자치구별 65세 인구 비율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족 증가 등으로 새로운 가구 유형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 배우자 사망과 같은 결혼한 부부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결혼기피 현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였으며, 전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5년 27.1%이나, 향후 2020년 29.6%, 2035년 34.3% 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의 세계 평균이 13%, 우리보다 고령화와 비혼 추세가 먼저 진행된 일본은 31.5%의 비율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혼인귀화자 등의 현황을 보면 2010년 22만2천명, 2012년 26만8천명, 2015년 30만5천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 집중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류 등의 인기로 2106년 기준 1,600만명을 넘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 외국인을 배려한 공공 환경과 서비스 조성이 필요하다.

## ② 안전과 편의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메르스사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화재 등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면서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하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몰래카메라, 개인정보유출,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 빈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 속의 범죄 예방과 더불어 디지털 생활에서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안전을 넘어 생활 속 어디서나 ‘안심’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경주와 포항 등을 비롯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빈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사회가 지진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연간 발생일수가 크게 증가되면서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날씨 정보를 찾는 비율보다 미세먼지 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야외활동을 결정하는 등의 대기의 상태가 삶에 끼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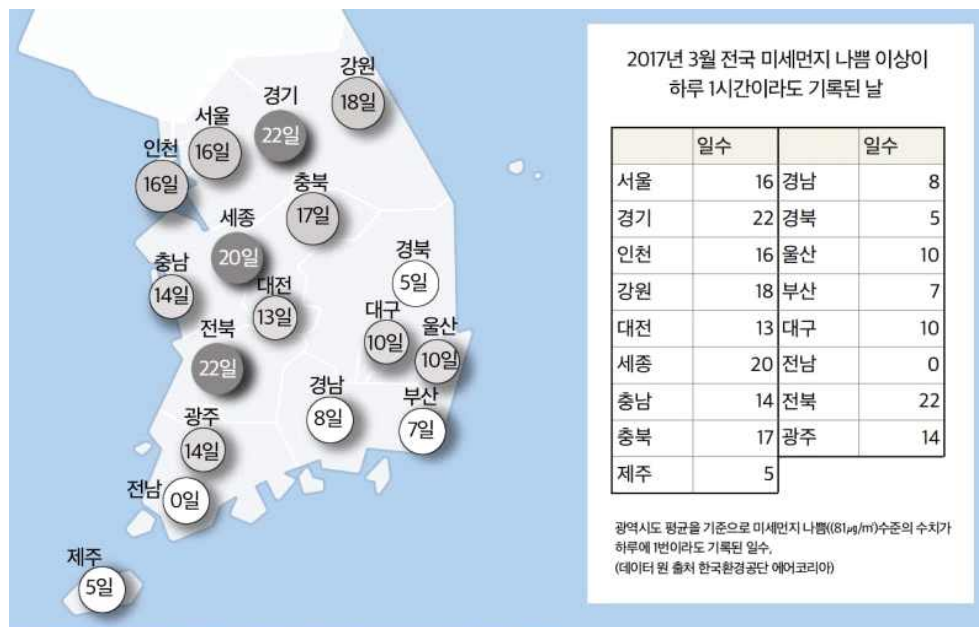


그림 II-9,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1시간이상 기록된 일자 (2017년 3월 기준)

가습기 소독제 피해자 구제, 여성 생리대의 안전성 논란, 달걀의 안전성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 문제들로 인식되면서,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일상용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민간 영역에 비해 발전이 지체된 보행공간, 광장, 공원, 놀이터 등 공공환경 및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 보급의 확대와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국민의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대비하여 어린이, 고령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편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디자인이 지자체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공공디자인을 통한 보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확산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지켜져야 할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와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학교 내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육체적 건강과 안전’에서 ‘정신적, 심리적 건강과 안전’으로의 안전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범죄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안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안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 ③ 사회 참여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2016년 촛불 혁명과 같이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소통과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과 사업의 국민 참여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에서 특히 요구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으로 개인들의 행복을 중시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같이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중시하여 일을 우선으로 하던 풍토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휴가와 주말이 보장되고, 개인의 취미와 여가가 중시되는 사회적 추세는 젊은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적(所有的) 소비에서 경험적(經驗的) 소비로 소비 유형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소유적 소비는 상품 구매와 같이 소비 후 구입한 상품의 소유가 구매자로 귀속되는 소비를 지칭한다. 경험적 소비는 영화관, 놀이공원, 여행, 교육 등 소비 후에 구매자에게 경험으로 남겨진 소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체 소비에서 경험적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 소비에서도 나타나 구매시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중시하던 것에서 브랜드, 사용의 편의성, 즐거움 등과 같이 경험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 (2) 정책 환경 변화

### ① 공공디자인 본연의 공공성 회복 요구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활동이지만, 일부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디자인의 심미적 기능에 치중하여 국민들에게 공공디자인의 기능을 올바르게 알리지 않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지자체들의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 등의 디자인이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장식적 요소가 강조되어 공공디자인을 ‘미관 치장’의 수단으로만 보이게 하여, 국민들에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피로감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일부 공공디자인 사업은 지역민의 현실적 필요와 거리가 있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진행되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켰다.

지난 10여 년간의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시각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생활의 편의성도 함께 개선되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공공디자인을 불필요한 외관 개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공공디자인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② 규제완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개입방식으로서 공공디자인 요구

많은 국가들이 국민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규제가 필요한 것이 현실로 규제를 줄이는 것과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넛지(Nudge)’가 활용되고 있다. 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나 강제적인 지시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선택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는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대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공저로 출판한 <넛지>라는 책을 통해 소개되어 알려진 용어이다. 넛지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개발되었으나 넛지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등에서는 법규를 통한 규제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국민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넛지’개념의 공공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넛지(Nudge)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을

2009~2012년 규제정보국 책임자로 임명하고,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료효율성(연비) 표기규제 라벨을 개선하였다. 그림 II-10과 같이 기존의 라벨이 평균 연비만을 표시하는 것을, 차량의 연비에 따라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유류 비용을 표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II-10. 넷지의 개념을 적용한 미국의 연비 규제 라벨

영국은 2010년, 캐나다(온타리오)는 2014년, 호주는 2016년에 행동통찰(경제) 팀 등을 구성하여 공공서비스에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취업률, 세금납부율 등에 성과를 거두었다. 일례로 사람들에게 강제적 지시로 인식될 수 있는 ‘우측통행’ 문구보다는 횡단보도, 계단 등에 우측통행 화살표 표식을 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걷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③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 개발방식 변화에 부응

도시 확장, 도시 기능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도심 공동화와 노후화는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시의 균형 발전, 슬럼화 방지,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많은 도시들이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이들 지역의 재건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70, 80년대 고도성장기에 확장되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역시 노후화되거나 거주와 생활 여건이 악화되어 재개발에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는 노후된 거주 지역을 구역단위의 재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뉴타운이라는 불리는 재개발구역은 기존의 주택과 마을을 철거하고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민의 이탈, 획일화된 경관 형성, 지역문화의 상실, 개발 과정의 주민 간 갈등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기존 도시의 맥락을 보호하면서 실제 거주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생’의 방식으로 도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도시 공동화와 노후화가 우리보다 빠르게 진행된 미국과 유럽에서 도시재생은 이미 일반화된 방식으로 이들 도시들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공장, 역사, 창고 등의 산업유산에 재생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 재생은 기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재생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생과정에 공공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도시 명소를 만들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창조할 수도 있다.

서울의 ‘서울로 7017’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 뉴욕시 하이라인(High-line Park)은 1982년 운영을 중단한 폐선 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의 구조물과 시설들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하이라인 친구들(High-line Friends)’이 주축이 되어 계획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한 뉴욕시에 의해 디자인과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원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여러 위치에서 뉴욕을 조망할 수 있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으로 지역 뉴욕의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하이라인 완공 후 방문객 증가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 문화, 예술 관련 시설들이 유입되어 지가 상승과 더불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그림 II-11. 철도 폐선을 재생한 뉴욕의 하이라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9월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등 공급(50억, 3년), 골목길 정비(100억, 4년) 공공시설을 활용 공동체 거점 조성·복지문화서비스

스 개선(150억, 5년), 중심상권 회복 및 집객시설 조성(150억, 5년), 노후·유휴 산업·경제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250억, 6년) 등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 ④ 공공디자인진흥법(2016.8.4)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 필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기존에 각 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이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정책으로서 공공디자인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률 제정시 타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범위가 ‘시설물 등으로’ 표현되어 시설물 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은 사회문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물만으로 공공디자인이 지향하는 공공성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서 ‘공공 공간과 장소’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만큼, 공공디자인의 대상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적기능을 하는 민간의 시설과 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일본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세를 보면 민간 공간과 시설에도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공적 기능의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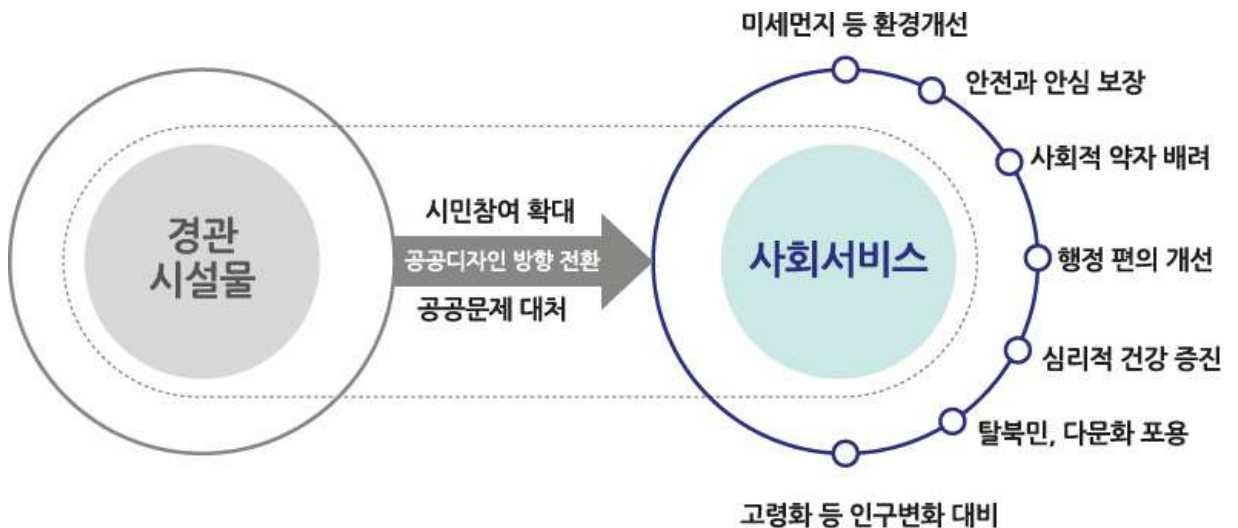


그림 II-12. 공공디자인 방향의 변화



### (3) 기술 환경 변화

#### ①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활용성 확대

디지털기술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기술이 공공디자인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카드결제, 교통시설 이용 등 실시간으로 방대하게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가 운영을 시작한 서울의 N버스(올빼미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로 뽑힌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심야버스 운영을 결정하였다. KT의 협조를 받아 심야시간의 통화량 500억건, 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건, 그리고 신용카드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 정류장 위치, 배차간격을 결정하였다. 2017년까지 약 4년 동안 서울시 올빼미버스 이용객은 1,1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14년 국민만족도 1위 행정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우크라이나에 올빼미버스 노하우 전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II-13. 서울 올빼미버스 노선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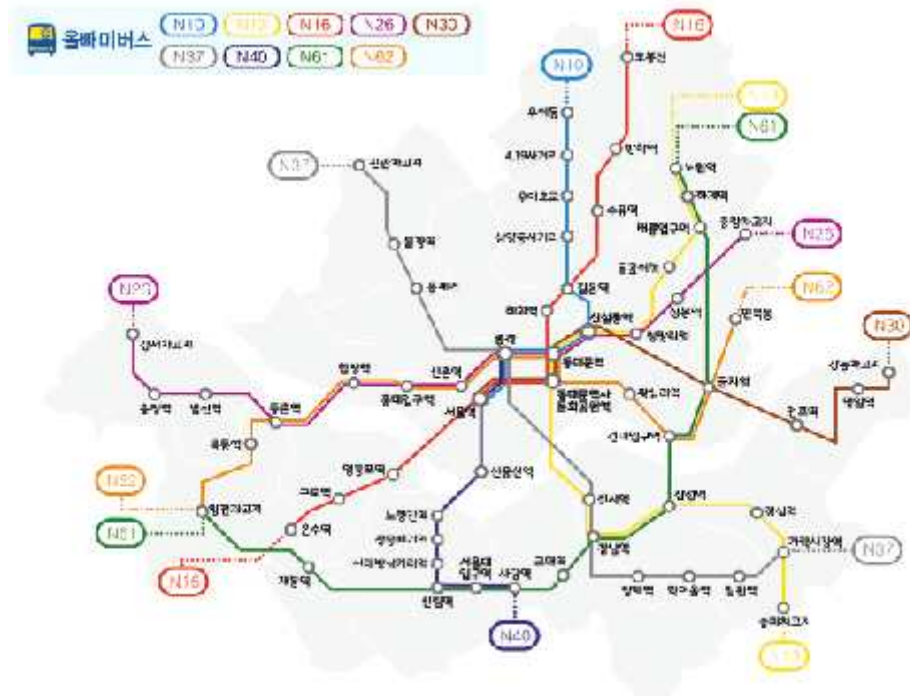


그림 II-1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된 올빼미버스 노선도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시는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쓰레기통을 개발하고 이를 수거 시스템과 결합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였다. 바르셀로나 가로에 있는 쓰레기통에 센서를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량을 관제소에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수거가 필요한 쓰레기통만을 선정하여 최소 동선으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노동량을 줄이고, 수거 차량의 불필요한 운행을 최소화 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배기가스 배출량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림 II-15. IoT 기술을 활용한 바르셀로나의 쓰레기통

## ② 디자인 기술 융복합

애플의 MP3플레이어인 아이팟(i-Pod)의 성공은 디지털 음원 재생기인 제품(player)과 콘텐츠가 되는 음원의 제공, 그리고 음원의 검색, 다운로드, 결제 등을 지원하는 i-Tune 서비스의 결합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이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결합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공공서비스에서도 시설물, 서비스, 콘텐츠를 통합 또는 연계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자전거 서비스(Velib)는 시민에게는 친환경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여행객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파리를 누비는 경험을 제공한다. 파리 곳곳 1,800여소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웹사이트와 앱(APP)으로 사전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며, Velib 앱을 이용하면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가까운 대여소 위치 확인 및 임대 가능한 자전거의 수와 반납 가능한 잔여석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파리의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 교통사고와 대기 오염을 감소시켰다. 또한 연간 14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여 파리의 숨은 매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파리의 체류 기간을 연장시켜 파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림 II-16. 파리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Velib

### ③ 인지공학, 행동경제학 등의 융합과 협력

공공디자인이 건강, 안전, 교육 등의 복지 분야로 확장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 등을 연구하는 기법들이 공공디자인에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과 북유럽 등은 심리학, 인지공학, 행동경제학 등 전문분야와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기반의 사회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 런던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의 응급실(A&E) 폭력 감소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2011년 기준 영국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과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연간 59,000회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피해와 업무 기피, 응급환자 진료의 지체,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이너, 정책입안자, 응급처리 전문가, 인간공학자, 데이터 분석가, 사회과학자, 평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다학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응급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인을 디자인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배치하였으며, 응급치료 공간과 방문자의 공간 분리, 응급환자 처리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응급실의 폭력과 무질서를 크게 감소시켰다.

## (4) 디자인의 변화

### ① 디자인 영역의 다양화

사회에서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자인에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웹디자인과 게임디자인 같은 분야가 출현했다면 근래의 새로운 디자인 영역은 인간의 행동, 감성, 경험과 같이 인문학적 이해가 필요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디자인과 사용자경험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의 도구, 절차, 경험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경험디자인(UX 디자인, User eXperience Design)은 제품, 서비스, 공간, 정보 등을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행동, 감성, 즐거움, 기억 등의 차별화시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디자인과 UX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사람(이용자, user) 중심의 디자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디자인과 UX디자인은 디자인 과정에 많은 부분을 이용자 행동 분석, 니즈 파악 등에 할애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모든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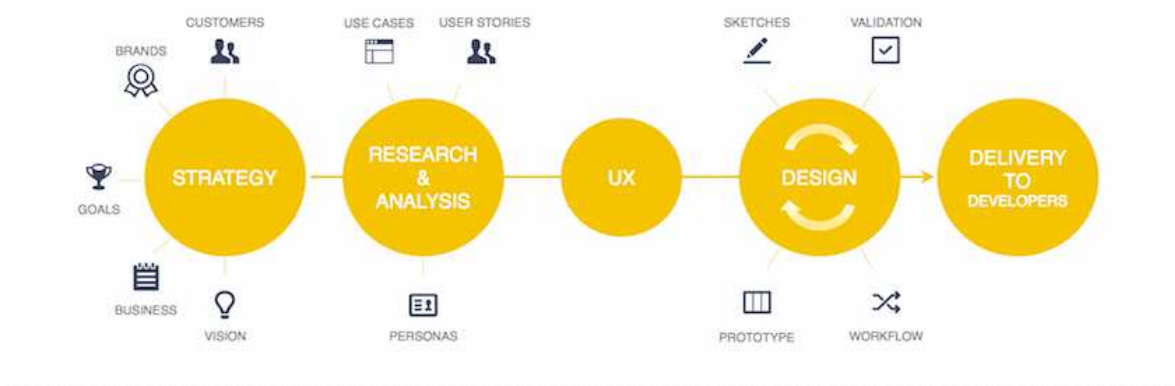


그림 II-17. UX 디자인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예시)

서비스디자인과 UX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 품질, 기능과 같은 물리적 속성에서 브랜드, 가치, 경험 등의 추상적 속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디자인과 UX디자인의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들은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유럽, 일본 등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이들 방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심리학, 인지공학, 행동경제학 등의 협력이 필요로 하며, 서비스디자인과 UX디자인은 다른 전문분야와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디자인과 사용자경험디자인을 범죄 예방, 사회적 격차 해소,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디자인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② 디자인 주도의 혁신 프로세스

디자인의 역할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의 애플(Apple)사를 꼽을 수 있다. 2000년대초 애플의 경쟁사들은 첨단 기술을 먼저 개발한 후, 개발된 기술에 맞추어 디자인을 개발하는 ‘선기술-후디자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먼저 개발하고, 디자인에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는 ‘선디자인-후기술’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당시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많은 엔지니어와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기업과 제품의 혁신 동력으로 설정하였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시장 창출에 성공한 다이슨(Dyson), 구글(Google), 샤오미 등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의 대부분이 디자인을 혁신의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기업에서의 디자인 주도의 혁신 성공 사례가 확산되면서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서도 디자인의 원리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기관 등이 도입한 디자인은 제품, 시각매체, 공간과 같은 완성품으로서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급자와 생산자 중심의 제품 개발에서 탈피하여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 인류학, 인지공학, 경영학 등의 인접 학문과의 협력을 통한 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개발 모든 과정에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의 상호협력을 필수로 하였으며, 출시 이전에 사용자 평가 등을 통해 디자인과 기술의 검증에 힘쓰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특정 목표 시장과 고객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업(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에서도 인간 중심 접근과 소통이 중시되며, 최근 디자인 영역에 개발된 혁신 프로세스는 공공디자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③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증대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심리적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을 수행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위적 폐기를 조장하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으며,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존재한다. 디자인이 사회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만큼, 디자인이 사회와 경제에 대한 책무와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여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거나 재활용 등의 친환경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 디자인으로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를 배려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보다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디자인이 자본과 시장에 지배에서 이용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가치를 추구해야 해야 한다. 이상의 모든 항목들은 공공성을 구현하는 공공디자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며, 철학과 이념이 부족한 공공디자인은 도구로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사업에 명확한 철학 설정이 요구된다.

## 4. 공공디자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

### (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조항(제5조)에 따른 현황 분석

#### ①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수립 필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목적에서 규정된 공공디자인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반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발전 방향과 장기적 전략은 수립되지 못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장기적, 단계적 목표와 발전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된 공공디자인 사업들의 대다수는 지역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 중심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문화도 트렌드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인만큼,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계획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방향 수립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②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의 현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광역, 기초 등의 지자체 및 기관별로 공공디자인이 추진되어,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과 제도가 미비하였다.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과 업무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행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경관, 건축, 조경, 간판, 시설물, 홍보물 등 주관 부서별로 관리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상과 조건에 따라 상이한 기준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존재하여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진행되거나, 부처간 또는 지역별 공공디자인 기관들 간의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부처간 협력 사업 모델이 많지 않으며, 부처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미흡하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기초 지자체라고 해도 인구, 조직, 예산의 규모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와 소속이 상이하다. 일례로 지자체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이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등의 다른 이름으로 공공디자인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의 명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영역과 사업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와 품질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내에 공공디자인 연관 대학이 없거나,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가 집단의 부족으로 사업의 자문, 심의, 감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이 없는 현실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인증 또는 검증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전담기관 수립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디자인 제도적 보완, 연구개발, 관련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 공공디자인 진흥 전반을 총괄할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공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기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공공디자인을 총괄하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크지 않으며 역할 규정도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완료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가 되지 않아 완료된 사업 현장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노후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시각적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시설물과 환경 등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공공디자인 사업들은 완료 후 유지, 관리의 주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는 공공디자인 유지, 보수, 관리의 주체, 책임,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용이정보다는 차별성과 특이성을 강조한 디자인의 선택에 비롯된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 구간에 같은 기능을 가진 공공시설물이라도 사업 시기, 사업 주체 등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하나에 가로에 서로 다른 가로등, 블라드, 펜스, 벤치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③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현황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반면에 공공디자인의 전문 인력의 배출과 육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2017년 국내 디자인계열 대학에 공공디자인 전공 및 공공디자인학과가 없다. 다만 동양대학교 공공인재대학에 디자인학부가 있어 공공영역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전공으로 졸업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부 과정은 국내에 없다. 국내 대학원의 경우, 2017년 홍익대에 공공디자인 전공이 신설된 것이 유일하며, 과거 2009년 건국대 디자인대학원에 ‘공공디자인전공’이 개설되었으나 학생 부족으로 2016년 폐전공 되었다.

공공디자인의 역사가 짧고 공공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의 없다보니 공공디자인 관련 전공자나 인접 전공자들이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공디자인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기획, 관리, 시행주체 선정, 사업추진 평가, 감리 등 주요 업무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담당 공무원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지역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에서는 위원회 운영, 심의 및 자문 등 수행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전문가 집단의 규모와 역량이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의 품질과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심의, 자문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역의 공공디자인 전문가 부족으로 심의와 자문이 특정 전문가 집단에 좌우되거나, 지역에 부족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다보니 심의와 자문 등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들이 개설된 대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전문가가 부족하고, 공공디자인 역량이 검증되지 않는 인력이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그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들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역사가 짧고 학문적 토대가 취약하여 공공디자인 현장에서조차 공공디자인의 전문가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업계와 학계가 공공디자인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에 공공디자인 전공이 개설되어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의 현황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용되었던 공공디자인조례와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 운용에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디자인의 목적, 종합계획, 사업 등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행정과 사업 추진에 안정감과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범위에서 ‘공

간'과 '장소'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공공디자인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심의, 자문, 위원회 등 제한된 업무에만 활용했을 뿐 공공디자인의 실질적 진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조형물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성이 높은 유사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경관조례와 더불어 이들 조례들 사이의 업무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 조직 규모와 업무 분할에 따라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통합 및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설치), 감리 등의 디자인 과정에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디자인 시설물 등의 제작, 시공, 감리 등에 자격과 인증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공공디자인의 품질 저하와 함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관련 기업이 난립하여 공공디자인 산업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가로 막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요구되는 디자인 용역과 사업이 엔지니어링과 학술용역에 기준하여 비용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완료된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디자이너들의 인건비 등이 엔지니어링 기준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특히 디자인 초기 과정에 필요한 기획과 구상 단계의 작업들의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다행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디자인의 기획과 구상 단계의 과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디자인 과정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디자인의 산업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법의 내용이 온전하게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제정된 이후의 공공디자인의 산업과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⑤ 공공디자인 산업 현황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기관에 의해 계획, 집행되지만 현장에서 디자인의 구현은 디자이너와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우량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 속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의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이 필요한데, 산업디자인의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심사하여 인정하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자격<sup>2)</sup>을 득하게 된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관련 업체들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을 꼽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배후 시장이 크고, 디자인의 고급 인력의 배출이 집중되어 공공디자인 기업들의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지방의 공공디자인 기업의 인력 유입의 한계와 참여 기회의 한정 등으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업에 해당 지역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공디자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부분은 제안 발표를 통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업체들이 제안 발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이 필요한데, 이때 적지 않는 인력,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체가 당선이 되지 못하면 이 비용은 손실이 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건축과 디자인 공모에 당선자에게는 해당 사업의 설계권을 주고, 2등과 3등에게는 상금 또는 참여 과정의 실비를 주고 있다. 공공디자인 제안서에는 디자인, 스케치, 컴퓨터그래픽(CG)와 같이 창의성과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업체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경쟁 제안에 참여한 업체에서 1등이 아닌 우수 제안들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체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안을 가능하게 하고,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안서의 보상)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상세히 규정, 고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백만원 중 높은 금액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비는 대상자가 2인인 경우와 1인인 경우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 ⑥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의 현황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전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

2) 산업디자인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하고, 매출액이 2억 이상인 업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면, 접수, 검토, 승인 절차를 거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인증받는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공디자인 성격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중복, 공공디자인 전문성 취약, 단기적 성과에 집중, 예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라고 하지만 부처마다 지향점과 가치가 다르고, 동일한 내용과 목표의 사업이라 하여도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다. 국민들은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 않으며,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여 부처 간 공공디자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화된 도시 재정비를 위한 방법이 대규모 재건축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어, 도시 재생의 특성상 부처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사회가 도시재생에 대한 취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많지 않아, 향후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공공디자인이 도시재생에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공공디자인은 가로등, 벤치, 펜스, 버스정류장, 수목보호대 등의 공공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일한 가로와 구간이라고 하여도 공공시설물의 대상에 따라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서로 다른 디자인의 시설물이 혼재하고 이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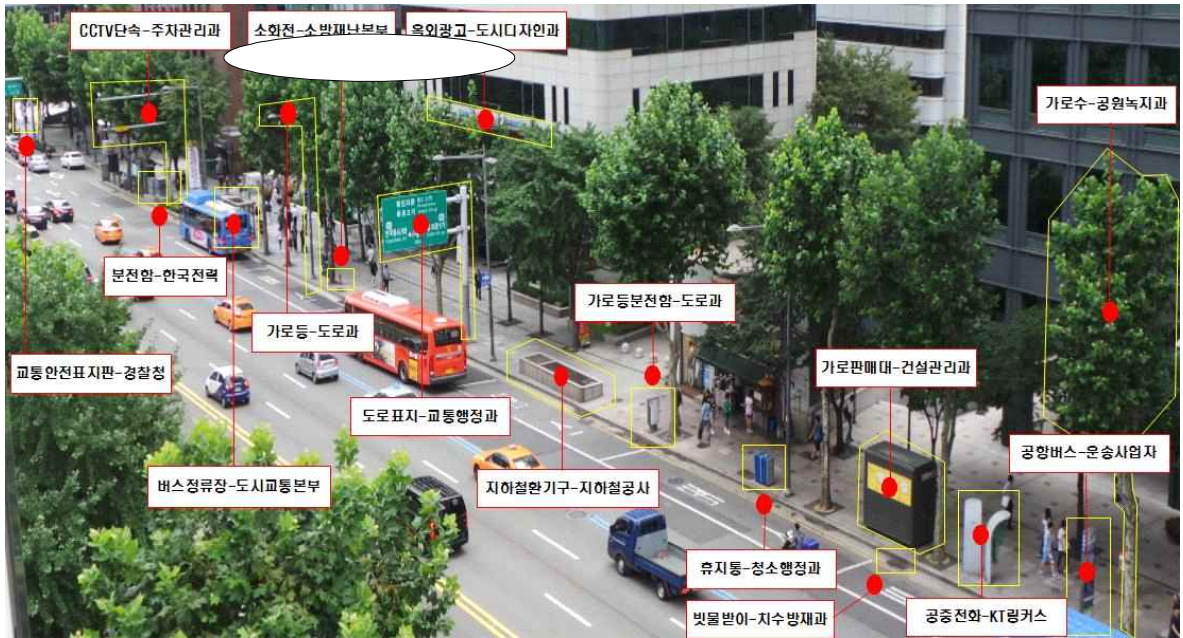


그림 II-18. OO구 가로시설물의 관리주체(2013년)

2006년 서울시가 시장 직할로 디자인본부를 신설하고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디자인서울거리(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걷기 편한 평탄도와 바닥 마감율 가진 보도,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통합,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 정체성 부여를 위한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진 거리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 건축 등에 비해 노후된 도시 환경을 균형 있게 개발하여 가로 이용 시민의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국민들 다수는 이 사업을 도시미관 개선으로 이해하고, 공공디자인을 일상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도시미관 개선 수단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공디자인이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성 증진을 위한 활동임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그림 II-19. OO구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2009년)

공공디자인의 이해가 부족한 시기의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의 공기관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주민의 니즈에 부합되지 않는 지자체장 주도의 사업이 추진되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들의 계획과 진행이 행정가와 전문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공디자인의 이용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공공디자인은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공평성 등이 중요한 만큼 국민(이용자)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며, 디자인 분야에서 이용자 참여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행정 전반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로 공공디자인에서도 이용자 중심, 이용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 환경, 인권 등 공공문제해결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어,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에 국민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이용자)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고, 공공디자인 일부 사업에서 시민과 주민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참여 방식과 과정이 체계화 되지 못해 사업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 만큼,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실제 주민이 기획, 계획, 실행, 관리 등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 (2)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기본 원칙 조항(제10조)의 관련 현황 분석

### 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1항은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본질인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경관과 심미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새롭게 만들어진 공공시설물 등이 기존 도시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여주기식 공공디자인 사업들은 단기간에 추진된 것이 많아 지역주민의 니즈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조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낮은 이용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공공디자인 도입 초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했던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이 가로 중심의 정비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보행로를 모두가 걷기 편한 보도 환경을 만들고, 가로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편의 증진, 상권 활성화, 지역 명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럽과 일본의 많은 도시들도 하는 대표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걷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공공디자인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지역의 중심가로 개선과 같이 상권 활성화, 관광 명소화 등의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외부인 유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디자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같이 가로 환경 개선 사업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 도시들은 공공디자인 사업들의 추진이 많지 않아 도농간 도시 경관과 시설물의 품질 등의 격차가 증대되기도 하였다.

2010년대 이후 공공디자인은 범죄예방, 교통사고 감소 등 일상의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행되어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아름다움’과 ‘쾌적함’ 만들기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공공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서울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과 같이 새로운 공공디자인의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범죄예방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등의 디자인사업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들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일상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서 향후 더욱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디자인, UX 디자인 등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공공디자인 사업 모형이 될 수 있다.

### ②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정책은 국민을 향해야 하며, 따라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활용 방법의 변화를 불러온다. 특히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근력 저하, 시각, 청각 등의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퇴 등 고령인구들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어린이 등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를 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지향하는 가치와 실천 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무장애/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여 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편리함을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정상인과의 동등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정상화(Normalization)/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들의 다수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배리어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과 제품과 같은 물리적 접근을 넘어 정보 접근과 이용 등 인지 관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를 넘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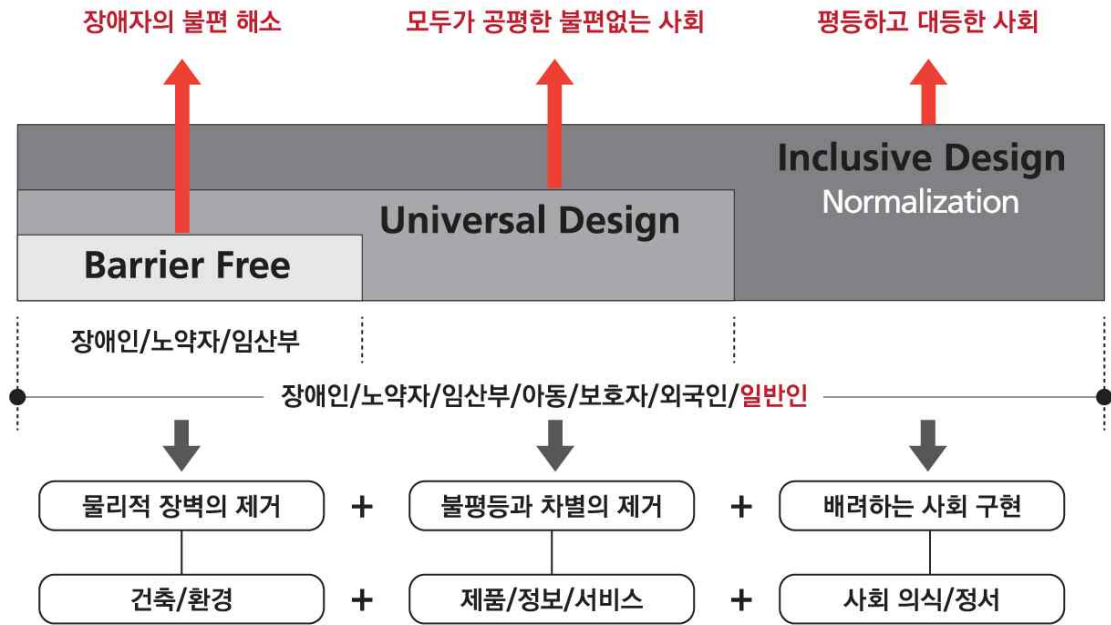


그림 II-20.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비교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들이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례로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지점들의 화장실을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로 개선하여 고령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 주요시설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적극 권장, 감독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공간과 서비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령자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림 II-2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Panasonic의 세탁기

공공디자인법에 규정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이 모두를 배려하는 철학이 국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체험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 국내 초등학교 교육의 경우 미술시간에 디자인을 다루면서 언급을 하는 정도이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사회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 공유의 중요성은 관련 정책과 사업 협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계획 단계에 적용되어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축과 시설물이 완공된 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려면 계획 단계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일례로 서울 지하철역사에 승강기 설치의 경우, 1980년대 이전 역사에 승강기 설치의 위치 선정도 어렵고 설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 시민들의 불편도 동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들의 다수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 공간 등의 조성에 있어 초기 단계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구마모토시의 경우 모든 정책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 절차로 자리 잡았다.

지하철 좌석 양보와 같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배려가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향유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들이 쉽게 등산과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등산로와 탐방로를 만들고, 극장 등의 문화시설에 장애인자리를 접근하기 편한 곳에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광의 역할이 커지고, 외국인 내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을 위한 길찾기 정보 체계가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주요 관광지와 교통 거점 등의 다국어 표기 등의 정보안내체계가 한국인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목적지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는 관광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의 초기 사업들은 물리적 경관 조성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문화 경관 조성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 경관은 건축, 시설, 조형물과 같은 물리적 존재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방식까지 포괄하여 형성된다. 이처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공공디자인으로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에 디자인과 더불어 다양한 인문학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예산 배정과 대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외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지역 홍보와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개발된 지역의 브랜드와 캐릭터가 널리 이용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단체장 변화에 따라 브랜드와 캐릭터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지기도 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된 브랜드와 캐릭터들이 널리 활용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브랜드와 캐릭터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의 많은 지역 브랜드들이 지역민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개발된 경우가 많아, 지역 브랜드가 오히려 지역 주민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국가 단위의 정체성 구현 사업은 많지 않았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은 자국의 입구가 되는 공항에서부터 국민이 들고 다니는 여권, 그리고 시각적 슬로건까지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등의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임에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과 매력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의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정체성 제고와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한류,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이미지들이 세계에서 널리 환영받는 만큼,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의 디지털 문화의 강점과 결합하여 공공디자인의 적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후화된 도시 개발의 방식이 기존의 마을을 철거하고 단지 형태로 개발되는 재건축에서 지역의 공간과 문화 맥락을 유지하는 재생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획일화되고 도식화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도시재생 모델이 필요하며 여기에 공공디자인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은 경관에서부터 시설물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 경관은 주로 경관법에 의해 계획, 관리되었으며 많은 도시들이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공공디자인을 관리하여 왔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관법, 건축법 등의 기존 법률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법률의 목적과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도시 경관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경관의 도시계획은 거시적 도시 기능만을 설명하고 있어, 공공디자인은 미시적 관점에서 도시 경관 관리 요소와 콘텐츠 등을 담당하도록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④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 참여

국가의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로,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디자인에서도 국민(이용자) 참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디자인이 사회문제해결 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 참여의 창구와 과정이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전반에 이용자(국민 및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과 정책에 따른 국민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 등은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디자인 정책과 사업에 국민 참여가 필요하지만, 디자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 참여의 범위와 역할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공공디자인 사

업과 정책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있으나, 최종 디자인의 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중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시민의 니즈 발굴, 디자인의 검증 등에 성과는 있으나 디자인의 창의적 해결에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공디자인에서의 국민 참여는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디자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며,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참여 국민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 다수가 디자인을 아름다움을 만드는 행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 대상의 공공디자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에서 국민 참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업 완료 후 이용자로써 운영과 관리에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참여한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민 참여가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발 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공디자인의 데이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의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아 공공디자인의 자료와 데이터들이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주민 의견은 거시적 접근보다는 마을, 가로 등과 같이 지역 기반의 미시적 접근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로 일상에서 발견되는 공공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점들로 현실적인 문제 발견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경관법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사업에서의 주민 참여는 법률에 규정된 주민협의체를 통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공공디자인 사업에 따라 이익이 좌우되는 소수 주민에 의해 사업의 성격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 ⑤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도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들이 정부 여러 부처들과 지자체들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부처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디자인 유사사업과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일례로 도시의 동일 가로에서 있는 공공시설물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디자인의 기준도 각기 달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성공 사례를 보면 공공디자인은 교통, 관광, 주거, 행정, 교육, 의료 등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처들의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 공공성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타부처와의 협력 사업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타부처와 협력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부처와 협력 사업이 보편화되지 않은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해 타부처와의 협력 공공디자인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된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전담기관의 설립이 규정된 만큼,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또는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① 법령

공공디자인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5년부터 법제화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6년 11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박찬숙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으나, 해당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2015년 6월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안」이 이종훈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으며,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이 제정·시행(2016.8.4.)되었다. 이로써 공공디자인이 상기 법의 법률적 토대에 국가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자체가 모법 없이 제정하여 운영해 온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 사업 등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행정에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디자인 고유의 창작성을 존중하고, 디자인 행위에 기획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 엔지니어링의 일부로 인식되어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하지만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부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치면서 법 적용대상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으로 한정된 부분은 공공디자인의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많은 공공디자인사업이 공간과 장소를 다루어 왔음에도, 법률에 ‘공간’과 ‘장소’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공간’과 ‘장소’의 범위 확장 및 ‘공중에 공개된 다중이용시설’로 법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공공디자인조례

다수의 지자체들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년)되기 이전에 공공디자인조례(도시디자인조례 포함)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2016년 1월 기준, 245개 지자체 중 150곳(61.2%)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도시디자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에 지자체가 제정한 관련 조례는 모두 ‘공공디자인’이라는 사용하고 있어, 행정에서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의 혼선은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15개 지자체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88.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도시디자인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 동시 보유) 반면에, 기초 지자체의 경우 135개 지자체만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59.2%으로, 아직 많은 기초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비율을 보면, 서울 84.6%, 경기 100%로 조례 제정이 비율이 높은 반면, 부산 11.8%, 대구 11.1%, 경북 20.8%으로 상대적으로 영남지역의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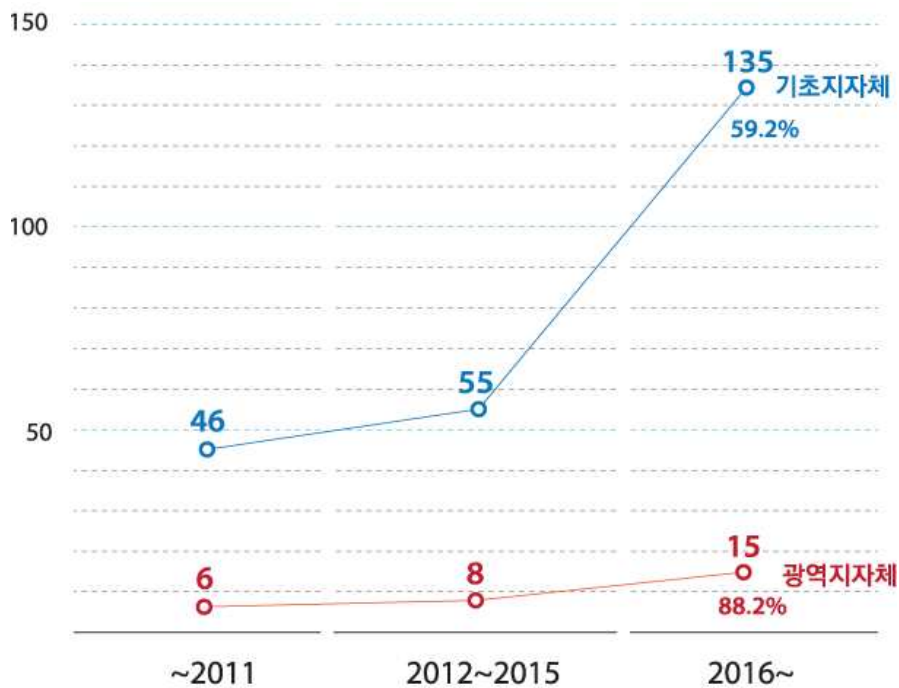


그림 II-22. 지자체 공공디자인 조례수의 변화

표 II-3. 공공디자인 조례 현황 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br>수 | -2011     |           | 2012<br>-2016 |           | 2016<br>법시행<br>이후 |           | 공공<br>디자인<br>직접<br>관련<br>조례<br>보유수 | 비율<br>(%) | 광역<br>기초<br>합산<br>비율<br>(%) | 공공<br>디자인<br>진흥<br>조례명<br>사용 |
|------|-----|----------------|-----------|-----------|---------------|-----------|-------------------|-----------|------------------------------------|-----------|-----------------------------|------------------------------|
|      |     |                | 도시<br>디자인 | 공공<br>디자인 | 도시<br>디자인     | 공공<br>디자인 | 도시<br>디자인         | 공공<br>디자인 |                                    |           |                             |                              |
| 서울   | 광역시 | 1              | 1         |           |               |           |                   |           | 1                                  | 100       | 84.6                        | 0                            |
|      | 기초  | 25             | 21        |           |               |           |                   |           | 21                                 | 84        |                             | 22                           |
| 부산   | 광역시 | 1              | -         | -         | -             | -         | -                 | 1         | 1                                  | 100       | 11.7                        | 1                            |
|      | 기초  | 16             | 1         | -         | -             | -         | -                 | -         | 1                                  | 6.25      |                             | 0                            |
| 대구   | 광역시 | 1              |           |           |               |           |                   | 1         | 1                                  | 100       | 11.1                        | 1                            |
|      | 기초  | 8              |           |           |               |           |                   |           | 0                                  | 0         |                             | 0                            |
| 인천   | 광역시 | 1              |           |           |               | 1         |                   |           | 1                                  | 100       | 27.3                        | 0                            |
|      | 기초  | 10             |           |           |               |           |                   | 2         | 2                                  | 20        |                             | 2                            |
| 광주   | 광역시 | 1              |           | 1         |               |           |                   |           | 1                                  | 100       | 16.7                        | 0                            |
|      | 기초  | 5              |           |           |               |           |                   |           | 0                                  | 0         |                             | 0                            |
| 대전   | 광역시 | 1              | 1**       |           |               |           |                   | 1         | 1                                  | 200       | 150                         | 1                            |
|      | 기초  | 5              |           | 1         |               |           |                   | 4         | 5                                  | 100       |                             | 4                            |
| 울산   | 광역시 | 1              | -         | -         | -             | -         | -                 | -         | 0                                  | 0         | 16.7                        | 0                            |
|      | 기초  | 5              | -         | -         | -             | -         | -                 | 1         | 1                                  | 20        |                             | 1                            |
| 세종   | 광역시 | 1              |           |           |               |           |                   |           | 0                                  | 0         | 0                           | 0                            |
| 경기   | 광역시 | 1              |           | 1         |               |           |                   |           | 1                                  | 100       | 100                         | 1                            |
|      | 기초  | 31             |           | 10        |               | 2         |                   | 19        | 31                                 | 100       |                             | 27                           |
| 강원   | 광역시 | 1              |           |           |               |           |                   | 1         | 1                                  | 100       | 73.7                        | 1                            |
|      | 기초  | 18             |           | 1         |               |           |                   | 12        | 13                                 | 72.2      |                             | 12                           |
| 충북   | 광역시 | 1              |           |           |               | 1         |                   |           | 1                                  | 100       | 83.3                        | 1                            |
|      | 기초  | 11             | 1         |           |               | 3         |                   | 5         | 9                                  | 81.8      |                             | 6                            |
| 충남   | 광역시 | 1              |           | 1         |               |           |                   |           | 1                                  | 100       | 100                         | 1                            |
|      | 기초  | 15             | 1         | 2         |               | 3         |                   | 10        | 15                                 | 100       |                             | 15                           |
| 전북   | 광역시 | 1              |           |           |               |           |                   | 1         | 1                                  | 100       | 40                          | 1                            |
|      | 기초  | 14             |           |           |               |           |                   | 5         | 5                                  | 35.7      |                             | 5                            |
| 전남   | 광역시 | 1              |           | 1         |               |           |                   |           | 1                                  | 100       | 69.6                        | 1                            |
|      | 기초  | 22             |           | 6         |               | 1         |                   | 14        | 21                                 | 95.5      |                             | 15                           |
| 경북   | 광역시 | 1              |           |           |               |           |                   | 1         | 1                                  | 100       | 20.8                        | 1                            |
|      | 기초  | 23             | 1         | 1         |               |           |                   | 2         | 4                                  | 17.4      |                             | 2                            |
| 경남   | 광역시 | 1              |           |           |               |           |                   | 1         | 1                                  | 100       | 42.1                        | 1                            |
|      | 기초  | 18             |           |           |               |           |                   | 7         | 7                                  | 38.9      |                             | 7                            |
| 제주   | 광역시 | 1              |           |           |               |           |                   | 1         | 1                                  | 100       | 100                         | 1                            |

### ③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유사조례 현황

공공디자인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조례로서 경관조례, 범죄예방디자인조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공공조형물 조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범죄예방조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공공조형물 조례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조례에 대한 모범이 없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관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경관조례의 경우, 모든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지자체에서도 다른 관련 조례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의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범죄예방디자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수가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보다 많은 것은 지자체들이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사업과 정책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관리)조례는 공공디자인 초기 가로 정비사업과 함께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정되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가 공공조형물 조례이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성은 가지지만 오랫동안 미술 또는 조각 분야에서 다루어 왔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공조형물은 예술작품으로만 접근하는 경우 작가의 개성이 강조되어, 심의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설치 후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 행정과 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디자인조례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 기초지자체 150개 곳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관련위원회는 22개 기초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례와 연동하여 관련 위원회 운영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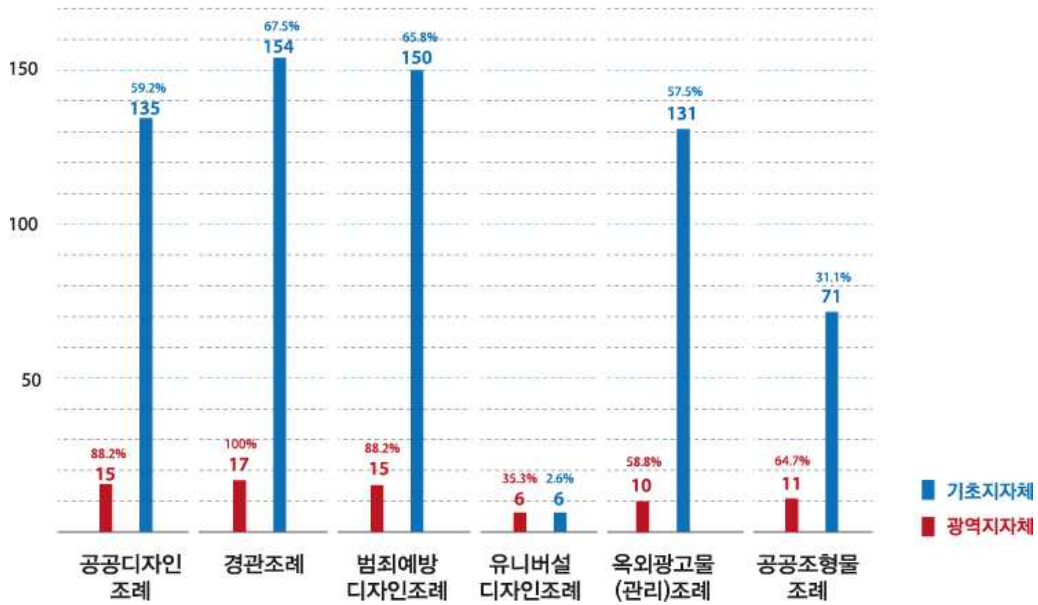


그림 II-23.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지자체 현황

표 II-4. 모법 유무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지자체 현황

| 구 분 | 공공디자인<br>조례 | 유관조례 1   |             | 유관조례 2 (모법 없음) |               |             |
|-----|-------------|----------|-------------|----------------|---------------|-------------|
|     |             | 경관조례     | 옥외광고물<br>조례 | 범죄예방<br>디자인조례  | 유니버설<br>디자인조례 | 공공조형물<br>조례 |
| 광 역 | 15(88%)     | 17(100%) | 10(59%)     | 15(88%)        | 6(35%)        | 11(65%)     |
| 기 초 | 135(59%)    | 154(68%) | 131(58%)    | 150(66%)       | 6(35%)        | 71(31%)     |
| 합 계 | 150(61%)    | 171(70%) | 141(58%)    | 165(67%)       | 12(5%)        | 82(33%)     |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표 II-5.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수 | 공공<br>디자인<br>조례 | 경관<br>조례 | 범죄<br>예방<br>디자인<br>조례 | 유니버<br>설<br>디자인<br>조례 | 옥외<br>광고물<br>조례 | 공공<br>조형물<br>조례 | 기타<br>관련<br>조례 | 기타관련조례<br>내용                            |
|------|----|------------|-----------------|----------|-----------------------|-----------------------|-----------------|-----------------|----------------|---|
| 서울   | 광역 | 1          | 1               | 1        | 1                     | 1                     | 1               | 1               | 2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br>공공미술의 설치 및<br>관리에 관한 조례 |
|      | 기초 | 25         | 21              | 1        | 20                    | 1                     | 25              | 13              | -              |   |
| 부산   | 광역 | 1          | 1               | 1        | 1                     | 1                     | 1               | 1               | -              |   |
|      | 기초 | 16         | 1               | 15       | 16                    | -                     | 16              | 3               | -              |   |
| 대구   | 광역 | 1          | 1               | 1        | 1                     | -                     | 1               | 1               | -              |   |
|      | 기초 | 8          | -               | -        | 5                     | -                     | 8               | 2               | -              |   |
| 인천   | 광역 | 1          | 1               | 1        | 1                     | -                     |                 | 1               | -              |   |
|      | 기초 | 10         | 2               | 6        | 7                     | -                     |                 | 3               | 1              | 건강친화디자인                                 |
| 광주   | 광역 | 1          | 1               | 1        | 1                     | -                     |                 | 1               | -              |   |
|      | 기초 | 5          | -               |          | 5                     | -                     |                 | 3               | -              |   |
| 대전   | 광역 | 1          | 1               | 1        | 1                     | 1                     | 1               | 1               | -              |   |
|      | 기초 | 5          | 5               | 5        | 5                     | 1                     | 5               | -               | -              |   |
| 울산   | 광역 | 1          | -               | 1        | 1                     | -                     | 1               | 1               | -              | -                                       |
|      | 기초 | 5          | 1               | 5        | 4                     | -                     | 5               | -               | -              | -                                       |
| 세종   | 광역 | 1          | -               | 1        | 1                     | -                     |                 | -               | -              |   |
| 경기   | 광역 | 1          | 1               | 1        | 1                     | 1                     |                 | 1               | 1              | 시설물인증                                   |
|      | 기초 | 31         | 31              | 31       | 16                    | 3                     |                 | 28              | 2              | 상징물관리<br>주민안전보호<br>환경디자인                |
| 강원   | 광역 | 1          | 1               | 1        | 1                     | -                     | 1               | -               | -              |   |
|      | 기초 | 18         | 13              | 18       | 18                    | -                     | 18              | 3               | -              |   |
| 충북   | 광역 | 1          | 1               | 1        | 1                     | -                     |                 | -               | -              |   |
|      | 기초 | 11         | 9               | 8        | 8                     | -                     |                 | 8               | -              |   |
| 충남   | 광역 | 1          | 1               | 1        | 1                     | -                     | 1               | -               | -              |   |
|      | 기초 | 15         | 15              | 14       | 14                    | 1                     | 15              | 3               | -              |   |
| 전북   | 광역 | 1          | 1               | 1        | 1                     | 1                     |                 | 1               | -              |   |
|      | 기초 | 14         | 5               | 6        | 6                     | -                     | 14              | 1               | -              |   |
| 전남   | 광역 | 1          | 1               | 1        | -                     | -                     | 1               | -               | -              |   |
|      | 기초 | 22         | 21              | 22       | 10                    | -                     | 2               | 2               | 2              | 도시재생활성화(해남)<br>도시계획조례(장성)               |
| 경북   | 광역 | 1          | 1               | 1        | 1                     | -                     | 1               | 1               | -              |   |
|      | 기초 | 23         | 4               | 16       | 13                    | -                     | 23              | 2               | -              |   |
| 경남   | 광역 | 1          | 1               | 1        | -                     | -                     |                 | -               | -              |   |
|      | 기초 | 18         | 7               | 7        | 3                     | -                     |                 | -               | 2              | 산업디자인육성<br>건강친화건축디자인                    |
| 제주   | 광역 | 1          | 1               | 1        | 1                     | 1                     | 1               | 1               |                |   |

|    |     |     |     |     |    |     |    |    |  |
|----|-----|-----|-----|-----|----|-----|----|----|--|
| 광역 | 17  | 15  | 17  | 15  | 6  | 10  | 11 | 3  |  |
| 기초 | 228 | 135 | 154 | 150 | 6  | 131 | 71 | 7  |  |
| 합계 | 245 | 150 | 171 | 165 | 12 | 141 | 82 | 10 |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조례제정권이 없음

\* 공공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제39조의7」에 근거

#### ④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2018년 4월 25일 최초로 구성되었다. 2018년 1월 기준 지자체별 지역위원회는 102곳(41.6%) 지자체에서 구성되어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남을 제외하고 12곳(70.6%)에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위원회 구성 비율이 낮아 90곳(39.5%)에 불과하며, 이중 54개(56%)개의 지자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공디자인 조례에 비해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전과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별로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56개 기초지자체 중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비율은 100%(55개)이다. 상대적으로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기초지자체는 70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만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7.1%)중이어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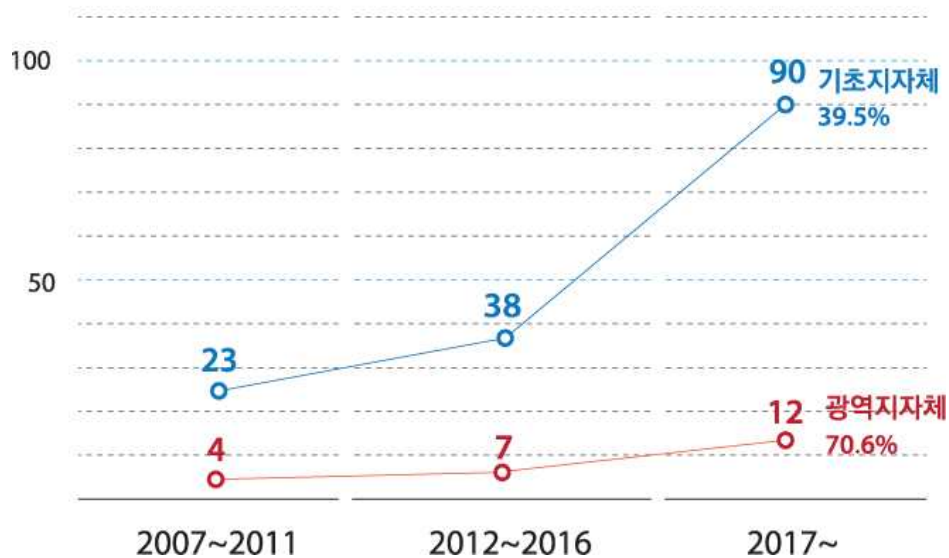


그림 II-24.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추이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표 II-6. 공공디자인위원회 현황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br>수 | 2007<br>-2011 | 2012<br>-2015 | 2016<br>이후<br>(진행포함) | 보유수 | 비율<br>(%) | 광역<br>기초<br>합산<br>비율 | 광역<br>구성<br>년도 |
|------|----|----------------|---------------|---------------|----------------------|-----|-----------|----------------------|----------------|
| 서울   | 광역 | 1              |               |               | 1                    | 1   | 100       | 100                  | 2018           |
|      | 기초 | 25             | 11            | 6             | 8                    | 25  | 100       |                      |                |
| 부산   | 광역 | 1              |               |               | 1                    | 1   | 100       | 5.9                  | 2017           |
|      | 기초 | 16             |               |               | 0                    | 0   | 0         |                      |                |
| 대구   | 광역 | 1              |               |               | 1                    | 1   | 100       | 11.1                 | 2018           |
|      | 기초 | 8              | -             |               |                      | 0   | 0         |                      |                |
| 인천   | 광역 | 1              |               | 1             |                      | 1   | 100       | 18.2                 | 2015           |
|      | 기초 | 10             |               |               | 1                    | 1   | 10        |                      |                |
| 광주   | 광역 | 1              | 1             |               |                      | 1   | 100       | 16.7                 | 2008           |
|      | 기초 | 5              |               |               |                      | 0   | 0         |                      |                |
| 대전   | 광역 | 1              |               |               | 1                    | 1   | 100       | 16.7                 | 2017           |
|      | 기초 | 5              | 1             |               |                      | 1   | 20        |                      |                |
| 울산   | 광역 | 1              | -             | -             | -                    | -   | 0         | 16                   |                |
|      | 기초 | 5              | -             | -             | 1                    | 1   | 20        |                      |                |
| 세종   | 광역 | 1              |               |               |                      | 0   | 0         | 0                    | -              |
| 경기   | 광역 | 1              | 1             |               |                      | 1   | 100       | 100                  | 2009           |
|      | 기초 | 31             | 6             | 3             | 22                   | 31  | 100       |                      |                |
| 강원   | 광역 | 1              |               |               |                      | 0   | 0         | 21.0                 | -              |
|      | 기초 | 18             | 1             |               | 3                    | 4   | 22.2      |                      |                |
| 충북   | 광역 | 1              |               | 1             |                      | 1   | 100       | 58.0                 | 2012           |
|      | 기초 | 11             | 1             | 3             | 2                    | 6   | 55        |                      |                |
| 충남   | 광역 | 1              | 1             |               |                      | 1   | 100       | 50.3                 | 2009           |
|      | 기초 | 15             | 1             | 1             | 5                    | 7   | 46.6      |                      |                |
| 전북   | 광역 | 1              |               |               |                      | 0   | 0         | 40.0                 | -              |
|      | 기초 | 14             | 1             | 2             | 3                    | 6   | 42.9      |                      |                |
| 전남   | 광역 | 1              | 1             |               |                      | 1   | 100       | 30.4                 | 2009           |
|      | 기초 | 22             | 1             |               | 5                    | 6   | 27.3      |                      |                |
| 경북   | 광역 | 1              |               | 1             |                      | 1   | 100       | 8.3                  | 2011           |
|      | 기초 | 23             |               |               | 1                    | 1   | 4.3       |                      |                |
| 경남   | 광역 | 1              |               |               |                      | 0   | 0         | 5.3                  | -              |
|      | 기초 | 18             |               |               | 1                    | 1   | 5.6       |                      |                |
| 제주   | 광역 | 1              |               |               | 1                    | 1   | 100       | 100                  | 2017           |

|    |     |    |    |    |     |      |  |  |
|----|-----|----|----|----|-----|------|--|--|
| 광역 | 17  | 4  | 3  | 5  | 12  | 70.6 |  |  |
| 기초 | 228 | 23 | 15 | 52 | 90  | 39.5 |  |  |
| 합계 | 245 | 27 | 18 | 57 | 102 | 41.6 |  |  |

\*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제외.

\* 2018년 운영 예정 포함

\*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명칭으로 제한 조사

### ⑤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 운영은 ‘경관법’에서 ‘경관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하고 있어 많은 수의 지자체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17개 모두가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기초지자체에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의 기초지자체에는 경관위원회가만 들어지지 않고, 광역단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강제화된 것이 기초자치제에서의 경관위원회 구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역할이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10만의 지자체의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표 II-7. 경관위원회 설치 현황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수 | 2004<br>-2007 | 2008<br>-2013 | 2014이후<br>(진행포함) | 보유수 | 비율<br>(%) | 광역기<br>조합산<br>비율 | 광역<br>구성<br>년도 |
|------|----|------------|---------------|---------------|------------------|-----|-----------|------------------|----------------|
| 서울   | 광역 | 1          |               |               | 1                | 1   | 100       | 88.5             | 2018           |
|      | 기초 | 25         | 4             | 8             | 10               | 22  | 88.0      |                  |                |
| 부산   | 광역 | 1          |               | 1             |                  | 1   | 100       | 94.1             | 2010           |
|      | 기초 | 16         |               |               | 15               | 15  | 93.8      |                  |                |
| 대구   | 광역 | 1          | 1             |               |                  | 1   | 100       | 44.4             | 2008           |
|      | 기초 | 8          |               |               | 3                | 3   | 37.5      |                  |                |
| 인천   | 광역 | 1          | 1             |               |                  | 1   | 100       | 36.4             | 2004           |
|      | 기초 | 10         | 1             |               | 2                | 3   | 30        |                  |                |
| 광주   | 광역 | 1          | 1             |               |                  | 1   | 100       | 16.7             | 2005           |
|      | 기초 | 5          |               |               |                  | 0   | 0         |                  |                |
| 대전   | 광역 | 1          |               | 1             |                  | 1   | 100       | 100              | 2008           |
|      | 기초 | 5          | 1             |               | 4                | 5   | 100       |                  |                |
| 울산   | 광역 | 1          |               | 1             |                  | 1   | 100       | 100              | 2009           |
|      | 기초 | 5          |               | 1             | 4                | 5   | 100       |                  |                |
| 세종   | 광역 | 1          |               |               | 1                | 1   | 100       | 100              | 2015           |
| 경기   | 광역 | 1          |               | 1             |                  | 1   | 100       | 100              | 2009           |
|      | 기초 | 31         | 1             | 19            | 11               | 31  | 100       |                  |                |
| 강원   | 광역 | 1          |               |               | 1                | 1   | 100       | 84.2             | 2016           |
|      | 기초 | 18         | 5             | 4             | 5                | 15  | 83.3      |                  |                |
| 충북   | 광역 | 1          |               |               | 1                | 1   | 100       | 50.0             | 2015           |
|      | 기초 | 11         |               | 3             | 2                | 5   | 45.5      |                  |                |
| 충남   | 광역 | 1          |               | 1             |                  | 1   | 100       | 81.3             | 2009           |
|      | 기초 | 15         |               | 1             | 11               | 12  | 80.0      |                  |                |
| 전북   | 광역 | 1          |               | 1             |                  | 1   | 100       | 66.7             | 2009           |
|      | 기초 | 14         |               | 4             | 5                | 9   | 64.3      |                  |                |
| 전남   | 광역 | 1          | 1             |               |                  | 1   | 100       | 87.0             | 2006           |
|      | 기초 | 22         | 3             | 5             | 11               | 19  | 86.4      |                  |                |
| 경북   | 광역 | 1          |               | 1             |                  | 1   | 100       | 58.3             | 2011           |
|      | 기초 | 23         |               | 8             | 5                | 13  | 56.5      |                  |                |
| 경남   | 광역 | 1          |               | 1             |                  | 1   | 100       | 36.8             | 2008           |
|      | 기초 | 18         |               | 4             | 2                | 6   | 33.3      |                  |                |
| 제주   | 광역 | 1          |               | 1             |                  | 1   | 100       | 100              | 2009           |

|    |     |    |    |    |     |      |  |  |
|----|-----|----|----|----|-----|------|--|--|
| 광역 | 17  | 4  | 9  | 4  | 17  | 100  |  |  |
| 기초 | 228 | 15 | 57 | 90 | 162 | 71.1 |  |  |
| 합계 | 245 | 19 | 66 | 94 | 179 | 73.1 |  |  |

\* 2018년 운영 예정 포함

⑤ (공공디자인 유사위원회)

공공디자인 유사 위원회로 ‘상징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등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구성, 개최 횟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운영이 많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관 조례, 유관 위원회들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문화체육관광부), 경관(국토교통부), 옥외광고물(행정안전부)등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와 위원회에 있어 모범이 없는 범죄예방, 유니버설, 공공조형물 등의 경우 공공디자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8. 모범 유무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의 지자체 현황

| 구 분 | 공공디자인 위원회 | 유관위원회 1  |           | 유관위원회 2 (모범 없음) |             |           |
|-----|-----------|----------|-----------|-----------------|-------------|-----------|
|     |           | 경관위원회    | 옥외광고물 위원회 |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 | 공공조형물 위원회 |
| 광 역 | 12(71%)   | 17(100%) | 11(65%)   | 3(18%)          | 1(6%)       | 8(47%)    |
| 기 초 | 90(40%)   | 162(71%) | 162(71%)  | 22(10%)         | 1(0.4%)     | 39(17%)   |
| 합 계 | 102(42%)  | 179(70%) | 173(71%)  | 25(10%)         | 2(0.8%)     | 47(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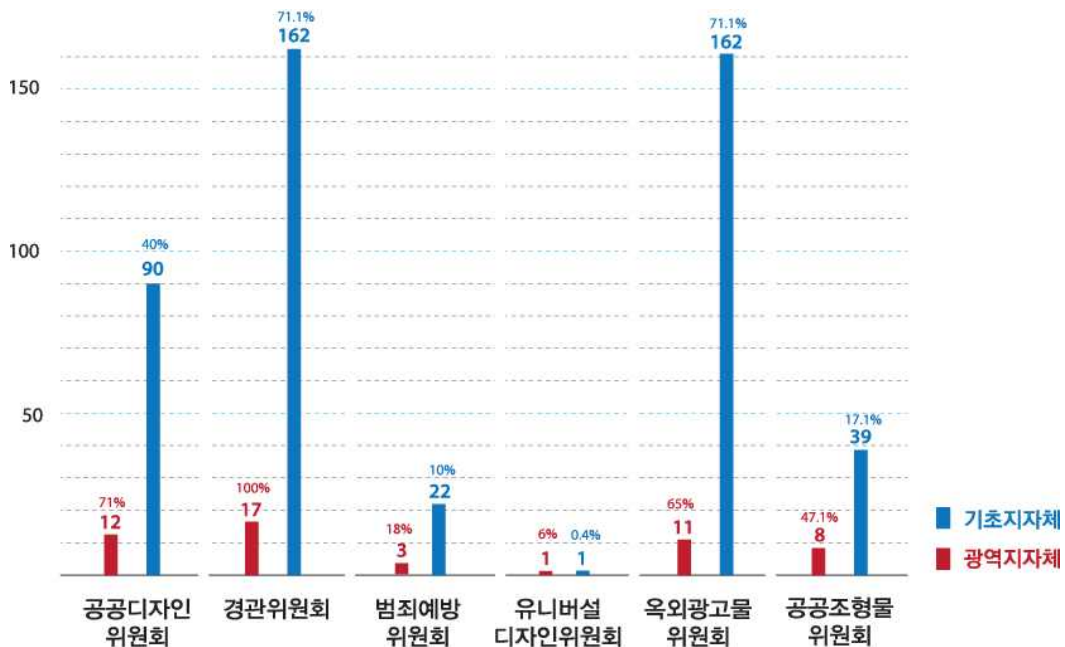


그림 II-25.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현황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표 II-9. 유사위원회 설치 현황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br>수 | 범죄<br>예방<br>디자인<br>위원회 | 유니버설<br>디자인<br>위원회 | 옥외광<br>물위<br>위원회 | 공공조형<br>물<br>위원회 | 기타<br>관련위<br>위원회 | 기타관련위원회<br>내용                         |
|------|----|----------------|------------------------|--------------------|------------------|------------------|------------------|---------------------------------------|
| 서울   | 광역 | 1              |                        |                    | 1                | 1                |                  |                                       |
|      | 기초 | 25             | 1                      |                    | 25               | 11               |                  |                                       |
| 부산   | 광역 | 1              | -                      | -                  | 1                | -                | -                |                                       |
|      | 기초 | 16             | -                      | -                  | 16               | -                | -                |                                       |
| 대구   | 광역 | 1              |                        |                    |                  | 1                |                  |                                       |
|      | 기초 | 8              | 2                      |                    | 8                | 1                |                  |                                       |
| 인천   | 광역 | 1              |                        |                    |                  |                  |                  |                                       |
|      | 기초 | 10             |                        |                    |                  |                  |                  |                                       |
| 광주   | 광역 | 1              | 1                      | -                  | 1                | 1                | -                | -                                     |
|      | 기초 | 5              |                        |                    |                  |                  |                  |                                       |
| 대전   | 광역 | 1              |                        |                    | 1                |                  |                  |                                       |
|      | 기초 | 5              |                        |                    | 5                |                  |                  |                                       |
| 울산   | 광역 | 1              | -                      | -                  | 1                | -                | -                | -                                     |
|      | 기초 | 5              | 1                      | -                  | 5                | -                | -                | -                                     |
| 세종   | 광역 | 1              |                        |                    |                  |                  |                  |                                       |
| 경기   | 광역 | 1              |                        |                    | 1                | 1                |                  |                                       |
|      | 기초 | 31             | 9                      | 1                  | 31               | 16               | 1                | 주민안전보호<br>환경디자인위원회                    |
| 강원   | 광역 | 1              | -                      | -                  | 1                | -                |                  |                                       |
|      | 기초 | 18             | -                      | -                  | 17               | -                |                  |                                       |
| 충북   | 광역 | 1              | 1                      | -                  | 1                | 1                |                  |                                       |
|      | 기초 | 11             | 5                      |                    | 9                | 6                | 1                | 공공디자인<br>민간전문단                        |
| 충남   | 광역 | 1              |                        |                    |                  |                  |                  |                                       |
|      | 기초 | 15             | 3                      |                    | 10               | 2                | 2                | *옥외광고금연음심의위원회<br>*옥외광고물 발전위원회         |
| 전북   | 광역 | 1              |                        |                    |                  |                  | 1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br>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br>대체 시행 |
|      | 기초 | 14             | 1                      |                    | 10               |                  |                  |                                       |
| 전남   | 광역 | 1              |                        |                    | 1                | 1                |                  |                                       |
|      | 기초 | 22             |                        |                    | 3                | 2                | 1                | 장성군계획위원회                              |
| 경북   | 광역 | 1              |                        |                    | 1                | 1                |                  |                                       |
|      | 기초 | 23             |                        |                    | 23               | 1                | 1                | 도시디자인위원회                              |
| 경남   | 광역 | 1              |                        |                    |                  |                  |                  |                                       |
|      | 기초 | 18             |                        |                    |                  |                  |                  |                                       |
| 제주   | 광역 | 1              | 1                      | 1                  | 1                | 1                |                  |                                       |

|    |     |    |   |     |    |   |  |
|----|-----|----|---|-----|----|---|--|
| 광역 | 17  | 3  | 1 | 11  | 8  | 1 |  |
| 기초 | 228 | 22 | 1 | 162 | 39 | 6 |  |
| 합계 | 245 | 25 | 2 | 173 | 47 | 7 |  |

\* 2018년 운영 예정 포함

※ 공공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⑥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국가 계획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2018년 4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반면 지역별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2018년 1월 기준 95곳(38.8%)에서 수립, 도입되었으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국가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방향과 내용에 있어 연계되지 않는 계획이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4개(23.5%) 지자체는 공공디자인 종합(기본)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 계획 최종본이 2011년 이전 수립인 광역은 5개(29.4%), 2012~2016년이 최종본인 경우는 6개(35.3%), 2017년 이후가 최종본인 경우는 2개(11.8%)로 미계획 및 노후화된 계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 등 지자체 공공디자인 종합(기본)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이다. 2007년 이전에 수립된 지역별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은 경관, 색채, 시설물 등 도시 환경과 시설물 중심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2년 이후에 수립된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명시된 공공디자인 사업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대상 측면에서도 공간, 시설, 콘텐츠,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 개발사업 성격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다수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단위사업 위주로 장기적 인프라 구축이나 연계사업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지자체장의 변경에 따라 이전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기초한 사업과 정책들이 연속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공공디자인 기반조성이나 정책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 인력의 전문성 양성 등은 광역지자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전반적으로 지역 중심에서 국가 전체적 진흥의 틀을 모색하고, 초기 경관개발의 보조적 수단 가치와는 다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그림 II-26.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의 추이

표 II-1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현황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br>수 | 2007<br>-201<br>1 | 2012<br>-2016 | 2017이후<br>(진행포함) | 보유수 | 비율<br>(%) | 광역기<br>소합비율 | 광역<br>최종<br>작성<br>년도 |
|------|----|----------------|-------------------|---------------|------------------|-----|-----------|-------------|----------------------|
| 서울   | 광역 | 1              |                   | 1             |                  | 1   | 100       | 100         | 2016                 |
|      | 기초 | 25             | 15                | 6             | 4                | 25  | 100       |             |                      |
| 부산   | 광역 | 1              | 1                 | 1             | -                | 1   | 100       | 23.5        | 2010                 |
|      | 기초 | 16             | 2                 | 1             |                  | 3   | 18.8      |             |                      |
| 대구   | 광역 | 1              |                   |               |                  | 0   | 0         | 0           | 없음                   |
|      | 기초 | 8              |                   |               |                  | 0   | 0         |             |                      |
| 인천   | 광역 | 1              |                   |               | 1                | 1   | 100       | 9.1         | 2017                 |
|      | 기초 | 10             |                   |               |                  | 0   | 0         |             |                      |
| 광주   | 광역 | 1              |                   | 1             |                  | 1   | 100       | 16.7        | 2015                 |
|      | 기초 | 5              |                   |               |                  | 0   | 0         |             |                      |
| 대전   | 광역 | 1              |                   |               | 1                | 1   | 100       | 16.7        | 2017                 |
|      | 기초 | 5              |                   |               |                  | 0   | 0         |             |                      |
| 울산   | 광역 | 1              | -                 | -             | -                | 0   | 0         | 33          | 없음                   |
|      | 기초 | 5              | -                 | 1             | 1                | 2   | 40        |             |                      |
| 세종   | 광역 | 1              |                   |               |                  | 0   | 0         | 0           | 없음                   |
| 경기   | 광역 | 1              | 1                 |               |                  | 1   | 100       | 68.8        | 2010                 |
|      | 기초 | 31             | 7                 | 9             | 5                | 21  | 67.7      |             |                      |
| 강원   | 광역 | 1              | 1                 |               |                  | 1   | 100       | 52.6        | 2010                 |
|      | 기초 | 18             | 7                 | 2             |                  | 9   | 50        |             |                      |
| 충북   | 광역 | 1              | 1                 |               |                  | 1   | 100       | 33.3        | 2009                 |
|      | 기초 | 11             | 1                 | 2             |                  | 3   | 27.3      |             |                      |
| 충남   | 광역 | 1              |                   | 1             |                  | 1   | 100       | 31.3        | 2015                 |
|      | 기초 | 15             |                   | 1             | 3                | 4   | 26.6      |             |                      |
| 전북   | 광역 | 1              | 1                 |               |                  | 1   | 100       | 26.7        | 2010                 |
|      | 기초 | 14             | 2                 | 1             |                  | 3   | 21.4      |             |                      |
| 전남   | 광역 | 1              |                   | 1             |                  | 1   | 100       | 39.1        | 2015                 |
|      | 기초 | 22             | 2                 | 5             | 1                | 8   | 36.4      |             |                      |
| 경북   | 광역 | 1              |                   |               |                  | 0   | 0         | 8.3         | 없음                   |
|      | 기초 | 23             |                   | 1             | 1                | 2   | 8.7       |             |                      |
| 경남   | 광역 | 1              |                   | 1             |                  | 1   | 100       | 21.1        | 2012                 |
|      | 기초 | 18             |                   | 2             |                  | 2   | 11.1      |             |                      |
| 제주   | 광역 | 1              |                   |               | 1                | 1   | 100       | 100         | 2017                 |

- \* 기본계획 범위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유사계획만 포함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디자인+지자체명 기본계획 (예: 디자인강원기본계획)
- \*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산정 제외
- \* 가이드라인만 있는 경우, 기본계획은 미산정
- \* 최종작성년도 기준
-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최초수립시점부터 법시행(2016.8.) 이전을 5년 단위로 전후 2단계 구분,  
2017년 이후~현재까지로 총 3단계 구분

### ⑦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121곳(49.4%)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광역은 16곳(94%), 기초는 105곳(46%)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전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은 95개(38.8%)인데 비해 가이드라인 수립은 121개(49.4%)로, 기본계획이 없더라도 현장의 효율적 행정과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심의, 자문 등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현장에서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역별 차별성을 중시하여 지역별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안)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있어 높은 비용과 관리의 문제로 실제 제작과 설치가 이루어진 공공시설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광역에서 수립된 가이드라인 16개 중 8개(50%)가 2011년 이전 수립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북, 울산 지역 등 경북 생활권역은 특히 기본계획 없이 가이드라인만을 수립한 경우가 많고, 가이드라인도 공공디자인의 일부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제한적 형태로 수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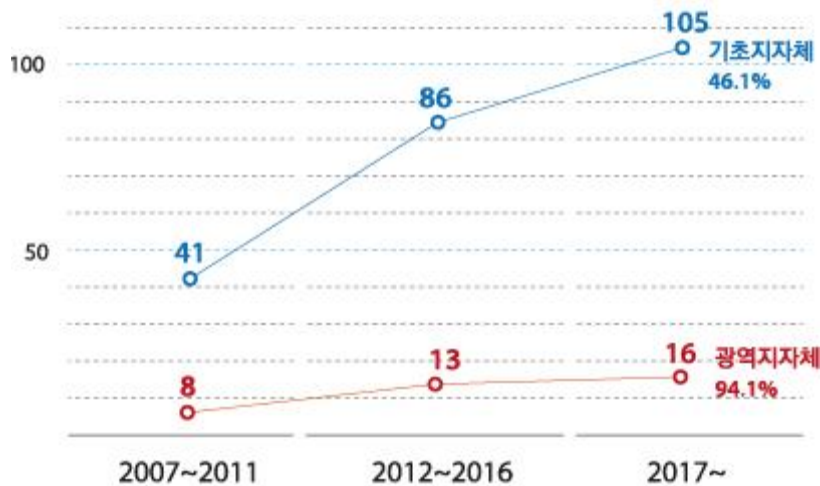


그림 II-27.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변화 추이

표 II-1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현황분석 (2017년 12월 기준)

| 지자체명 | 단위 | 대상<br>지자체<br>수 | 2007<br>-2011 | 2012<br>-2016 | 2017이후<br>(진행포함) | 보유<br>수 | 비율<br>(%) | 광역·기초<br>조합비율 | 광역·최종<br>작성년도 |
|------|----|----------------|---------------|---------------|------------------|---------|-----------|---------------|---------------|
| 서울   | 광역 | 1              |               | 1             |                  | 1       | 100       | 96.2          | 2016          |
|      | 기초 | 25             | 10            | 9             | 5                | 24      | 96        |               |               |
| 부산   | 광역 | 1              | 1             |               |                  | 1       | 100       | 17.6          | 2010          |
|      | 기초 | 16             | 1             | 1             |                  | 2       | 12.5      |               |               |
| 대구   | 광역 | 1              | 1             |               |                  | 1       | 100       | 11.1          | 2010          |
|      | 기초 | 8              | -             |               |                  | 0       | 0         |               |               |
| 인천   | 광역 | 1              |               |               | 1                | 1       | 100       | 18.2          | 2017          |
|      | 기초 | 10             |               |               | 1                | 1       | 10        |               |               |
| 광주   | 광역 | 1              |               | 1             |                  | 1       | 100       | 16.7          | 2015          |
|      | 기초 | 5              |               |               |                  | 0       | 0         |               |               |
| 대전   | 광역 | 1              |               |               | 1                | 1       | 100       | 16.7          | 2017          |
|      | 기초 | 5              |               |               |                  | 0       | 0         |               |               |
| 울산   | 광역 | 1              | 1             |               |                  | 1       | 100       | 66.7          | 2010          |
|      | 기초 | 5              | 1             | 2             |                  | 3       | 60        |               |               |
| 세종   | 광역 | 1              |               |               |                  | 0       | 0         | 0             | 없음            |
| 경기   | 광역 | 1              | 1             |               |                  | 1       | 100       | 84.4          | 2010          |
|      | 기초 | 31             | 12            | 10            | 4                | 26      | 83.9      |               |               |
| 강원   | 광역 | 1              | 1             |               |                  | 1       | 100       | 42.1          | 2010          |
|      | 기초 | 18             | 5             | 2             |                  | 7       | 38.9      |               |               |
| 충북   | 광역 | 1              | 1             |               |                  | 1       | 100       | 50            | 2009          |
|      | 기초 | 11             | 3             | 2             |                  | 5       | 45.5      |               |               |
| 충남   | 광역 | 1              |               | 1             |                  | 1       | 100       | 56.3          | 2015          |
|      | 기초 | 15             | 1             | 3             | 4                | 8       | 53.3      |               |               |
| 전북   | 광역 | 1              | 1             |               |                  | 1       | 100       | 26.7          | 2010          |
|      | 기초 | 14             | 2             | 1             |                  | 3       | 21.4      |               |               |
| 전남   | 광역 | 1              |               | 1             |                  | 1       | 100       | 43.5          | 2015          |
|      | 기초 | 22             | 4             | 4             | 1                | 9       | 40.1      |               |               |
| 경북   | 광역 | 1              | 1             |               |                  | 1       | 100       | 50            | 2009          |
|      | 기초 | 23             | 2             | 7             | 2                | 11      | 47.8      |               |               |
| 경남   | 광역 | 1              |               | 1             |                  | 1       | 100       | 36.8          | 2012          |
|      | 기초 | 18             |               | 4             | 2                | 6       | 33.3      |               |               |
| 제주   | 광역 | 1              |               |               | 1                | 1       | 100       | 100           | 2017          |

|    |  |            |           |           |           |            |             |  |  |
|----|--|------------|-----------|-----------|-----------|------------|-------------|--|--|
| 광역 |  | <b>17</b>  | <b>8</b>  | <b>5</b>  | <b>3</b>  | <b>16</b>  | <b>94.1</b> |  |  |
| 기초 |  | <b>228</b> | <b>41</b> | <b>45</b> | <b>19</b> | <b>105</b> | <b>46.0</b> |  |  |
| 총계 |  | <b>245</b> | <b>49</b> | <b>50</b> | <b>22</b> | <b>121</b> | <b>49.4</b> |  |  |

- \* 가이드라인 범위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유사 세부가이드라인 포함
- \* 여러 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경우,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기준 설정
- \* 경관법에 의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은 산정 제외
- \* 가이드라인만 있는 경우, 기본계획은 미산정
- \* 최종 작성년도 기준
-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최초 수립시점부터 법시행(2016.8.) 이전을 5년 단위로 전후 2단계 구분, 2017년 이후~현재까지로 총 3단계 구분



#### (4) 공공디자인 영역별 현황

##### ① 시범사업

부처별로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던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있다. 상기 사업은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공디자인의 성공 모델의 확산과 공공디자인 프로세스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부분도 있으나 예산의 한정으로 소수의 지자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공간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범죄예방, 교통안전 및 편의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발굴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②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이 행정에 도입된 이해 가장 먼저 사업이 이루어진 영역으로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별 디자인 표준화를 추구하였다. 공공디자인 개념이 적용되어 개별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다수의 가이드라인은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지침을 주로 다루고 있고, 시설물의 배치 원칙,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 경우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주변과의 조화나 시설물의 기능보다는 보여주기식 시설물을 과다 설치하였고,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도시 경관에 부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많은 수의 공공시설물은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것이나, 부처, 기관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기준과 배치 원칙 등이 달라 부처, 기관간 협력을 통한 시설물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다.

##### ③ 공공용품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에서 공공용품에 대한 사업들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공공용품이 조달청의 조달 물품으로 사전 등록되어야 하며, 대부분이 가격 우선으로 조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달청을 통한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의 공공용품을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좋은 디자인의 공공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에서 사용되는 청소·위생용품, 피복 안전장구 등의

품질이나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박물관, 공항, 터미널 등의 공공시설에는 조달 품목과 차별화된 공공용품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④ 시각이미지

정부부처·지자체 등의 기관이나 행사홍보를 위한 CI, 로고, 캐릭터 등의 개발에 집중 19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지역의 정체성 구축과 홍보 등을 위해 C.I.와 로고를 개발하여, 직원 명함, 입간판, 웹사이트, 지역특산품, 공공 시설물 표식 등에 널리 활용하여 왔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C.I.와 로고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슬로건, 캐릭터 등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1995년 지자체 시행과 함께 많은 지자체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CI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1990년 만들어진 다수의 지자체 C.I.들은 서울시 C.I.의 색채와 형태가 유사한 것이 많아 차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28)



그림 II-28. 서울시 CI와 유사한 디자인의 지자체 CI

2000년 이후 지역 브랜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정체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새로운 C.I.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산업적,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시각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서 디지털 환경에 변용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29)



그림 II-29. 지자체 CI 디자인 변경 사례

지자체 C.I.와 더불어 지역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지자체 및 산하기관들이 많은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캐릭터 디자인 개발 이후, 본래 취지와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캐릭터의 활용도가 낮아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지역 브랜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캐릭터와 슬로건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슬로건과 캐릭터 등이 만들어져, 지역 브랜드 일관성을 상실하고 관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브랜드와 캐릭터가 널리 알려지고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여,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브랜드,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영역에서도 캐릭터가 실제 홍보와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브랜드와 캐릭터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II-30. 지자체 캐릭터 사례

지역 캐릭터의 성공 사례로 일본 구마모토(熊本)의 캐릭터 구마몬을 꼽을 수 있다. 구마모토에 신간센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개발된 구마몬은 독특한 개성으로 바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구마몬이 구마모토를 넘어 일본 전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시민 행사, 관광 홍보, 교통 안내, 어린이 동반 놀이 등 구마모토 모든 행사에 전면으로 나서고 지역 곳곳에 홍보와 더불어 기념품 매장이 개설되면서 부터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구마몬은 구마모토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은 물론 구마모토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캐릭터가 되었다.



그림 II-31. 일본 구마모토의 캐릭터 구마몬

시각이미지와 더불어 지역의 안내 사인과 표지판도 중요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다. 좋은 디자인의 안내 사인과 표지판은 외부 방문객들에게 목적지를 쉽게 찾게 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 권역에서는 표준화된 안내체계를 적용해야 길찾기에 효과적이며, 다국어 표기를 하여 다양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경우 고령자 등의 이용자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라 APP 개발이 필요하다. 세금신고서, 전입신고서 등의 공공 서식의 디자인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서식 내용을 다루는 행정 효율 증진 등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민원인 중심의 작성하기 쉬운 서식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 ⑤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가이드라인에서도 주민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의 취지와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에 적합한 주민 참여 방식과 절차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 개선 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만



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아우를 수 없으며, 실제 주민의 참여가 소수이거나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민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⑥ 공공디자인 포럼과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디자인이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공공디자인 포럼이 개최되어 공공디자인의 현안을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시기별로 포럼이 다루는 내용도 변화하여 왔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후 2015년까지는 문화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6년 법제정 이후 다시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디자인 포럼은 지자체 공무원, 공공디자인 관련 업체들의 참여가 높은 행사로 향후 ‘공공디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주제 접근이 연차별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의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연도별 공공디자인 포럼 주제

- 2007 소통의 문화 - 우리들의 공간 - 디자인으로 걷다
- 2008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 공간의 재생과 친환경디자인
- 2009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
- 2010 다함께 살피고 살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 201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오해와 편견
- 2012 공공문화디자인 ‘공공디자인’에서 ‘문화디자인’으로
- 2013 디자인이 있는 행복한 삶
- 2014 디자인의 사회적 상상력
- 2015 공공디자인 - 공공을 위한 좋은 장소에 대하여
- 2016 공공디자인 제도와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부터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우수 공공디자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인식 확산과 진흥을 꾀하고 있다. 2015년까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상하였으나, 2016년 법시행 이후 ‘학술연구 부문’이 추가되어 공공디자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조명하기 시작함으로써 공공디자인 학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후원인상인 ‘빅터 마콜린(Victor

## II. 공공디자인의 이해 및 현황

Margolin) 상'시상을 시작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및 방향 제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상(빅터마골린상)은 후원인 명칭상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제시하는 연구논문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상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수상작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상제도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제도의 홍보와 더불어 수상작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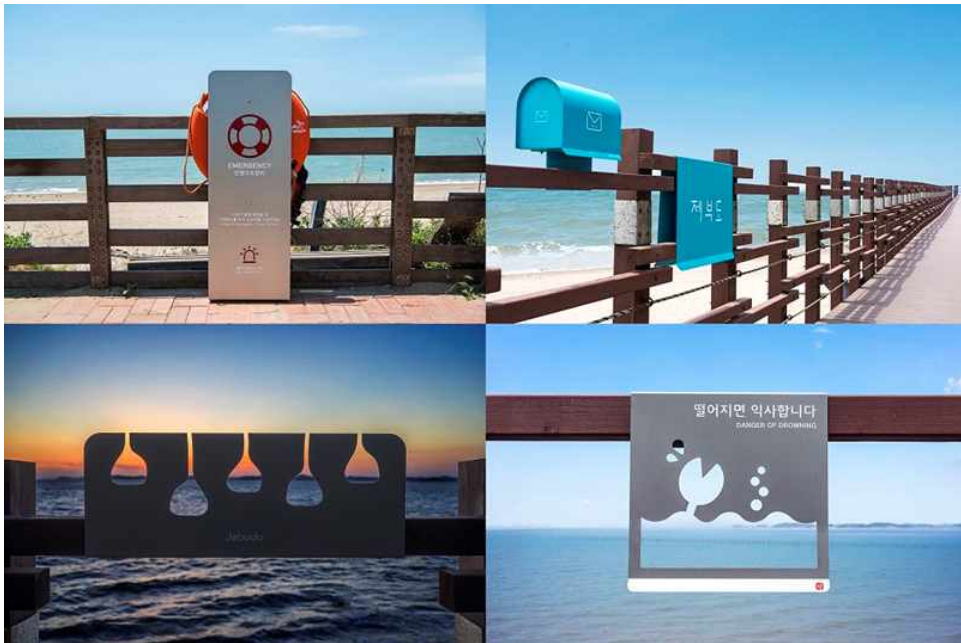


그림 II-32. 2017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프로젝트 부문 대상,  
〈제주도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 III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 Ⅲ.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 1. 기본 방향

#### (1)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① 개별에서 협력으로 구조의 변화

- 부처별, 지자체별로 추진되던 사업과 정책을 부처와 지역(지자체)이 협력·연계하는 형태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모형 개발
- 사업과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의 정착

##### ②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서비스 지원 체계로 대상 확대

-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매체 등의 물리적, 시각적 공공디자인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도구, 체계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공디자인의 대상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정책에 인문, 사회, 행정 등 타분야와 협력을 통한 문제 분석 및 대안 도출 프로세스 개발

##### ③ 관 주도에서 국민 주도로 주체의 변화

- 정부, 지자체, 기관 주도의 공공디자인에서 주민 소통 및 참여를 통한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실현
-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의 국민 참여 확대 및 절차의 체계화

##### ④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효과의 변화

- 일회성, 보여주기식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일상에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제시
- 공공디자인을 통한 교통안전, 범죄예방, 생활편의 등 공공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 ⑤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접근 변화

- 획일적, 기계적 개발방식에서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유지 발전시키는 접근 정착

- 지역 고유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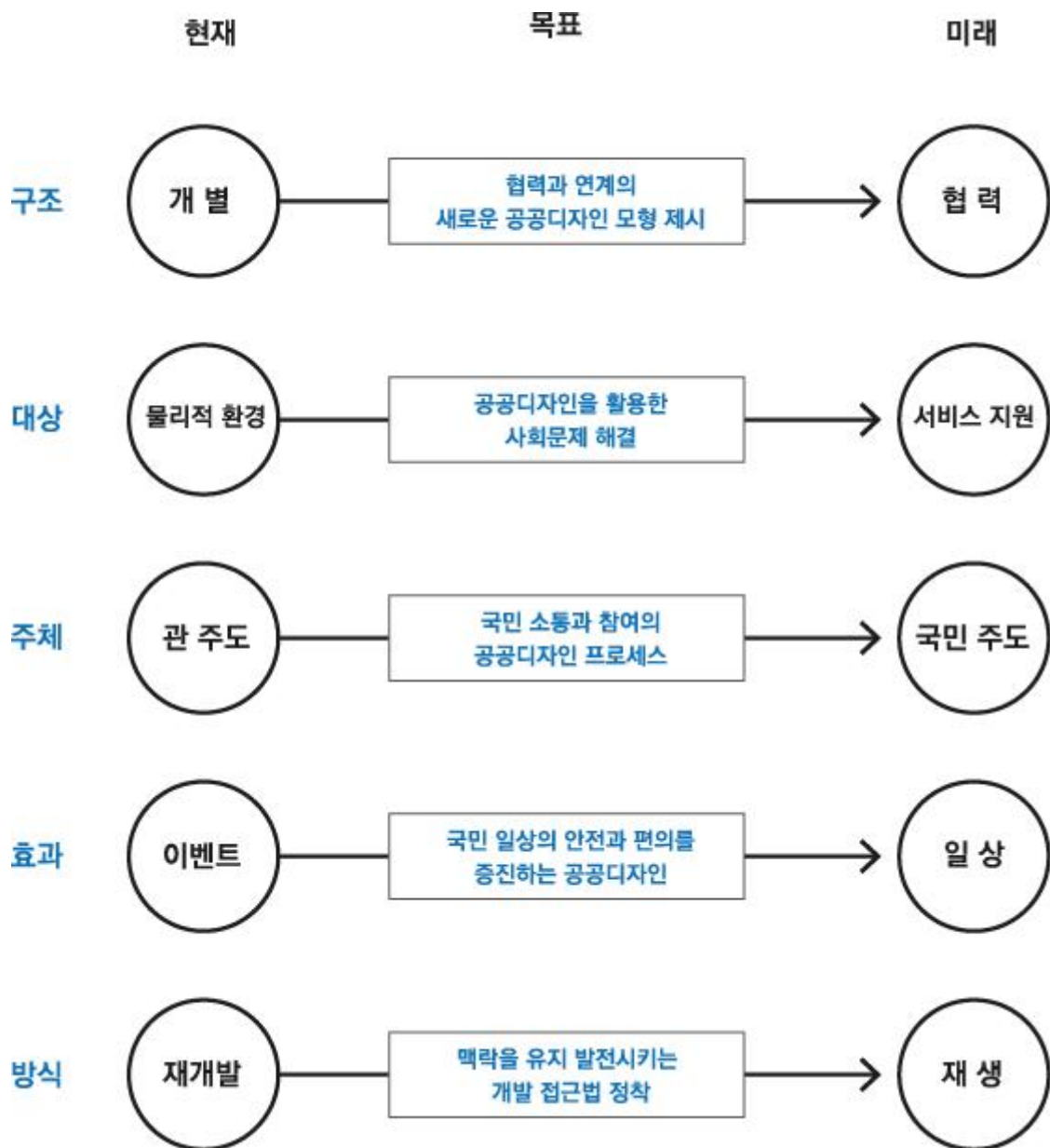


그림 III-1. 공공디자인의 방향

## (2) 공공디자인 진흥 단계별 구상

### ① 1단계(2018-2022)

-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공공디자인 방향 제시
-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지속적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② 2단계(2023-2027)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발전시켜 공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향 제시
- 통합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가치 재정립
-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기반의 확장

표 Ⅲ-1.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중점과제

| 구 분      |               | 중점 영역   | 확산 영역   |
|----------|---------------|---|---|
| 중점<br>과제 | 생활안전<br>디자인   | · 치안 안전(범죄 및 폭력예방 등)<br>· 교통 안전<br>· 재난 안전                  | · 보건/식품 안전<br>· 시설 안전<br>· 산업 안전<br>· 환경 안전 등 |
|          | 모두를 위한<br>디자인 | · 가로 환경<br>· 행정서비스<br>· 문화재 및 관광지<br>· 교통 시설<br>· 문화예술·체육시설 | · 교육 시설<br>· 의료 시설<br>· 유통 시설 등               |
|          | 생활편의<br>디자인   | · 교통 편의<br>· 관광 편의<br>· 의료 편의                               | · 마을 편의시설 이용 편의<br>· 주거 편의 등                  |
|          | 품격 제고<br>디자인  | · 마을(동네) 품격<br>· 도시 품격                                      | · 국가품격  |

## 2. 비전 및 추진 전략

### (1) 정책수요 변화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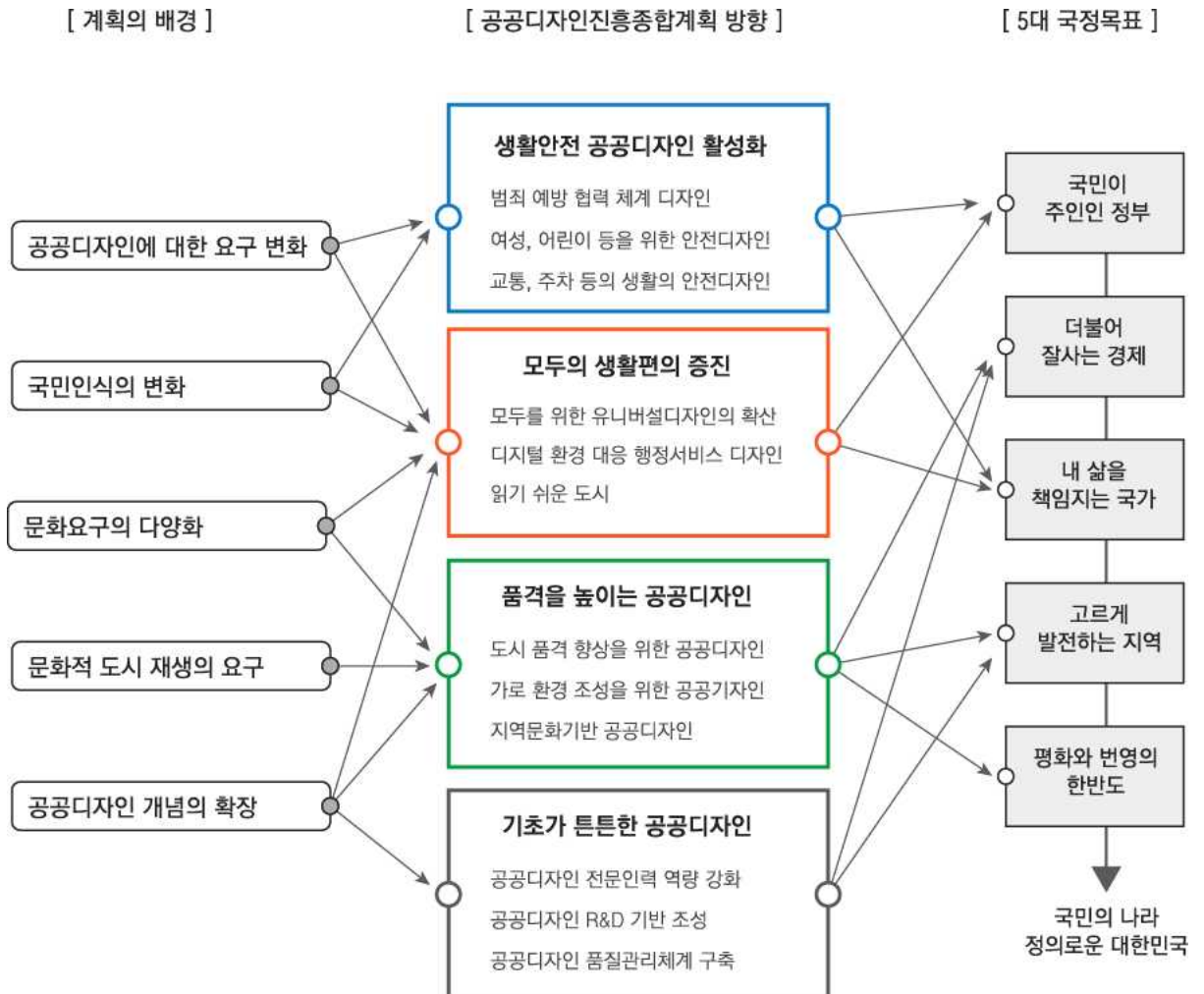


그림 III-2.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국정목표와의 관계

|       |  |  |
|-------|--|--|
| 비전    |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  |
| 목표    | <b>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b><br>—생활안전 마을 35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 구축— |  |
| 추진 전략 | (전략 1)<br>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과제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br>(과제 1-2) 교통안전 디자인<br>(과제 1-3) 재난대비 안전 디자인  |
|       | (전략 2)<br>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과제 2-1)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조성<br>(과제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br>(과제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
|       | (전략 3)<br>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 (과제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br>(과제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br>(과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br>(과제 3-4)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
|       | (전략 4)<br>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과제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br>(과제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br>(과제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br>(과제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br>(과제 4-5)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
|       | (전략 5)<br>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과제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확대<br>(과제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br>(과제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br>(과제 5-4)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

그림 Ⅲ-3,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5대 전략

# I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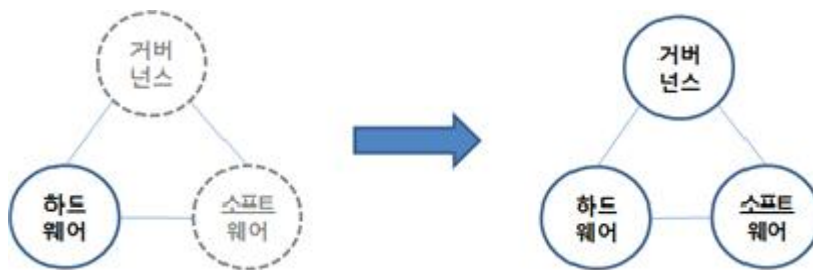
추진 과제

## IV. 추진과제

###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1) 배경 및 목적

- 범죄예방디자인(CPTED), 교통안전, 재난대비 등 생활 속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 디자인 사업이 주로 색채,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효과가 일시적임
- 공간과 시설물 재배치 등 하드웨어 디자인 외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거버넌스 설계), 방법활동경로 등 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대응체계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제기



#### (2) 전략의 중점 방향

- 일상 활동 속의 신체적 안전과 관련되는 치안 안전, 교통 안전, 재난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중점 영역으로 하며,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한다.
- 향후 보건식품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산업 안전, 환경 안전 영역으로 확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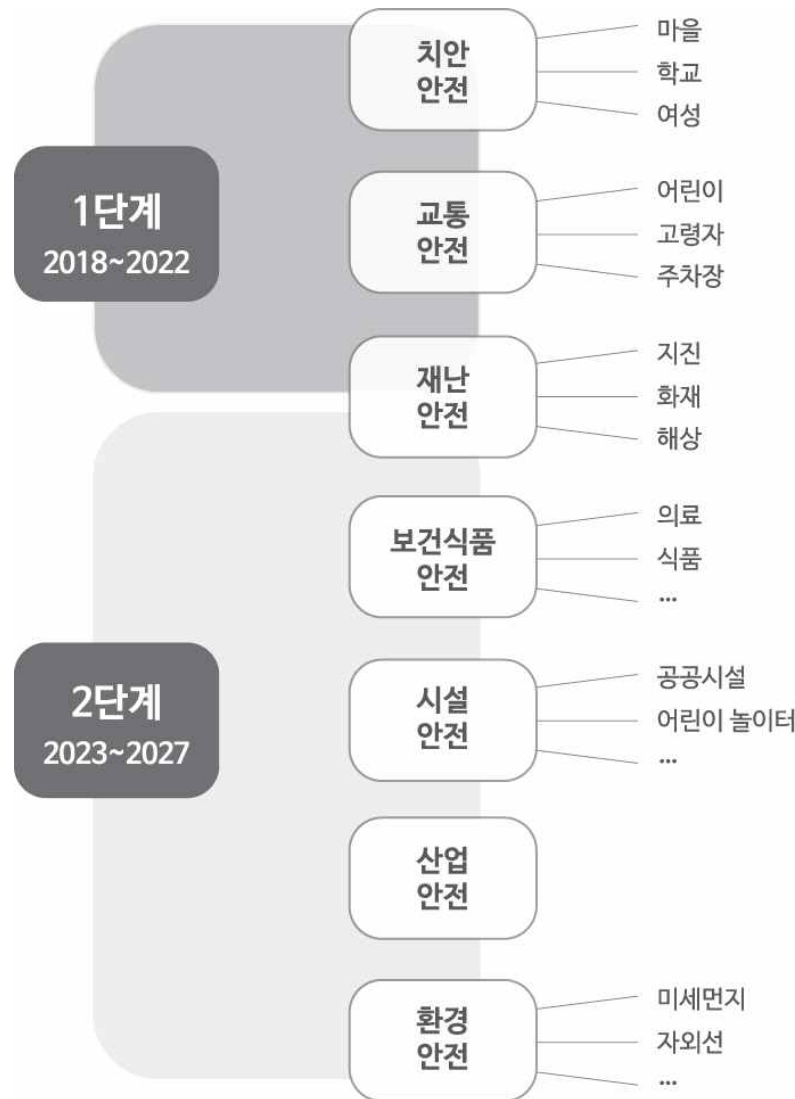


그림 VI-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 (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경찰청

#### ② 배경 및 필요성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 국토부)’ 등 건축물 범죄예방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장소는 길거리로 면(面)단위의 협력체계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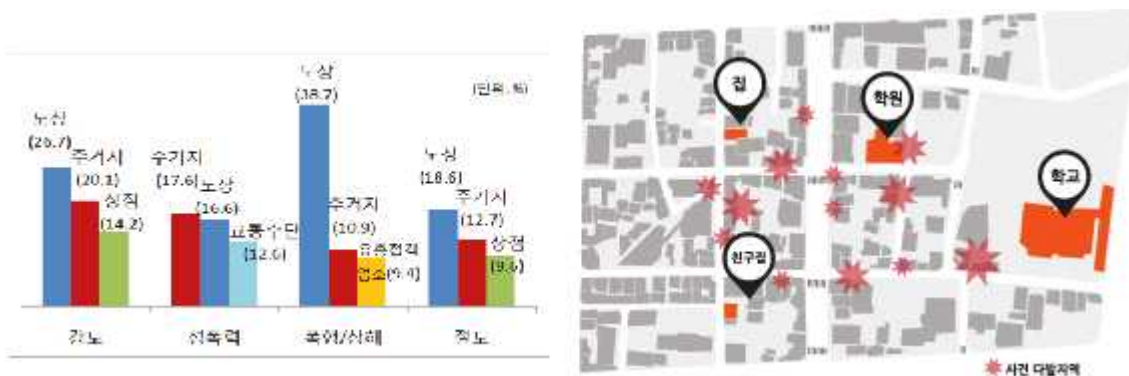


그림 VI-2. 주요범죄 발생 지점 분석, 경찰청 「2015 범죄분석」

- 그동안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색채·방범시설물 등 하드웨어 설치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순찰경로와의 연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등 인근 시설물 공동 활용 필요
- 점 단위, 시설단위 개선 중심에서 지역 면단위 예방체계 구축으로의 확장 필요
- 2016년 4월 기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에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등 관심 급증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대전시, 범죄예방디자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공원 및 인근 폐가를 활용 ‘어린이 공원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 지역 어른들이 어린이공원을 관찰할 수 있

- 는 커뮤니티 공간 및 방범시설 설치 ('16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 영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에 의해 셉테드가 제도화되어 도시계획 및 도시 설계 시 활용
- 범죤방건축기준, 2014년 5월 건축법 제3조의3) 신설, 이에 근거 2015년 「범죤방건축기준고시」 제정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원룸 고시텔 등 신축시 범죤방환경설계 지침을 적용, 그 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범죤방관련 일부 규정 존재

#### ④ 추진 내용

- 지자체, 지역경찰서, 지역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대응 협력체계 및 범죤 사각지대 최소화 디자인
- 밝은 색채와 방범시설물 디자인 외에 순찰 경로 및 주민방범활동 경로 재설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재배치, 주민들에 의한 자연감시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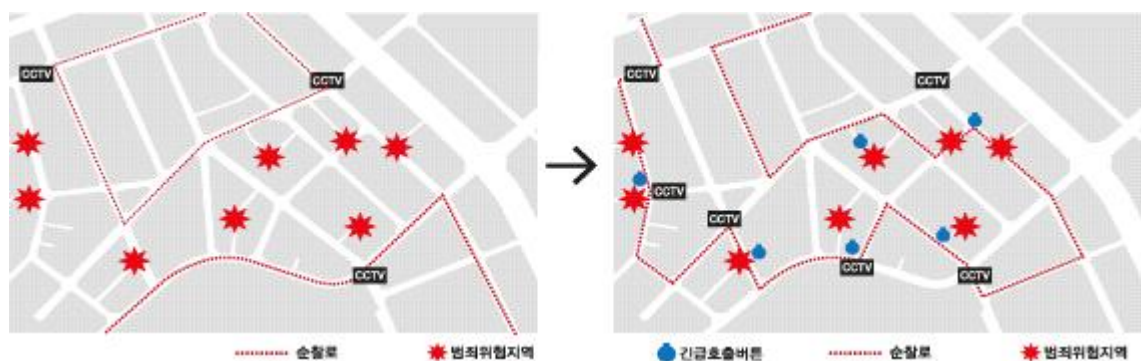


그림 IV-3,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적용 전(좌)과 후(우)

#### ⑤ 추진 방안

- 모델 개발(도심형, 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수정 → 지자체 보급

## (2)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청

### ② 배경 및 필요성

- 학교 폭력의 67.2%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폭력의 행태도 신체 폭행에서 인격적 고립, 모욕 등으로 유형 확대
- 폭력 발생 시간 : 쉬는시간 38%, 점심시간 17%, 수업시간 8%, 하교후 16%
- 폭력 발생 장소 : 교실안 28.9%, 복도 14.1%, 운동장 9.6%



그림 IV-4. 학교 폭력 발생 장소

- CCTV 설치나 학교보안관 충원 등 점 단위, 시설단위 개선이 아닌 학교 내, 외부면(面)단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대응 필요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 학교폭력의 67.2%가 학교 내에서 발생
- 노후화된 학교공간의 공간개선 시, 사각지대가 많은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두운 공간의 양성화, 버려진 유휴공간의 활용 등 동시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
- 일부 시범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평가결과 긍정적 효과가 크며, 정서 순화적 순기능 강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으로 학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학교보안관, 학교 밖 상가 등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적체계와 연결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서울시 성북구 OO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온마을 안심공원 조성



그림 IV-5. 서울 OO초등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사업 사례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12.
- 적용시설물 만족도 최대 78.2%, 언어폭력 가해경험률 3.8% 감소효과
- 집단따돌림, 폭행, 강제 심부름 등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 가해률 다소 감소
- 모든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긍정답변 50%이상 응답(최고 78.4%)

### ④ 추진 내용

- 학교 및 학생자치회, 지역경찰서, 지자체, 인근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최소화 디자인
- 학교보안관 구성, 학교 내·외부 순찰경로 재설계, 시설물(CCTV 등) 설치 재배치, 밝은 색채디자인을 연계하여 학교내외 사각지대 해소 및 어두운 공간 양성화
- 대응체계를 종합한 디자인 마스터플랜 및 시설물 구축과 운영, 평가

### ⑤ 추진 방안

- 학교 및 학생자치회, 지역경찰서, 지자체, 인근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대응 협력체계 및 학교폭력 최소화 디자인
- 모델 개발(초·중·고 학교별 1개소) → 시도교육청(학교)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6개소) → 평가·모델수정 → 학교 보급\*

#### \* 교육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사업과 연계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지원 확대 (교당 1천 → 2천만원)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17) 1,505개교 → ('18) 3,785개교

### (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신고를 위한 ‘안심벨(비상벨)’의 오작동 및 긴급상황 전달체계 미흡, 안심벨의 설치 위치 및 전달체계 디자인 필요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대상 강력사건 및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5년간 연평균 21.2% 증가)
- 여성혐오와 젠더 불평등 문화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
- 공중 화장실에서 연간 이틀에 한번 꼴로 여성 성범죄 발생, 공간적 대응책 필요하며, 실제 화장실 여성폭력 사고의 근본원인은 상당수가 남녀공용화장실이어서 개선방안 연구 필요

\*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각국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비율

- 한국 51.0%, 프랑스 34.3%, 영국 33.9%, 중국 30.1%, 호주 27.5%, 인도 26.3%, 미국 22.5%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08통계)

\* 2015년 서울 지하철역 성범죄 발생 건수: 1위 강남역(142건) 2위 신도림(131건) 3위 사당 111건(경찰청자료)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2018년 하반기부터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바닥면적 2천㎡ 이상의 대형건물에만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그림 IV-6. 화장실 안심벨(비상벨)

#### ④ 추진 내용

- 여성 공중화장실의 응급시 연락체계와 필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안심벨 디자인, 여성 화장실에서 안심벨이 울릴 경우 관리사무소(역 또는 건물 등), 인근 경찰서, 화장실 주변에 음성 전달 체계 디자인 (그림 IV-7 참조)
- 기존 공중화장실의 부분 리모델링을 통한 협소 공간 분리화장실 설치방안 및 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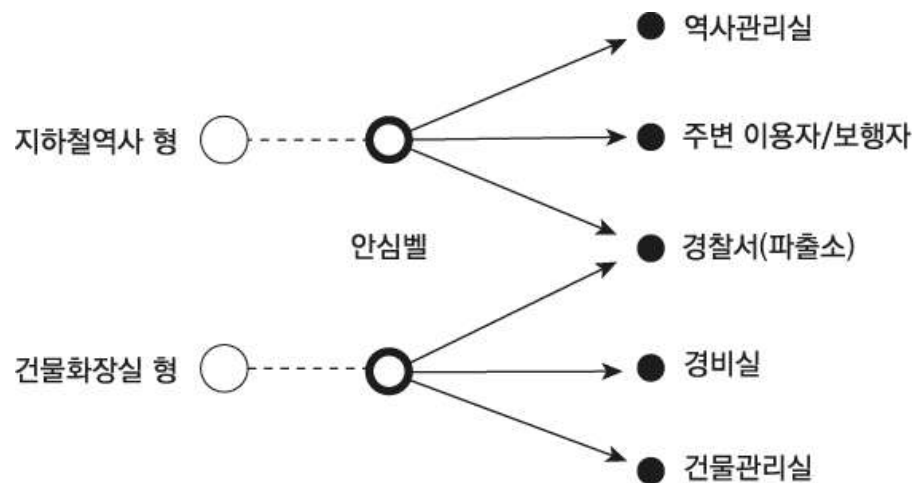


그림 IV-7. 화장실 안심벨 연락 체계도

#### ⑤ 추진 방안

- 모델 개발(지하철역·일반 건물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총4개소) → 평가·모델수정 → 지자체 보급\*

#### IV. 추진과제

- \* 여가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활동’사업과 연계
- : 범죄발생통계, 지자체 안전진단결과 등을 기초로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여성안심지역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폭력예방 활동 추진
- \* 지역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아동·여성 안전귀가 서비스, 안심비상벨 설치 등
- \* 2016년 시범운영(3개 지역)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전국 확대

## 1.2. 교통 안전 디자인

### (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교육청

#### ② 배경 및 필요성

-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등 다양한 경로로 통학로 관련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식적 성격이거나 차량속도 감속 등 제도운영 중심이어서 실제 사고예방 능력 부족
- 초등학교 통학로 중 상당수가 골목길을 통하여 학교 진입로에 접근하는 구조이며, 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의 불가와 복잡한 골목환경으로 인지성이 저하되어 사고 유발의 원인 제공
- 안전통학을 위해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우선 제거와 정온한 색채 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발생시간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수 2013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13년 427건, '14년 523건, '15년 541건 지속 증가)
- 2015년 사고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사상자는 103명,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97명(94.2%)

- 문체부, 초등학교 가는 길을 대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유도하였으나, 학교인근의 복잡한 시설물 및 불법주차차량 문제 등 종합적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색채 단순화 및 주변정리 중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바닥면과 각종 시설물들의 알록달록한 색채가 너무 많으면 운전자 인식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 초래(그림 IV-8)



#### IV. 추진과제



그림 IV-8. 복잡한 색채의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주목성과 인지성이 높은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옐로우 카펫’ 수행 결과, 운전자 중 76.4% 감속 주행, 14.6% 차량 일시정지 및 주변을 살피는 효과 (그림 IV-8)



그림 IV-9. 옐로우 카펫 사례

※ 서울시 OO구 행촌이음길 안전보행환경 구축 사례(서울시 디자인정책과)

- 통학로 주변 위험 시설에 어린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란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연속성과 주의 집중력 효과



그림 IV-10. 서울 OO구 행촌이음길 안전보행로 사업

#### ④ 추진 내용

- 학부모(교통지도), 지자체(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주차, 시설물 관리), 학교(보호구역 신청 및 학생 교육 등)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 디자인
- 어린이보호구역 색채 통합관리, 차량의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시설물 제거, 불법주차 차량 조치 등 종합 디자인

#### ⑤ 추진 방안

- 모델 개발(도심형·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평가·모델 수정→지자체 보급\*

#### \* 교육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 과 연계

- : 통학로 공사시 ‘안전대책협의회’의무화 및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단계적 확대

#### \* 행안부 ‘어린이 교통안전 중점 확보 사업’ 과 연계

- : 보도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81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1,300여개소)

## (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영 지하 주차장의 상당수가 어둡고, 차량에 가려진 사각지대 보유
- 차량 출구에 대한 안내 부족, 이용자의 보행통로와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주차장내 접촉사고 및 대인사고 유발
- 지상주차장의 경우 일률적인 녹색펜스 및 블라드 설치로 품격 저해
- 현행 주차장에 관한 법률의 조도기준은 차량 통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공간 이용자의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는 고려하지 않음
- 주차구획과 차로는 최소 10 lux, 주차장 출입구는 최소 300 lux이상, 사람이용 통로는 최소 50 lux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하차 공간 및 차량 후미공간이 매우 어두워 범죄 발생 공간의 원인
- 차이가 많이 나는 조도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공간이 더 어둡게 보이는 인간 시각특성을 강화시켜 범죄 위험성을 고조
- 공영주차장의 시설안내표지, 요금안내표지의 가독성 부족으로 민간 주차장과의 구분 및 이용편의성 저하
- 차량 출구안내 부족과 출구안내 사인체계의 미흡으로 주차장내 접촉 사고 및 대인사고 유발
- 이용자 통로를 표시한 공영주차장이 매우 적고, 이용자 출입구에 대한 안내체계 미흡으로 주차장 내에서 보행자의 위험 증가
- 긴급호출 및 소방시설에 대한 인지접근 등 안전대비 시설의 인지성 부족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대형쇼핑몰 등 민간주차장은 차도가 아닌 벽면에 빛을 비추어 동일 조명량으로도 더욱 밝아 보이는 디자인을 채택하는 등 상대적 우수



그림 IV-11. 주차장에 관한 법률 조도기준에 의한 일반적 조명 설치(좌) / 후면 벽면을 활용한 조명처리로 안전성 확보(우) 비교

※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사례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 시설공단 협업)

- 자동차가 아닌 이용자(보행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 민간주차장의 층별, 존별 색채구별 접근이 아닌, 보다 단순한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참여 ‘서비스디자인’ 연구를 통해 비상시 안전대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모색



그림 IV-12. 안전디자인을 적용한 OO시 공영주차장 사례

#### ④ 추진 내용

-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하차공간 및 차량 뒷공간 조도 디자인, 안내체계

#### IV. 추진과제

개선, 시설물 재배치,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등에 대한 디자인

- 공영주차장 유형별 시설, 안내체계 등 가이드라인 개발
-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배치, 이용자 동선, 안내체계, 보안 및 범죄예방, 조도 및 색채 등의 최소 기준 및 표준 디자인 개발

#### ⑤ 추진 방안

- 모델 개발(상업지구형·주거지구형/지상·지하형 각 1개소) →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수정 → 공공기관 보급



### 1.3. 재난 대비 안전디자인

#### (1)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 디자인 보급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소방방재청

##### ② 배경 및 필요성

- 경주, 포항 지진을 비롯한 지진 피해, 잦은 풍수해, 각종 대형 화재 등 재난 예방, 재난 상황 긴급대응, 재난 이후 임시대피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디자인 모색 필요
- 평상시 보관, 1회성 사용을 고려한 가격대비 성능의 최적화, 누구나 알기쉬운 사용법 등을 반영한 안전디자인 모색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재난대응 디자인 사례 비교 - 평상시 보관면적 최소화 및 조립, 사용성, 이용자들간의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등 고려 중요
- 동일본 대지진시 일본정부가 제공한 대피소, 종이관을 이용해 신속한 조립과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도 출입이 편리한 구조 디자인(그림 IV-13)



그림 IV-13. 동일본 대지진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대피소

#### IV. 추진과제



그림 IV-14. 포항 지진시 OO체육관(좌) 및 OO동 교회(우)에 설치된 개인용 텐트

- 가볍고 평상시 보관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능성을 담보하는 긴급재난 부상자 신속 이동용 보드와 조립형 임시거주지 등 미국의 안전디자인 사례 (MOMA 'safe'전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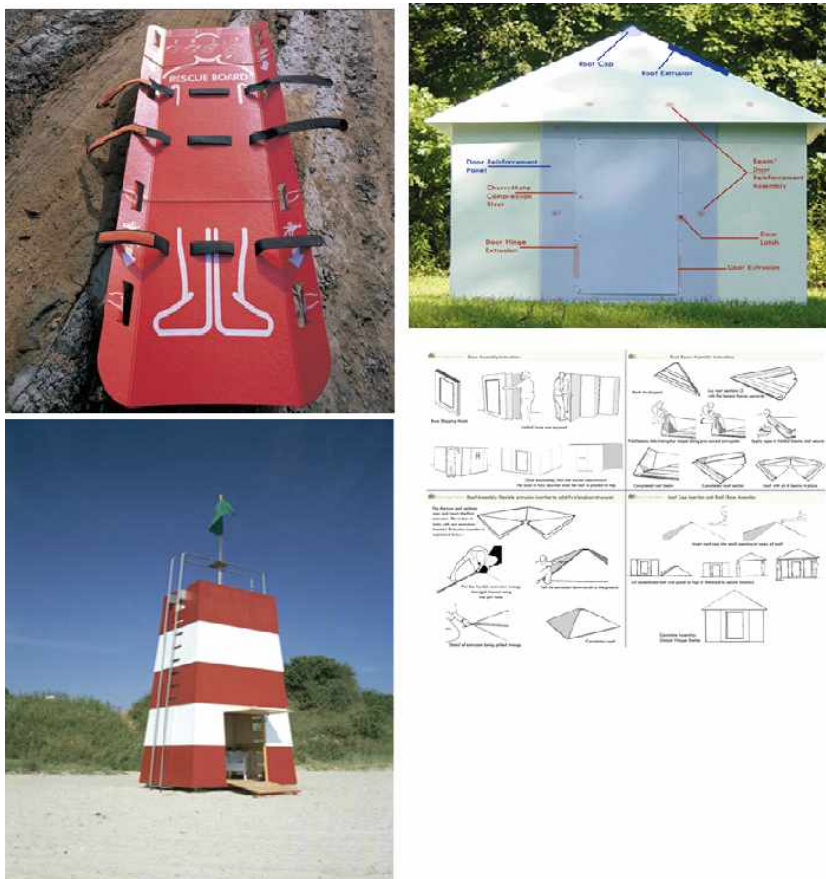


그림 IV-15. 미국의 안전디자인 사례

④ 추진내용

-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후 대응 및 활동을 위한 각종 안전관련 공간 및 공공용품의 디자인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 임시 대피처 공간구조 및 안내표지 디자인, 환자 대응 및 이동 보조 툴킷(Tool Kit), 산악구조 관련 용품 등
- 재난재해 전문가, 심리학, 인간공학, 사회학, 행정학,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전문가 협업 필요

⑤ 추진방안

- 디자인 공모 → 시범적용 및 평가 → 모델 수정→보급



##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1)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 향상, 생활편의성 증진,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가로 환경 및 시설 공간 조성
-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웹사이트 및 행정서식 등의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디자인 수요 증가
- 장애인, 고령자의 물리적 접근과 이용 편의를 넘어 인지적 불편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전을 지향
-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며 물리적 장애 제거와 함께 정보인식, 색채 등 인지적 장애 해결이 필요

### (2) 전략의 중점 방향

- 보도, 광장, 교통거점 등의 공공공간의 시설물과 환경 개선
- 이용자 고령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 개선
- 고령자, 장애인을 존중하는 문화여가 환경 개선
-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환경 및 서비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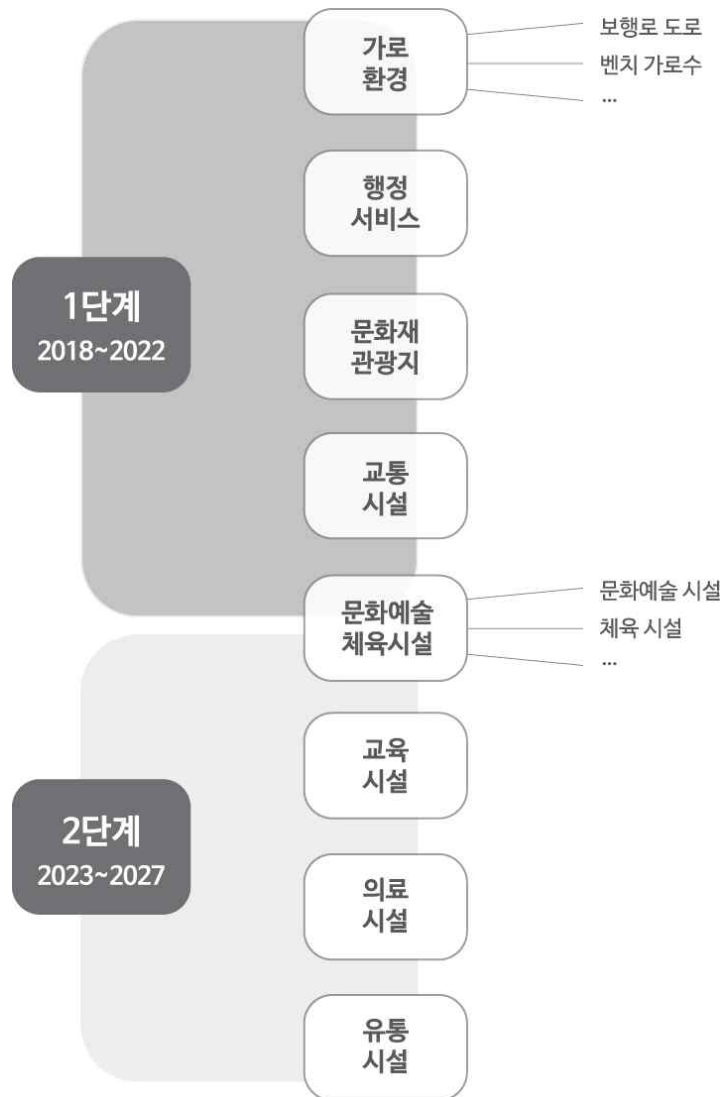


그림 IV-16.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 (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UD Street) 조성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주거지, 업무공간, 상업공간을 잇는 가로공간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나 동일 구획 내에서도 보행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등의 불균형 존재
- 가로환경에서의 단차 제거, 시설물 개선, 휴게공간 설치 등 물리적 개선 및 적합한 정보 제공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향상 필요
- 일본 등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 모두를 배려한 총체적 도시 개발전략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도입
- 국민의 생활환경 중 주거지와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을 잇는 매개공간은 가로공간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1차적 접근목표는 보행편의성과 안전성 향상과 유니버설디자인 가로의 활성화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수준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무장애환경조성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의 인증 수준에 머물러있어 보다 확장된 접근 필요
- 가로환경에서 보행자는 물리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의 두 가지 측면으로 공간을 경험하므로, 단차의 개선이나 시설물 개선과 같은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정보의 시각적 가독성 문제, 적절한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인지 문제와 색채 및 재질감 등의 감성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과거 미쓰비시 본사 계열 사무소의 밀집 지역이었던 도쿄 마루노우치 지역은 1980년대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지역이었으나 민관의 협력으로 재생 사업 실시
- 재생 사업의 핵심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무단차로 보행성 강화, 통합 길찾기 정보, 대형 벤치, 색채와 재질 통합
- 연속된 가로수 식재를 통한 그늘이 있는 가로와 1층 상업 공간 활성화



그림 IV-17. 도쿄 마루노우치 친환경 보행가로 조성

- 영국 런던 Exhibition Road 공유공간 조성사례
- 빅토리아앤앨버트(Victoria & Albert) 박물관이 있는 문화적 거리 앞 대로를 교통표지판이 전혀 없는 공유공간(Shared Space)으로 조성
- 곳곳에 나무그늘과 휴식시설을 배치하고 전체 단차가 없는 가로를 만들어 보행자 최우선의 걷기편한 거리를 조성
- 차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패턴과 마감으로 문화거리로서 차별화



그림 IV-18. 런던 Exhibition Road 보행자 최우선의 공유공간

#### IV. 추진과제

##### ④ 추진내용

-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이용자 등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 기존 가로의 블록별 무단차 연결,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시설과의 연계성 향상, 벤치·가로수 등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 적정 설치 등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종합디자인
- 고령자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보행가로 및 공공시설물 조성

#####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도심가로형·생활가로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수정 → 지자체 보급\*
- \* 국토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연계
- \* 보건복지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사업’ 연계
- 주택, 건축물, 보도 및 교통수단 등의 물리적 장애제거와 상호연계
- 목적지까지 건축물, 보도, 여객시설, 교통수단(저상버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 적용된 최적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규격화된 안내시스템 개발·보급

## (2)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

### ② 배경 및 필요성

- 신체적 장애, 환경적 장애 등 장애요소를 제거해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복지 확대를 위해 ‘모두를 위한 관광’추진 (2015년부터 추진 중)
-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고령자들의 보행 여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건강과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는 구릉이 많은 산지 지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접근 어려운 관광지가 많음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제주 OO봉 산책로 - 무장애 여행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 OO산 무장애 탐방로 - 평균경사도 8도 이내, 계단 및 턱 제거, 2.2Km구간 내 장애인 화장실 4개소 및 중간쉼터 조성, 마사토 및 데크 마감



그림 IV-19. 제주 OO봉 산책로(좌), OO산 무장애 탐방로(우)

### ④ 추진내용

- 고장애인·고령자·유모차 이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열린 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여행 추천 코스 확대

#### IV. 추진과제

-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휴게공간 등 물리적 환경 개선, 픽토그램, 시설종합 축지도 등 정보 접근성 개선 디자인
- 장기적으로 도시 내 열린관광지 연계를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단위의 ‘열린관광도시’ 조성

#### ⑤ 추진방안

- 지자체 공모(10개소 내외) → 관광지 조성 → 만족도 조사 및 차년도 사업에 반영

##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 (1)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시설부문에서 장애인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및 향유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
- 공공문화시설의 진입을 위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개별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장애인 안내 체계 구축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22)

- 1년간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조사 결과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나타남(2014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은 TV 시청을 주로 함(96%)

##### ※ 런던 자연사박물관 접근성 안내도(Map) 사례

- 쉬운 공간 인지: 박물관 전체 공간 구조와 전시 내용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안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픽토그램 활용
-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 인지 용이
- 이용자 시점의 방향 적용: 이용자 현 위치 중심의 공간 안내
- 층별 구조와 이동의 이해 용이: 공간투시를 이용하여 다층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함
- 시각적 완성도: 서체, 색채, 그래픽, 여백 등의 공간적 관계와 표현의 세련됨
- 시설물의 신뢰도와 정체성 제고: 좋은 안내 체계는 이용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하고, 원하는 목적지와 서비스를 찾는 시간과 불편을 감소시켜 만족도를 증대시킴
- 개별 사인의 디자인과 함께,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구조 특성에 맞는 배치가 더 중요



#### IV.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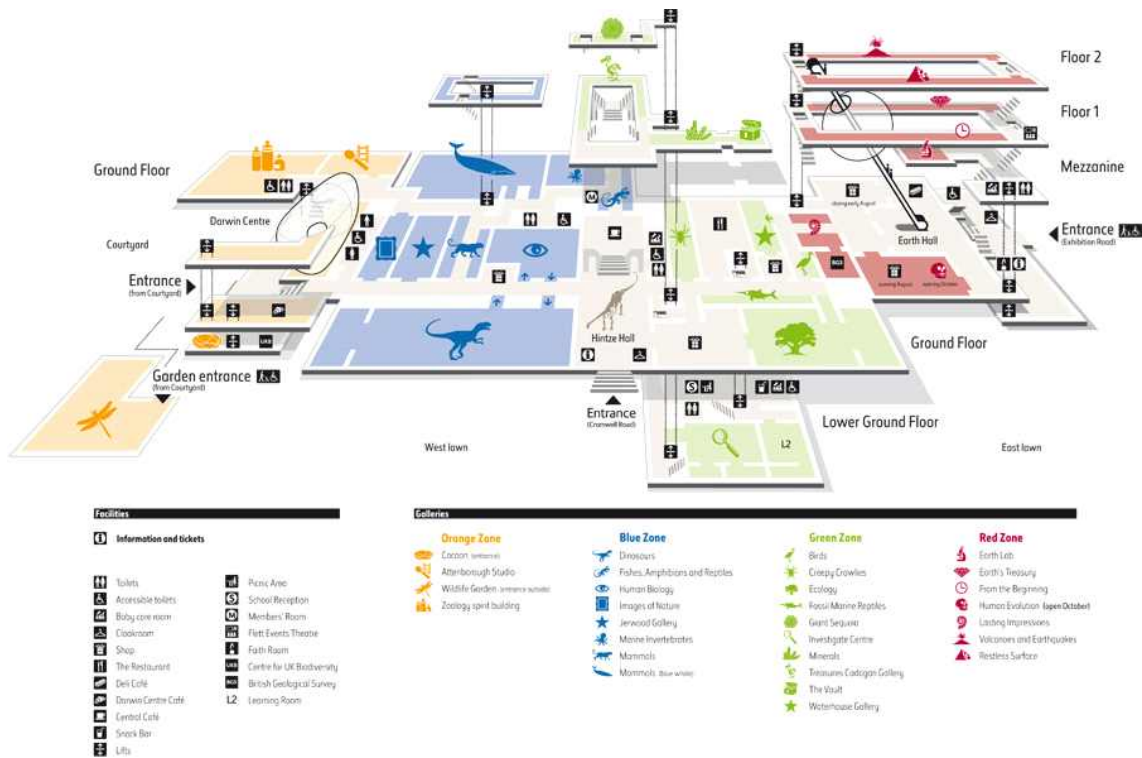


그림 IV-20. 런던 자연사박물관 층별 안내도

※ 런던뮤지움(London Museum) 층별 안내도(Floor Map)

- 층 변화와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기 쉽게 표기
- 장애인 이동을 돕는 승강기 등의 동선 차별화
- 장애인 접근로 표시 (3층)
- 이동자 편의를 돕는 공공시설물은 표준 픽토그램 사용 + 전시내용은 시각 픽토그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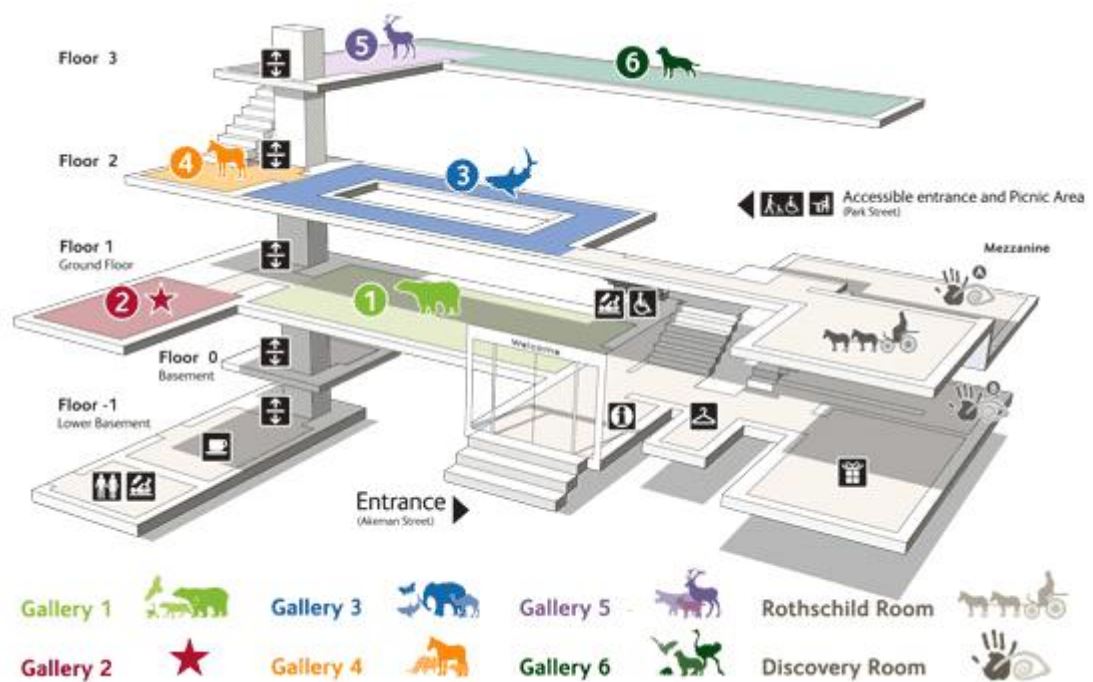


그림 IV-21. 런던 뮤지움의 층별 안내도

#### ④ 추진내용

- 문화재 유사시설·박물관·체육관 등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이동 동선 및 안내체계 개발 (웹과 APP 연계)
- 공공문화시설의 구조와 특성에 맞는 동선 연구 및 유형별 안내체계 디자인
- 공공문화시설의 시범 적용 후 장기적으로 민간 시설로의 확대 추진

####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3개소) → 시범적용(국공립시설)→ 평가·모델 수정 → 결과물 보급

\* 박물관 등 평가지표로 활용

## (2)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및 시범적용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환경에서 물리적 장애 제거와 함께 정보인식, 색채 등 인지적 장애 해결이 필요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
- 고령자의 치매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 (문재인대통령)
- 고령화 가속화로 치매환자 증가,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인당 2,030만원에 달함.
  -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13년 11조7,000억원에서 2050년 43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6년 생명보험협회 자료)
  - 국내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 2016년 9.99%에서 2050년 15.06%로 증가 전망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65세이상 고령자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5배



그림 IV-22. 65세 인구 증가 추이

※ 주민의 걷기장려를 위해 워킹 마일리지(walking mileage) 제도를 도입하는 일본 지자체 증가

- 일본 요코하마시: 건강증진을 통해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 의료비 절감 유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와 비참가자 비교한 결과, 60대의 경우 연간 4만3천엔(약 43만원), 70세 이상은 연간 9만7천엔(약 97만원)의 의료비 절감 가능 파악

※ 기억키움마을 만들기(기억둘레길, 기억마당, 기억갤러리), 영등포구 OO동, 2015



그림 IV-23. 영등포구 OO동 기억키움마을 만들기 사례

※ '치매예방디자인' 적용, OO아파트 어르신 인지장애 30% 감소

- OO아파트 단지 주거 40대 이상 주민 202명, 기타 주거민 주민 201명 조사, 효과성 분석: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주민 인지장애 30.8% 감소, 안전사고 24.4% 감소, 하루 2회 이상 외출빈도 39.9% 향상
- 인지건강의 해외연구결과에 따라 '감각키움마을' 솔루션 도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산책로 만들기 △오감자극 장소 조성하기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 조성하기 등

#### IV. 추진과제



그림 IV-24. 치매예방디자인을 적용한 OO아파트

#### ④ 추진내용

- 고령자의 행동제약, 시각약화 고려하고 치매예방과 인지 자극을 돕는 표식 및 색채 디자인 개선
-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사회복지관 전면 공지에 인지건강 활동광장 구축, 건물 내부 안전 색채 구현, 목적지까지 주요 이동 구간에 고령자 교통안전 보조사인 체계 구축 등
- 고령자의 행동제약, 시각약화(황변화현상 등)에 따른 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 ⑤ 추진방안

- 모델개발(도심형·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 시범적용 (4개소) → 평가 및 모델개선 → 지자체 보급

##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 (1) 고령자·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행정 웹사이트 디자인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작은 글씨로 초기화면에서 제공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의 경우 정보검색 및 내용 읽기가 어려움
- 정보화 시대의 웹과 앱(APP)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취약계층인 고령자, 시각장애인, 언어가 다른 방문자 등의 정보격차 심화
- 공공기관 웹 서비스의 대부분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구조와 디자인 변경 필요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사이트에 대한 품질인증마크 부여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증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 혼선 초래
- 디지털 이용환경이 웹에서 모바일로 이전되고 있으나, 현재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대부분 과거기준인 웹 표준을 따르고 있어 모바일 연동이 어려움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다양한 능력과 환경, 언어가 다른 방문자를 고려한 삶의 질 고양 측면의 지원 필요
- 국민의 행정서식 작성시 불필요한 내용 작성 및 적정하지 않는 크기 등으로 인해 불편 발생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영국 국민의료보험 및 국립병원 사이트 웹 접근성) 모든 브라우저 호환성 준수, W3C 웹 접근성 지침에 맞춘 웹사이트 구축, 음성서비스, 번역서비스 등 제공



#### IV.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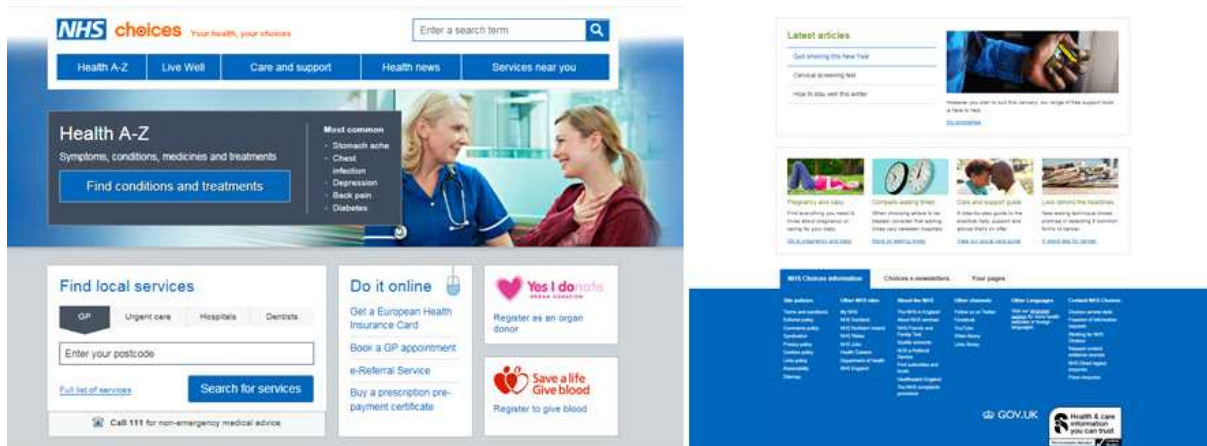


그림 IV-25. 영국 국민의료보험 및 국립병원 사이트 웹

#### ※ Nottingham City Hospital

-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다양한 방문자의 웹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언어가 다른 방문자 지원 우수, 음성서비스, 글자확대, 색상변경 기능 등 가능



그림 IV-26. Nottingham City Hospital 웹 페이지

#### ④ 추진내용

- 고령자 등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첫 화면의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 및 이용자 중심의 정보배치 디자인
- 글자크기 조정, 텍스트 전용페이지 제작, 음성서비스 등 고령자·장애인이 사용이 편리한 기능 강화 등 사용자경험디자인(UX) 구축

- 브라우저 호환성 및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표준 구성

⑤ 추진방안

- 기관별 개선 공통요소 추출 → ‘고령자 등을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 개선 지침’ 마련  
→ 보급



## (2)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보급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행정서식 작성시 불필요한 내용 작성 요청 및 내용 작성에 적정하지 않은 공란 크기 등으로 인해 불편 발생
- 손으로 기입하는 작성자의 편의성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정요원과의 행정 효율성 동시 충족하는 디자인 개발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행정서식과 등초본 교부 신청위임장

- 주소, 전화번호 기입란 등의 면적 협소로 인한 표기 어려움
- 칸의 폭과 높이, 줄 간격, 띄어쓰기 등 나쁜 가독성 및 서식의 색채, 정보구분, 정자체 써야하는 정보의 밀선 또는 흐린 칸 표기 등 개선 대안 반영 필요

[illegible]

그림 IV-27.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행정서식(좌)와 등초본 교부 신청위임장(우)

#### ④ 추진내용

- 2016년 행안부의 민원서식 개선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으나 개선요소가 많은 행정서식 추가 선정
-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 기입정보의 변동 허용 범위 등 확정, 디자인 개발

\* 행정안전부,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등록분야, 가족관계분야, 자동차 분야, 출입국 분야, 외국인 고용분야 등 5개 분야 60종 행정서식 개선

- 기입정보를 간소화하고 글자 수와 크기에 맞춘 칸 조정 등 쓰기 편한 양식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개선

### ⑤ 추진방안

- 서식별 개선 공통요소 추출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편람’의 ‘서식의 설계 기준’에 반영 → 시행

###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 (1) 배경 및 목적

-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을 통해서 누구나 불편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도시 안내체계 (wayfinding) 정비
-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교통 거점지, 관광지 등의 안내체계 개선
- 터미널, 광장 등 많이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생활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가치의 확산
-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 공간, 시설물 및 공공용품 디자인 개선

#### (2) 전략의 중점 방향

- 교통편의: 교통시설의 편리한 이용에서 목적지까지 길찾는 과정의 불편 해소
- 관광편의: 관광정보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 의료편의: 지역 의료의 거점이 되는 보건소의 환경과 서비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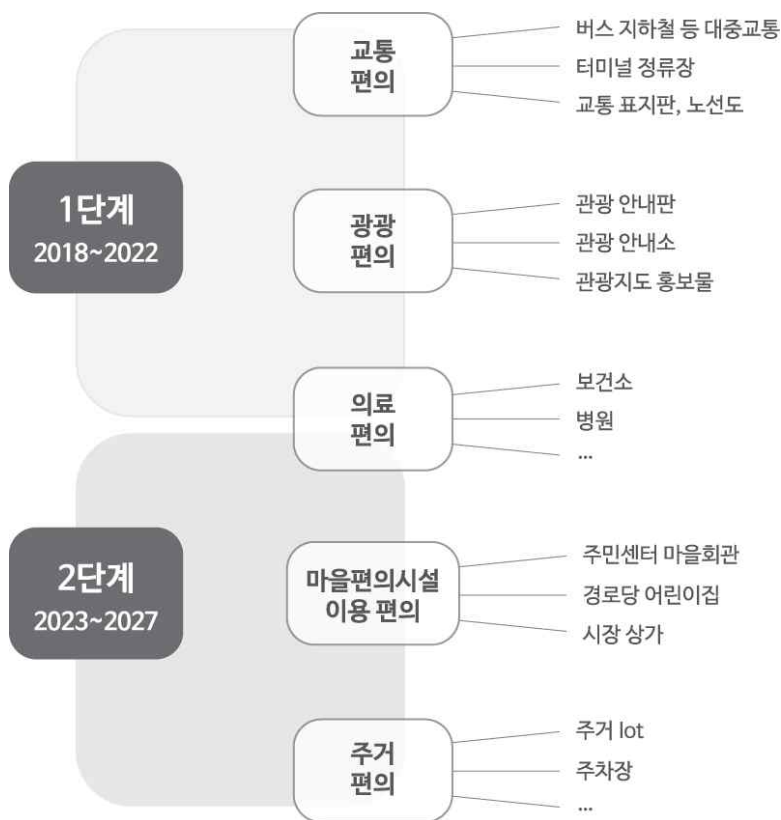


그림 IV-28.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 (1)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 조성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길찾기 안내체계 등 행정구역별로 통일, 일관되지 못한 표기와 시각 표현은 사람들의 보행 이동에 불편 초래
- 도시 이동의 약자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발
- ‘공급자 중심’,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보행자용 정보표시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화 필요
- 지하철 역사 등과 연계된 상업시설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유상표기 원칙으로 출구번호 체계 미부여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불편 초래
- 외국어 표기 안내사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어 표기의 오류가 많고 표기 방법과 표기 내용들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길찾기가 어렵고 불편 가중
- 유럽, 미국, 일본의 도시들과 비교하여, 길찾기를 위한 안내 정보와 사인의 설치 개수가 크게 부족
- 다국어 병기가 잘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자가 방향을 찾는 주요 지점(경로결정지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영국 브리스톨(Bristol)시가 잘 읽히는 도시(The Legible City)로 성공 후, 뉴욕, 런던, 베를린 등 주요 도시들이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사인체계 개선 사업 시행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런던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Legible London) 구축

- 2004년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 런던시장은 ‘2015년까지 걷기 좋은 런던을 만들자’ 선언 후 런던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표시체계 통합디자인

#### IV. 추진과제

- 런던 시내 32개의 각기 다른 길찾기용 안내표지시스템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관광객들을 이동정보를 지하철맵(Tube Map)에만 의존
- 보행로 탐색연구(Way Finding Study), 지도기반의 사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한 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가 늘어나 주변 지역 상가나 관련 시설 이용객 증가

#### ※ 사업의 효과

- 골목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걸으면서 수많은 상품을 만나고 상품 구매)
- 길거리 치안 및 안전성 향상(길거리에 주변 시선 효과)
- 도시길찾기라는 주제로 각 행정기관별로 중복 투자되던 예산 한곳으로 조정 통합
- 낙후된 지하철 시설의 부담 감소
- 방문자들의 목적지까지 보행 시간 단축, 런던 지명에 대한 인지도 증대



그림 IV-29. 런던의 길찾기 통합 안내체계

#### ※ 영국 브리스톨시의 잘 읽히는 도시 (Bristol, the Legible City) 구축

- 주요 명소의 입체적 표기
- 지도를 보는 사람과 지도 그림의 방향을 일치시켜 인지적 이해 향상
- 이용자들의 길찾기 행동 분석으로 통한 설치 지점 선정
- 런던, 뉴욕 등의 길찾기 정보 사업의 모형 제시



그림 IV-30. 영국 브리스톨시의 길찾기 안내체계

#### ④ 추진내용

-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보행정보 기반의 길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디자인
- 사용자 중심의 지도 표기, 걷기 소요 시간 표시(15분거리, 5분거리 등), 사용자들의 방향감각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 강조, 상세한 공공시설 정보, 횡단보도와 건물 출입구 등 보행 정보 상세 제공 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 중심 표기에서 벗어나 이용자 방문이 많은 민간시설까지 포괄하는 길찾기 체계 개발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고령자, 장애인들도 함께 편리한 안내체계 구축

#### ⑤ 추진방안

-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용(5개소) → 지자체보급



## (2) 도로표지판 디자인 개선·보급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운전자들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지명 중심의 도로표지판 출구체계를 번호중심으로 개선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국내는 지명 중심의 출구안내 체계로 색상과 정보배치 방식이 복잡해 운전자가 빠른 시간 안에 방향과 목적지 등 출구 정보의 이해가 어려움
- 스페인 고속도로의 내비게이션 출구안내는 지명이 아닌, 번호로 안내하여 출구 인지도 오류 감소



그림 IV-31. 한국의 고속도로 출구 사인(좌)과 스페인 고속도로 출구(우)

### ④ 추진내용

- 번호 중심의 출구안내 체계, 도로표지판 디자인(색채, 글자크기, 배치 등)으로 이용자  
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 디자인 개선
- 내비게이션 출구 음성안내 및 표출정보 개선 등과 연계

⑤ 추진방안

- 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국토부 규칙\* 등에 반영 → 보급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보급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운전자들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주요 진출입 구간의 색깔 유도선 인지도 제고 필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선 설치로 분기점은 22%, 나들목은 40%의 사고감소 효과

#### ③ 추진내용

- 고속도로 분기점 및 주요 진출입 구간에서 사용 중인 색깔유도선 보급
- 각도가 모호한 교차로, 터널, 지하차도 진입구간 등 안전한 진로설명과 지원이 필요한 도로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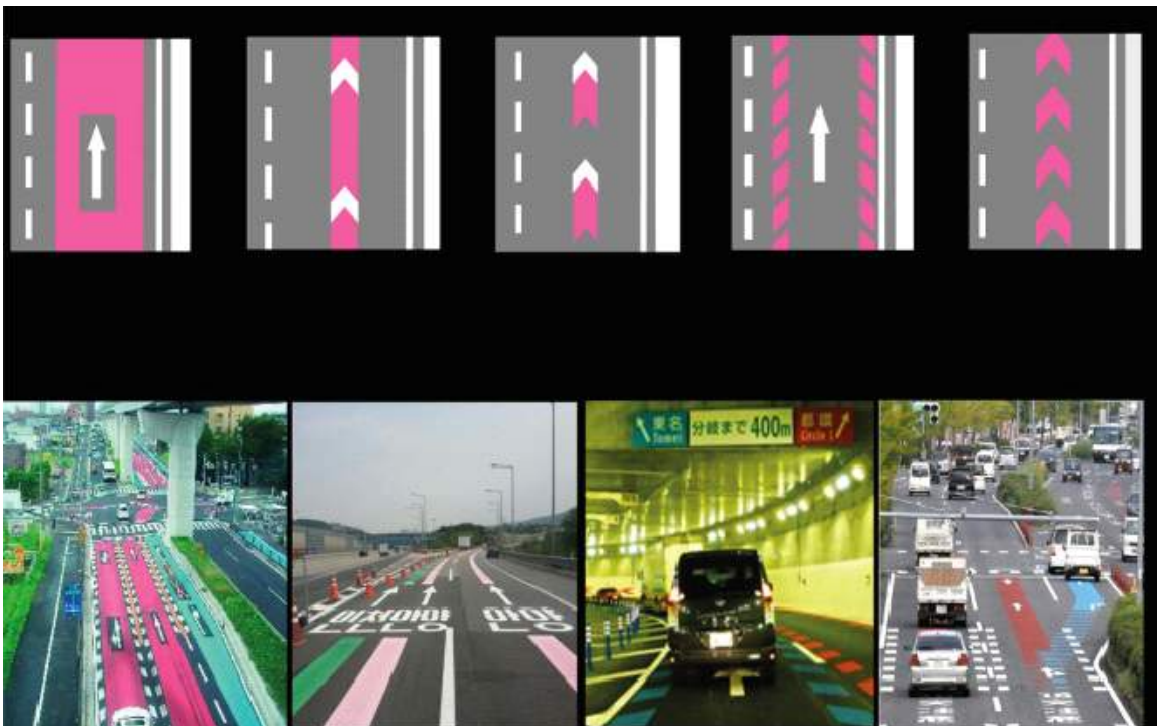


그림 IV-32. 복잡한 교차로 안전 유도를 위한 색깔 도로의 국내외 사례

※ 국토교통부 ‘도로안내체계 정비 사업’과 연계

- 복잡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색깔 유도선 설치를 활성화하고, 내비게이션 표지판과 연계

④ 추진방안

- 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국토부 매뉴얼\* 등에 반영 → 보급

\*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4) 광역철도/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철 및 철도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장 또는 신설되고 있으나, 노선도의 색 표기 등이 차별화 되지 않아 원하는 노선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노선별 색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지하철/철도 노선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 권역별로 개별화된 노선도로 국민의 지하철/철도 이용 불편
- 런던과 뉴욕의 경우, 철도와 지하철 노선도의 디자인이 차별화되어 런던과 뉴욕의 관광 상품이자 대표 브랜드로 기능
- 외국 방문객들의 다수가 도시 여행시 지하철역이나 철도역을 거점으로 여행, 지하철과 철도 노선도가 지역 관광안내도의 역할을 함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22개선)

- 1호선, 4호선, 인천 1호선, 경강선 등은 파랑색 계열 색상
- 3호선, 8호선, 신분당선, 의정부선 등은 붉은색 계열 색상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보기 어려움
- 인쇄의 상태 또는 시간 경과로 색채가 변하는 경우에는 구분 자체가 곤란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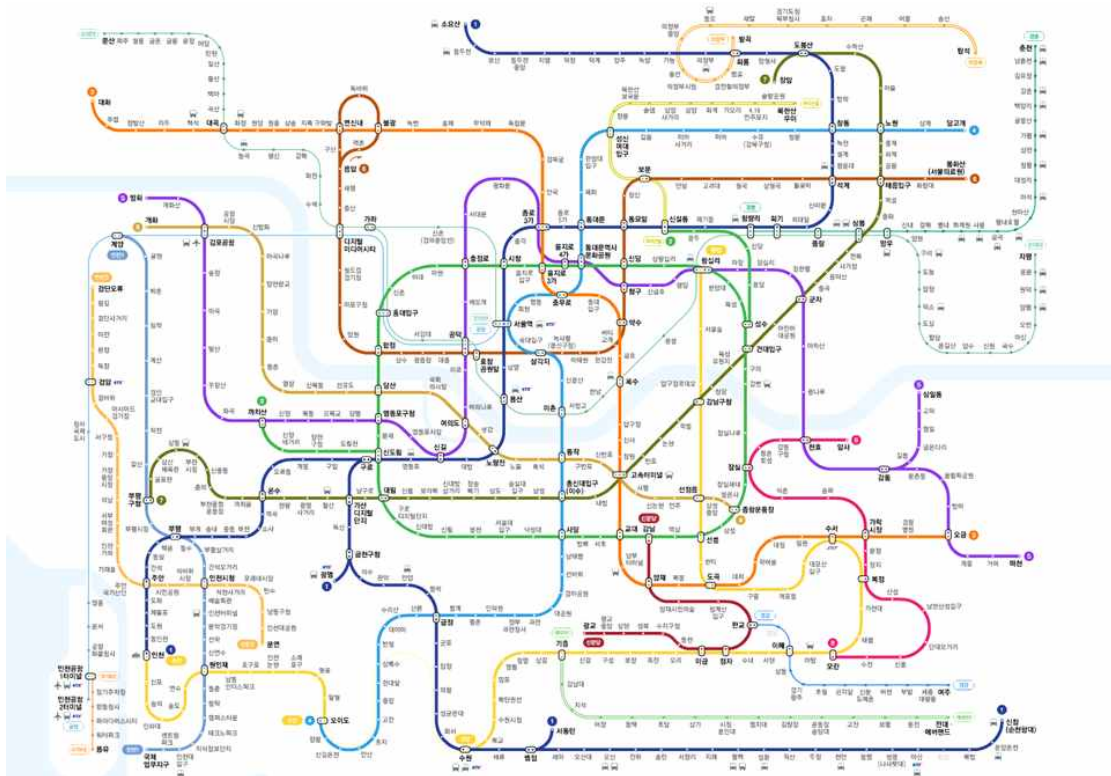


그림 IV-33. 수도권 지하철 및 도시철도 노선도

※ 일본 도쿄 광역 지하철 노선도와 철도(JR) 노선도

- 일본의 경우도 색채 표기는 미흡하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표기, 노선의 색채 외 기호를 추가하여 변별력을 높이려는 사항 등은 참고 가능

#### IV.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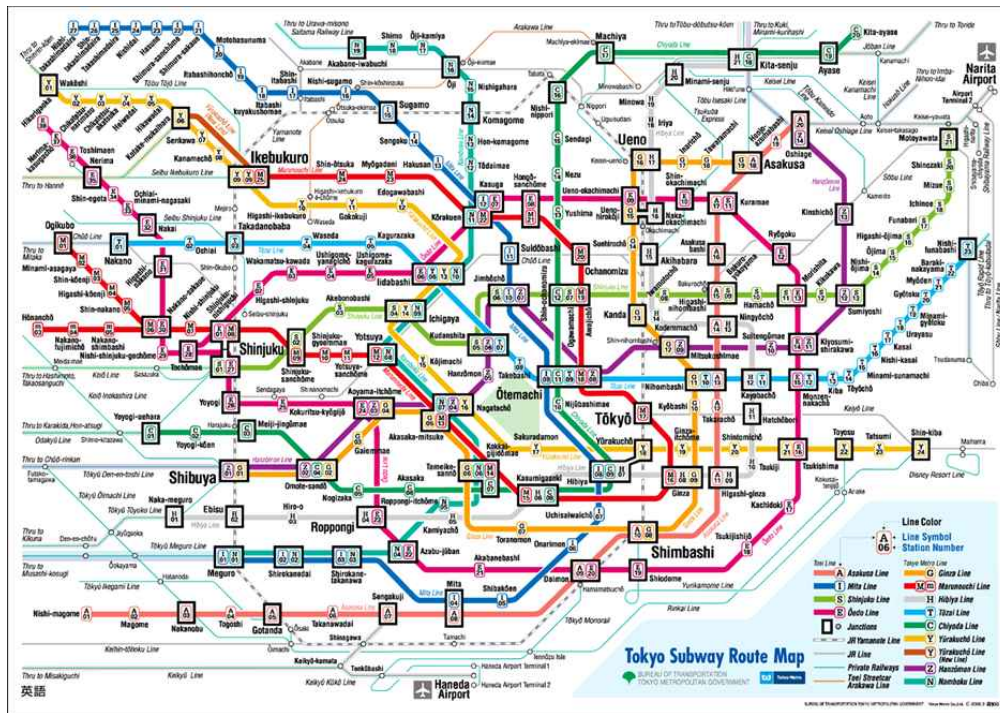


그림 IV-34. 일본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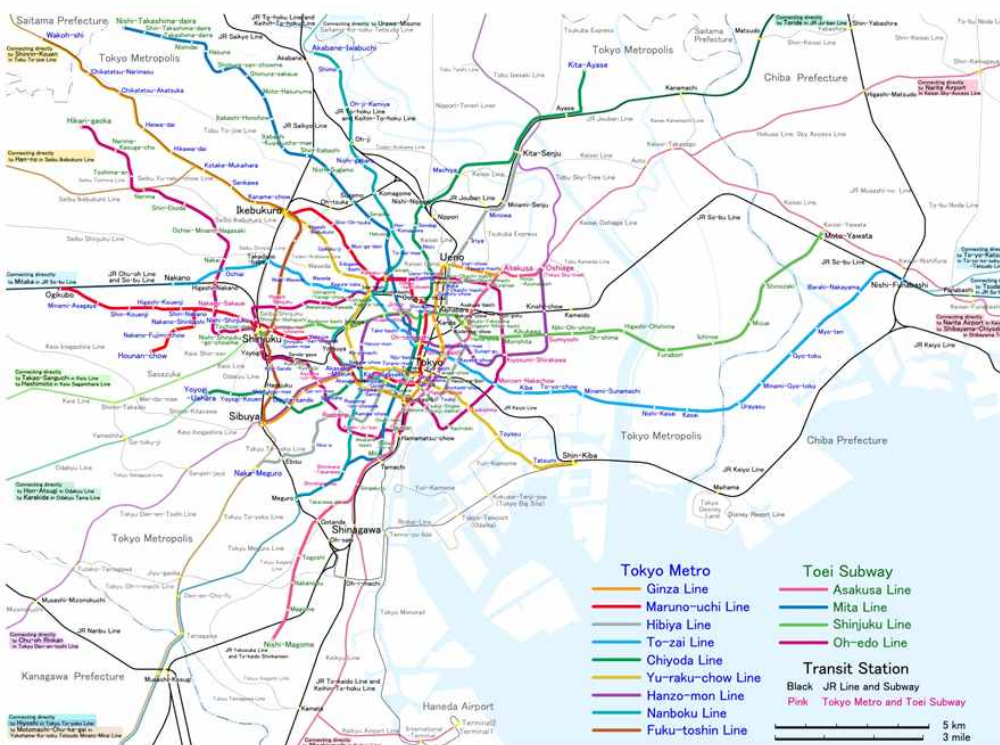


그림 IV-35. 일본 도쿄 교외 철도 노선도

④ 추진내용

- 도시 및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표준 철도 및 지하철 노선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선별 표준색과 기호개발, 다국어 표기 등
- 도시 및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표준 철도/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 각 노선별 표준색과 기호 개발 및 다국어 표기

⑤ 추진방안

- 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국토부 규칙\* 등에 반영 → 보급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5)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유사한 업종이 몰려 있는 전문상점가로의 경우 외부 방문객이 방문상점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 발생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OO시 가구거리 가로등 활용 번호판,

- 가구, 공구, 전기, 식당 등 건물형태가 유사하고 전문상가 또는 상점 밀집 지역에서 의 이용자 목적지 찾기 및 안내편의성 제공

※ OO시 오이도 상업가로 가로등 활용 번호판,

- 가로등에 번호체계를 도입하여 업소와 주차구역을 방문자들이 찾기 쉽도록 편의성 도모



그림 IV-36. OO시 가구거리 가로등 활용 번호판 (좌)  
OO시 오이도 상업가로 가로등 번호판(우) 사례

#### ④ 추진내용

- 상업가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로등이나 공개 공지 공통표식 등을 활용한 단위지역 인지용 안내 번호체계 부착
- 특정업종이 집합적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주정차 위치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 상업가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로등이나 공개공지 공통표식 등을 활용한 단위지역 인지용 안내 번호체계
- 주변안내도 및 안내표지판과의 표시 연계

#### ⑤ 추진방안

- 특정업종이 집합적으로 구성되고 주정차 위치 정보가 필요한 지역 대상 모델 개발(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2개소) → 평가 및 모델개선 → 지자체 보급



##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 (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상당수 지하보도의 출입구 번호체계가 미흡하여 일상적 이용 및 화재 등의 재난과 사고 발생시 장소 확인에 대한 소통이 곤란
- 도시의 수평적 확장으로 상업, 문화 공간 등의 대형 공공시설의 지하화 가속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OO시 지하상가 : 출입구 번호체계가 없고 지하상가에 대한 전체안내도가 없어, 화재 등 재난 신고시 위치 설명과 평상시 약속장소 설정 등 생활불편 발생
- \* OO시 OO역 국립중앙박물관: 연결통로, 출구번호 표시가 없고 기둥에만 임시표지로 박물관을 안내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 초래



그림 IV-37. 출입구 안내 및 번호가 없는 지하상가(좌), 임시 표시로 박물관을 안내하는 지하철 역사 안내 표지(우)

※ 지하상가 안전디자인 사례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 시설공단 협업)

-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출입번호 체계 및 안내정보 개선
- 지하철과 출구번호 혼용문제 발생에 따른 화재 발생시 구난문제 대응을 위한 번호

- 체계 재정비와 색채 조닝 개념을 동시에 적용, 안전성 강화
- 비상대피안내도, 소화기 및 소화설비 인지성 향상 디자인



그림 IV-38. 지하철 출구번호와 차별화된 출구 번호 체계를 사용한 지하상가 출구(좌), 진행 방향과 일치시킨 안내지도(우)



그림 IV-39. 구획별 색을 달리한 기둥(좌), 인지성을 높인 소화전 표시(중앙), 화재시 피난과 대피를 돕는 안전디자인(우)

#### IV. 추진과제

##### ④ 추진내용

- 지하보도, 지하상가에 출입구 번호체계 정비 및 종합 정보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 화재, 수해 등 비상시 연락을 위한 안내체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

##### ⑤ 추진방안

- 시민왕래의 빈도가 높으나 출입구 번호체계 및 안내정보가 미흡한 지역 대상 모델 개발(단독형·지하철 연계형 각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류소 연계 정보 부족, 정보 인지의 어려움 등 환승편의를 위한 정보체계 미흡
- 대중교통 환승사용 비율 82.5%(2015 교통안전공단 통계)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각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버스 등에 대한 안내정보는 있으나 플랫폼별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승차버스에 대한 종합 안내가 없어 원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어느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움



그림 IV-40.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좌)와 승차안내 정보(우)

※ 서울특별시 환승센터 현황 (총 4개소 '18년 1월)

| 구분   | 서울역앞 | 여의도 IFC몰 | 청량리역 | 구로디지털단지역 |
|------|------|----------|------|----------|
| 플랫폼수 | 7    | 4        | 5    | 2        |

#### IV. 추진과제

##### ④ 추진내용

- 플랫폼 별로 어떤 버스가 출발과 도착하는지에 대한 종합 안내도 설치, 안내표지 개선 등 명확한 정보체계 디자인
- 환승을 위한 지점에 배치, 사인제품의 안전성 및 재질, 조립방법 디자인 등 종합 안내시스템 디자인

#####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2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선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거점지의 안내사인이 정비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초래
- 터미널의 시간표가 산만하게 표기되어 있고 정보 표현의 통일성이 없어 정보 판독과 이해의 어려움
-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안내체계가 미흡함
- 버스터미널의 시설과 환경 노후화로 교통과 관광 거점으로서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결과 초래



그림 IV-41.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와 환승정보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시외버스터미널 개선 사업 사례 (문체부, 2017)

- 운행정보 등 안내표지와 매표소 개선



#### IV. 추진과제



그림 IV-42. OO시외버스 터미널의 매표소와 안내정보 개선 전(좌)과 후(우)

#### · 버스승차장과 외관개선



그림 IV-43. OO시외버스터미널의 승차장과 외관의 개선 전(좌)과 후(우)

#### ④ 추진내용

- 여객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공항 터미널 등 교통 거점지를 쉽게 찾아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체계 디자인
- 옥외간판, 안내표지, 운행정보 안내, 대형 터미널의 게이트별 도보 이동시간 등 정보 제공

#### ※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환승 안내정보체계 사례

- 대형 공항터미널 공간에서의 도보 이동예측 시간을 게이트 단위별로 제공하여 체감되는 이용자 중심형 정보 제공



그림 IV-44. 게이트까지의 이동시간을 표시한 창이공항 안내판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2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 (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보급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로 대형체육시설이 산재하여 있으나, 복잡한 내부구조, 부족하고 불분명한 안내체계로 불편 초래, 사고발생시 위치파악 곤란으로 신속 대응이 곤란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OO시 OO체육공원, 하나의 체육공원 내에서 건물마다 안내도가 모두 다르고 배치의 일관성도 없으며, 위치마다 내용도 다른 안내로 이용자 불편



그림 IV-45. 같은 시설이나 ‘몸과마음담음터’(좌)와 ‘체육관’(우) 같이 다른 이름의 표기



그림 IV-46. 전체 안내도에는 ‘빙상장’으로 표기, 건물에는 ‘아이스링크’로 부착

#### ④ 추진내용

-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진출입시 쉽게 읽을 수 있는 안내체계 개발 및 설치
- 건물명 및 내부공간 명칭 정비, 출입구별 번호체계 부여, 종합안내도 정비
- 긴급 대피로, 화장실 위치 등 주요편의시설 안내표지 적정 배치 디자인
- 픽토그램 및 그림 이미지 등 단순한 안내와 정보 최소화 디자인

\* 영국 Derby Riversided, 체육 시설 안내도

#### IV. 추진과제



그림 IV-47. 영국 Derby Riversided, 체육 시설 안내도

- 체육시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공간 인지를 용이하게 함
- 체육시설의 주변 지역도 함께 표시하여 접근과 방향인지를 쉽게 함

####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2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둘레길 등 유사 문화·관광 탐방로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나 구간이 길고 자연발생적인 경로와 혼재되어 길찾기 어려움
- 탐방로의 지역 및 자연 특성에 맞는 차별성 있는 디자인의 안내체계는 탐방객의 편의 증진,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지역 정체성 제고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미국 코네티컷주의 Mary Carter Greenway Trail의 탐방로 통합 안내 사인 체계
- 주요 지점의 현위치, 전체 탐방로, 주변 시설 안내 등을 하나의 포스트에 통합 설치
- 탐방로 주변 관광지와 명소 안내를 통한 관광객 유도



그림 IV-48. 미국 Mary Carter Greenway Trail의 탐방로

### \* 스위스 전국 하이킹코스 안내도 사례

- 난이도를 상세하게 형태표기나 색채표기 방식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개발하고, 전국의 등산코스를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웹, 앱, 간단지도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
- 자신의 능력과 여행여건에 따른 계획 및 시간예측이 가능하고, 아이나 고령자 동반 시 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정보 제공으로 안전성 확보



#### IV. 추진과제



그림 IV-49. 스위스 전국 하이킹코스 안내도

- \* 미국 몬타나주, Whitefish Trails의 탐방로 통합 안내 사인 체계  
· 장애인,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탐방로 안내



그림 IV-50. 미국 Whitefish Trails의 탐방로 통합 안내 사인 체계

#### ④ 추진내용

-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능력과 탐방목적에 고려하여 산지, 해안 등의 자연·역사 탐방로의 지도와 경로 외 정보 제공
- 탐방로 등급체계 연구, 문화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기능적인 번호부여와 위치표시를 통해 안전한 산행길 및 조난에 효과적 대응

###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3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6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3)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내 관광안내판과 홍보물이 관광지별로 다른 규격과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어 소지하기 불편하며, 관광안내소를 알리는 ‘i’ 표기가 달라 인지가 어렵고 낙후되어 방문객에 불편 초래
- 지역 내 관광안내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목적지 찾기의 불편 및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초래
- 지역의 관광안내도는 길찾기의 도구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로도 기능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일본 주요 관광안내판 구축 및 표기

- 지방도시까지 주요 관광안내판에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표기(최다 방문객 순)
- 4개 국어를 병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간 크기의 적정비율, 서체의 선택, 여백과의 관계 등 종합적 연구 및 디자인 필요



그림 IV-51. 나가사키 전망대 안내판(4개 국어 병기 안내)

#### IV. 추진과제



그림 IV-52. 하카다역 관광안내 바닥사인(중) / 하코다테 관광안내 방향사인(우)

#### ※ 취리히 중앙역 관광안내소 디자인 사례

- 관광안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정하는 ‘i’ 사인의 개발이 필요하며, 어두운 배경과 밝은 배경에 따라 대응하는 형식을 사전 지정하는 형태의 접근 필요
- 설치높이와 위치, 가독성에 따른 적정크기 등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인지성 확보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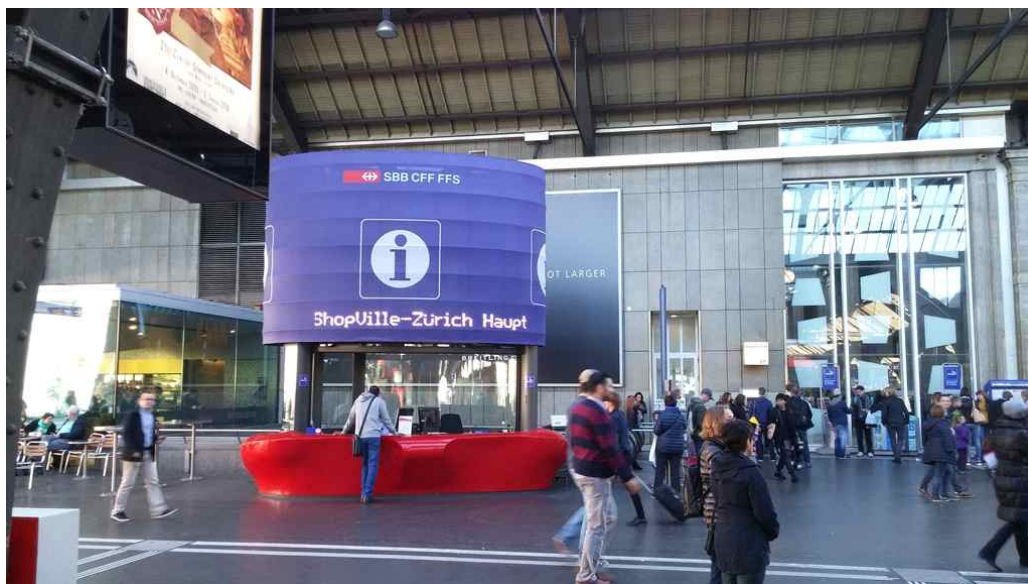


그림 IV-53. 스위스 취리히역 안내소 사례



※ 미국 국립공원 인쇄물 표준규격 (National Park service brochures) 사례

- 어느 국립공원이나 동일한 표준규격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일관성 있는 관리 및 방문객 편의성 증진
- 관광객들이 국립공원의 기념품으로서 수집 용이



그림 IV-54. 미국 국립공원 안내책자 (디자인통합)

#### ④ 추진내용

- 안내표지판, 관광안내소, 관광홍보물 등 통합디자인을 통해 찾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디자인
- 내외국인 관광객이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안내도 등 안내체계 개선 모델 개발
- 2015년에 보급된 '관광안내소 운영지침'에 따라 관광안내소 'i' 통합이미지 등 시범모델 개발 및 보급
- 동일 지역 관광지의 경우 안내물 크기, 제공정보 범위, 양식 및 표기를 통일하여 읽기 쉽고 소지하기 편하게 관광홍보물 디자인

###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 (1)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보건소에 고령 이용자 증가로 의료 공간의 협소화, 이용자 불편 유발, 근무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실내 공간디자인의 개선 필요
- 의료기관 공간에서의 이용자 동선, 공간구성, 서비스 절차 등의 통합과 체계화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영국 국립병원(NHS)의 표준 의료환경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사례

- 복도의 색채, 핸드레일 부착높이, 가구의 배치와 선택 가이드
-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고려한 침대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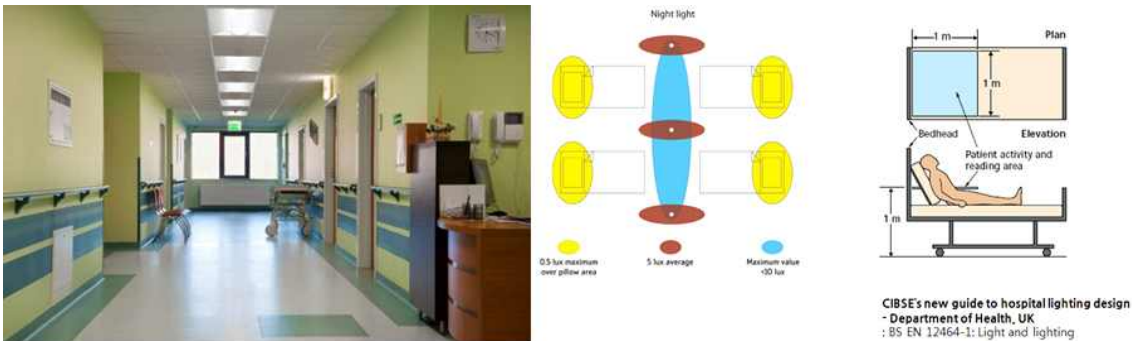


그림 IV-55. 영국 국립병원(NHS)의 표준 의료환경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사례

##### ④ 추진내용

- 이용자 동선 및 서비스 절차, 주야간 영역별 색채 및 빛의 구성, 근무자의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서비스 공간 디자인
- 인지심리, 보건행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참여 실험을 통한 디자인조건 설정 후 구체적인 대응 디자인 수립

- 이용자의 편의성,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공간의 쾌적성 등을 개선하고, 공간 및 서비스디자인 모형 제시

⑤ 추진방안

- 모델 개발(단독형·입주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2) 문화예술공간의 청소용품 등 디자인 및 보급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환경 관리를 위한 도구와 비품 등의 디자인이 낙후되어, 문화예술공간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음
- 야쿠르트와 전동차 개발 보급의 사례와 같이 좋은 디자인이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호감을 줄 수 있음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참고: 미술관용 청소 카트 (네덜란드)
- 미술관의 실내 환경과 어울리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 청소 활동에 최적화된 카트의 내부 구성과 조합



그림 IV-56. 네덜란드 미술관의 청소 카트 사례

④ 추진내용

-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효용성이 높은 공공용품 아이템 디자인 개발 및 보급
-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공간에 적합한 청소 도구와 비품을 통합한 카트 및 부속 도구류 디자인

⑤ 추진방안

- 디자인공모·개발(3종 내외)→시범적용→평가·개선→보급

##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1) 배경 및 목적

-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 시각 이미지 품격 제고 및 품질 향상 필요
- 공원,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간, 시설물 등 리디자인(redesign)
- 시설물 통합, 지역 품격 저해 시설과 시각물의 정리 등을 통한 지역의 가치 제고와 생활공간의 이용 증진
-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을 발굴하고,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품격과 품질을 높여 지속적 보존 도모
-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시 종합적 배치계획 및 가로공간, 지역단위의 연계성 고려가 부족하여 과다한 수량이 설치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안전성 위협

### (2) 전략의 중점 방향

- 무질서한 마을 환경의 정온화
- 마을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창조적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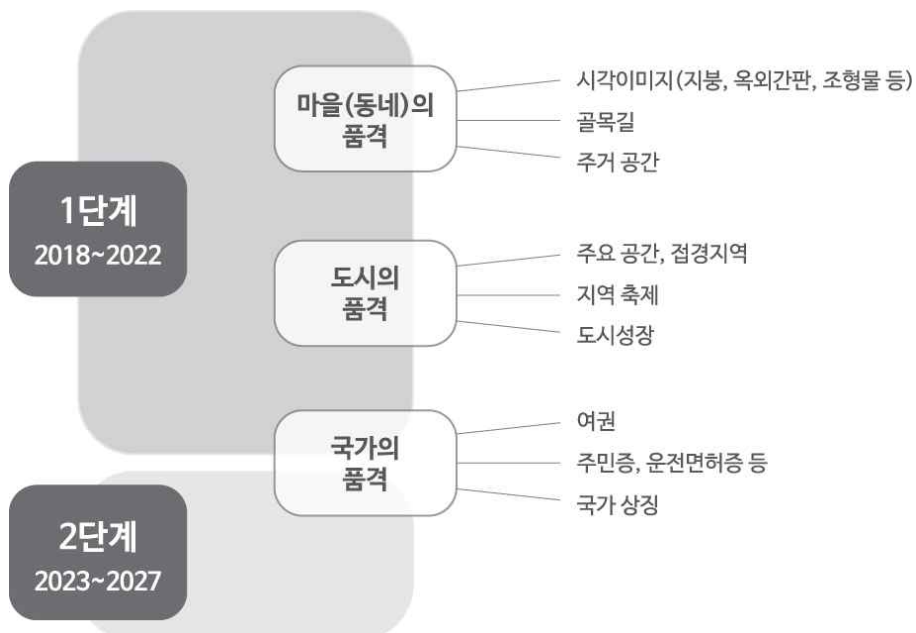


그림 IV-57.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 (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 조성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마을·동 단위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도로, 시설물, 조형물, 옥외광고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고려 필요
- 동일지역의 경관 심의(국토교통부), 옥외광고 심의(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 및 건축물 미술품 심의(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통합적 시각이미지 기준 없이 개별심의를 하고 있어 색채 등 난립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건축물 미술품이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휩싸여 눈에 드러나지 않음



그림 IV-58. 정리되지 않는 거리의 시각이미지

#### ④ 추진내용

-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 건물(지붕), 도로, 옥외 간판 및 조형물 시각이미지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 도출, 개별 심의과정에 적용

#### ⑤ 추진방안

- 시각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조성 (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결과가 해당지역의 관광지화 및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 사회문제화
- 대다수 도시재생 대상지의 실질적 문제는 주거와 연결된 공동의 공간, 즉 마을길, 마을 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의 문제이며 이러한 공간 구성의 필수적 접근 필요
- 이화벽화마을, 감천벽화마을 등 지역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들의 사업 대상지들이 주거지역이나, 주민의 생활문화 개선과 삶의 질 향상보다는 경관개선 사업으로 진행되어 주민의 불편 야기 및 사업 취지 훼손 등의 문제 개선 필요
- 주거와 연결된 공동의 공간, 마을길 및 마을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구성을 통해 마을의 커뮤니티 활력을 도모하고, 안락한 거주성 향상의 공간적 대응과 문화적 프로그램 방안 제시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OO동 벽화마을(2006년 문화관광부 도시재생프로젝트)

관광객이 늘면서 주거권 침해에 대한 반감으로 2015년 4월 계단의 그림을 지우는 등 주민 불만 표출



그림 IV-59. OO동 벽화마을

### ④ 추진내용

- 지자체,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주거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
- 특히 벽화마을 등 골목 명소화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사생활 노출의 문제 발생 방지

를 위해 주거형 화단 등 주민 아이디어 수용

- \* OO 폴리III, 쿡폴리 프로젝트, 2017 - 1970년에 지어진 도심의 한옥건물을 리모델링 보존하고, 청미장이라는 맛집형 폴리개념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



그림 IV-60. OO 폴리III

####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가이드라인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문화유산이 될 특정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물 주변의 길 및 시설 등 면단위 보존 및 시설물 등 연계 디자인 필요
- 소멸될 수 있는 지역의 역사, 인물 등 마을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디자인 방향 제시
- 기존의 공간적 맥락과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기록하고 최소의 변신을 지원하는 공공디자인 적용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부산의 OO동 책방, 60년째 존속중인 거리로, 50여개 책방이 있으며 최근 관광 명소로 재조명, 미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유
- 작은 음악회와 고전 강좌 및 매년 가을 골목축제 등 개최
- 진입부 안내사인을 비롯해 골목길 내부 화단, 바닥 등에 이야기요소의 연계 디자인을 적용했으나 역사적 풍광을 위한 고려 등 조화로운 개선 필요



그림 IV-61. 부산 OO동 책방거리

#### ④ 추진내용

- 미래문화유산 대상 해당건물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디자인 방향 제시
- 해당건물 보존, 인근 건물의 이미지(색채) 관리, 진입부 안내사인물, 해당 골목길 관

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 (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공공공간에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
- 가로공간 및 지역단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과다 설치, 통일감 없는 형태·색채·재료 사용 등으로 도시품격 저해 및 안전성 위협
- 무계획한 설치의 반복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이 혼재되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태·색채·재료가 각각 달라 어지러운 환경을 만들고 있어 도시 품격 제고를 위한 정비 시급
- 아름답고 쓸모 있는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용의 가치와 통합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접근방법 개선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각종 공공시설물이 하나의 거점공간 내에 난립하고 있는 상황 (OO시 사례)

- 도심 관광지 거점 광장 내에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쉼터, 휴게시설, 관광 안내소, 안내사인, 조명 등 설치
- 공공시설물간의 형태·색채·재료 연계성과 합리적인 배치 및 설치방법 등의 원칙 부재로 각종 시설물이 동일 공간에 난립
- 도시이미지와 품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그림 IV-62. 중복 또는 과다한 시설물과 조화되지 않는 시설물 사례

#### ④ 추진내용

- 대표적인 도심광장(시청 광장 등), 역사 및 터미널 광장, 관광요충지 등에 난립된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통합 배치기준 수립 및 설치
- 볼라드, 펜스, 가로판매대, 버스쉘터,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등
- 도시 내 핵심 보행공간 또는 보행전용구역의 공공시설물 개선

※ 서울 OO구 OO터미널앞 가로판매대(좌)와 경기도 OO시의 가로판매대(우)

- 가로판매대의 형태, 색채, 재료를 개선하고 적정 간격 및 배치위치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개선함으로써 보행여건 개선과 생활 품격 제고



그림 IV-63. 서울 OO터미널앞 가로판매대(좌)와 OO시의 가로판매대(우)

####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간 접경지역 동일 가로에서 공공시설물이 좌우 또는 전후로 달라 도시 품격을 저해,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력적 모델 필요
- 광역 자치단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한 표준형 디자인 공동개발로 우수디자인 품질 확보 및 지자체간 예산절감 모형개발의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동일한 가로에서 중앙선을 두고 OO시(좌)-OO시(우)가 시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좌우 시설물들의 배치방식과 간격, 형태·색채·재질 등이 달라 품격 및 인지성 저하



그림 IV-64. 시경계로 서로 다른 가로등 사례: OO시(좌)와 OO시(우)

### ④ 추진내용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경계지점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이미지 통합 디자인 및 설치, 지자체 간 예산 절감 모형 개발
- 광역 및 기초 2개 지자체간 접경지역의 시·군 대상 사업공모
- 경계지점 시도경계 상징시설 및 경계표시판 디자인 공동개발 및 시범설치
- 가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공 교통시설물의 공동개발 및 시범설치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광역단위·기초단위 각2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

#### ①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지역축제에서 임대 시설물 및 용품 사용으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행사장 구축 및 축제의 품격 저하
- 지역 축제별로 다양한 행사내용에 맞는 형태 변화 및 그래픽 수용이 불가능한 구조의 임시구조물로 축제의 특성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폐기물 다량 발생 구조
- 야간축제 및 미디어 활용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족으로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행사의 다양한 기획에 한계
- 임대시설물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축제행사장이 구축되어 지역성이 부재하고, 자체 품질도 열악하여 시급한 개선 요구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축제를 위한 시설물 문제와 대응 사례



그림 IV-65. 국내 지역 축제용 텐트(좌)와 해외 우수 사례(우)

-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지역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낮은 품질의 임대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국내 지역축제용 텐트(좌)와 이에 반해 형태적 특성과 통기성 등에서 다양한 가변성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된 국외 축제 텐트(우) (그림 IV-61.)



그림 IV-66. OO관광특구 육의전 축제(좌)와 OO 보부상 축제(우)

- OO관광특구 육의전 축제(좌)와 OO 보부상 축제(우)의 사례로 축제 특성에 맞는 가설적 구조와 특성화 구현 (그림 IV-66)

#### ④ 추진내용

- 축제 특성을 반영하되 다양한 축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높은 공공시설물 표준시스템 디자인 개발
- 몽골텐트, 이미지패널, 휴지통, 안내판 등 부속 시스템 개발
- 가변형 축제시설물(텐트 구조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 지속적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module)형 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 야간 축제 대응이 가능한 조명, 미디어 활용 시스템 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우수축제 지정 연계

###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 (1)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전국적으로 자투리 땅, 유휴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디자인 계획이 미흡하고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연계성이 부족해 품격 저하
- 관리미흡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도박, 음주, 소란행위 등 문제 발생이 많아, 이를 방지하는 디자인계획이 필요

\* 부산지역 2013년 쌈지공원 통계사례: 총 478개소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Plaza Euskadi, 스페인 빌바오(Bilbao)의 쌈지공원

- 건물 높이와 공간규모에 맞는 적절한 수목크기와 앉을 곳으로의 자연스런 유도
- 바닥재의 세밀한 계획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작은 공원의 구현

※ OO시 OO읍 쌈지공원

-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 휴게공간이 부족한 곳을 대안적으로 조성
- 공원형 녹지공간을 도심외곽으로 확산해 삶의 질 균형 및 생활품격을 제고



그림 IV-67. 빌바오 쌈지공원(좌)과 OO시의 쌈지공원(우)

#### ④ 추진내용

- 노후도가 심한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디자인
- 작은 마을공원, 쌈지공원 가운데 초기 계획의 미흡으로 시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설 노후 및 안전성이 취약한 곳의 개선

####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4개소) → 평가·개선 → 지자체 보급

## (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 ① 주관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공건축물의 공개공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이용안내로 개방성이 떨어지며, 그들과 휴식 기능도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개공지의 취지 및 활용성 부족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식재와 휴게 공공시설물, 야간조명, 안전 및 안내 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요청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부산 경실련, ‘공개공지’ 운영실태 점검 (‘17.10.26.)

- 표지판은 미설치, 마련된 시설물 관리와 유지부실
-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적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함
- 공개공지로 조성되었으나 그들과 휴식 공간 기능이 없어 실제 이용도가 낮음



그림 IV-68.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휴식기능이 낮은 공개공지 사례

※ 서울시 OO동 스테이트타워 남산의 공개공지 구축 사례

- 디테일이 훌륭한 벤치와 충분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목 구성 등으로 품격 있는 작은 공원 구현





그림 IV-69. 서울 OO동 스테이트타워 공개공지 사례

※ 도심 공개공지 설계 지침 및 공개공지 정보안내 표지판, 서울시 OO구



그림 IV-70. 서울 OO구의 공개공지 설계 지침

#### ④ 추진내용

- 특정 가로 또는 지역의 여러 공개공지를 연계하여 통합이미지를 갖는 생태와 휴식 공간 조성 및 도시이미지 개선
- 도시 건축물의 공개공지 중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곳, 동선의 개방성 향상이 필요한 곳, 개방성 개선으로 활용성 향상이 기대되는 곳 등을 중심으로 공개공지 디자인 계획 및 시설 개선
- 공개공지 포장패턴 및 색채의 가로공간 통합, 적절한 수목조성, 나무 또는 차양 등을 활용한 그늘제공, 휴식이 가능한 공공시설물 지원, 야간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등으로 품격 제고
- 특정 가로 또는 지역의 여러 공개공지를 연계하여 식재, 휴게시설, 차양시설 등을 네



#### IV. 추진과제

트위크화해 생태와 휴식이 있는 삶의 네트워크를 종합하는 품격의 디자인 접근

##### ⑤ 추진방안

-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개공지 시범 조성(4개소) → 평가·개선 → 지자체 보급

## 4.4.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 (1)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② 배경 및 필요성

- 전국적으로 역사 및 문화 관광지의 야간 환경조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알록달록하고 자극적인 색채의 빛 연출과 점멸로 관광지의 품격 저하
- LED조명 도입 이후 지나치게 밝은 빛을 사용하거나 형형색색의 점멸 연출로 난립된 빛 공해를 줄이고, 차분하고 품격 있는 환경조명의 연출 필요
- 국내에서는 창덕궁 외의 문화재 조명 거의 대다수가 형태만을 강조하고 과다하게 밝은 빛을 사용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원의 야간 활용성을 높이고, 품격향상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과다한 빛의 사용으로 형태는 잘 보이지만 관람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세종문화회관(그림 IV-67, 좌)과 은은하게 실루엣을 강조해 빛공해 없이 품격을 실현한 창덕궁(그림 IV-67, 우)



그림 IV-71. 세종문화회관(좌)과 창덕궁의 야간 경관(우)

- \* 존재감은 드러내지만 주변에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

#### IV. 추진과제



그림 IV-72.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의 야간 경관(우)

#### ④ 추진내용

-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 문화예술시설 등 적용대상을 발굴, 조명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보급
- 관광자원의 환경 특성과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조명디자인 개발
- 계절, 이벤트 등 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명 콘텐츠 개발
- 품격향상에 집중한 빛 연출의 사전 디자인계획 및 적정 조도 산출 실험과 현장에서 사전 테스트를 병행한 프로세스 의무화

#### ⑤ 추진방안

- 시범 조성(문화재·다리·문화체육시설 유형별 1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 제고 및 품질 관리

### (1) 차세대 여권디자인 개선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외교부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획과 연계하여 2007년 기개발된 여권 디자인 적용 예정
-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여권사용 빈도 증가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외교부에서는 여권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따른 보안성 강화 및 품질과 디자인개선을 위해 PC(폴리 카보네이트) 타입의 전자여권 도입을 2020년 추진 예정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07 여권디자인 개선 추진 사업(2007.5.~2008.2.진행, 2억원 소요)
- 주최 : 문체부(디자인 개발), 외교부(법령개정 및 디자인 적용)
- 주관 : 여권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장동련 홍대교수)
- 추진방법 및 절차 : 심포지엄(‘07.6), 온라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07.7~8), 지명공모전(‘07.7~11), 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08.1)
- 최종 선정작 : 서울대학교 김수정 교수 디자인

※ 2010년 적용 예정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나, 여권발급기 교체 시점과 맞지 않아 여권발급기 기종 변경시점에 적용하기로 함.

#### IV. 추진과제



그림 IV-73. 여권디자인 개선안(서울대 김수정 디자인, 2007년)

#### ④ 추진내용

- 외교부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발급 도입에 따라 2007년 문체부·외교부가 공동 개발한 디자인을 활용
- 표지 내면, 신원정보면 등 추가 디자인 및 전체 디자인 조정

#### ⑤ 추진방안

- 문체부 디자인 개발 → 외교부 국민 의견 수렴 및 적용

## (2)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 표준색채 개발 및 보급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기술표준원

### ② 배경 및 필요성

- 모든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 안내사인 등의 제작·설치 시에 도색, 색상시트 부착 등 색채 적용 과정이 수반되나
- 같은 색채라도 제작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시설물이나 안내사인 제작시 적용된 색채가 달라져 품질관리 곤란사례가 발생하므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색채의 개발·보급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00시 표준 색채 개발(2008)

- 국내 페인트 생산 기업과 협력하여, 기와진회색, 남산초록색, 꽃담황토색 등의 서울의 자연과 문화에 기초하여 서울 대표 색채 개발
- 표준화된 색채를 통해 가로시설물 등의 통일성을 높였으나, 개발된 색상의 수가 많지 않음



그림 IV-74. 00시 표준 색채 (2008년)

#### IV. 추진과제

##### ④ 추진내용

- 안내표지판, 공공시설물에 활용되는 페인트, 시트지 등의 통일된 색상유지를 위한 표준 색채 개발
- 철도공사,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페인트 및 시트 제작업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표적 색채군 조사, 표준색채집 등 제작, 교육, 보급

##### ⑤ 추진방안

- 표준색채 개발 연구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결과물 보급



### (3) 공공디자인 시각기호(픽토그램) 개발 및 적용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기술표준원

#### ② 배경 및 필요성

- 픽토그램과 같은 시각기호의 이용은 길찾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ISO 기준 및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시각기호의 표준 수립, 적용
-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 적용할 추가 개발이 필요함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픽토그램 가운데가 다수가 국제표준 픽토그램으로 채택됨 (그림 IV-75)
- \* ‘휠체어 리프트’, ‘자전거 내려서 걸으시오’ 지시, ‘노약자’ 표시 픽토그램 등 개발하였으나 검증이 없어 표준 시각기호로 미채택



그림 IV-75.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우리나라가 개발한 픽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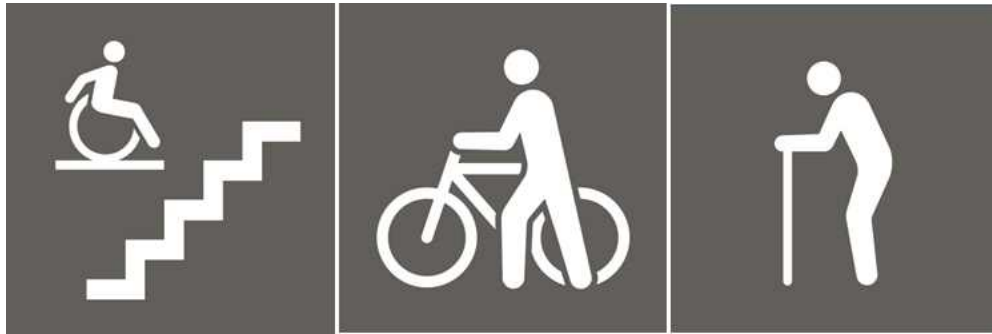


그림 IV-76.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한 국내 개발한 픽토그램

④ 추진내용

- 공공디자인 시각기호 중 재개발 및 추가개발 요소 선정, 표준안 개발 및 시범적용 (국민평가단 운영)
- 표준 시각기호집 제작 및 공공기관, 지자체, 업체 대상 활용 교육

⑤ 추진방안

- 시각기호 개발 연구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결과물 보급

##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1) 배경 및 목적

- 주민협의체 활성화, 시민참여 등을 통한 국민주도의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체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 개발(R&D) 기반 조성 필요
-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공유, 법령, 지침, 제도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공공디자인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인력 육성 등의 지원 체계 구축

### (2) 전략의 중점 방향

-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의 시민 참여 확대
-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인력 및 연구 인프라 확충
- 공공디자인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그림 IV-77.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의 중점 영역

##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 (1)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청

#### ② 배경 및 필요성

- 유니버설 디자인 등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공간, 서비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 대응과 평등한 사회 조성에 필요한 디자인 방법으로 복지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디자인철학임.
- ‘다 같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이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기부터 ‘공공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



그림 IV-78. 일반인의 고령자 체험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00시) 교육청 디자인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 디자인교육용 통합교재
- 2018년 00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00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건축학교’에서 활용 예정



그림 IV-79. 어린이 디자인교과서(OO시 교육청)

※ 'OO도 UD 관련 교육 사례

유니버설디자인개념 소개, 생활용품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용품 체험  
 체험형 탐험대 운영 (문제점 발굴) - 임산부 체험, 시각/하지장애 체험

표 IV-1. OO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현황 (2015년~2017년)

| 구 분   | 교육 회수                                       | 참여 인원  |
|-------|---|--|
| 2015년 | 초등학교 6개교 9회,<br>고등학교 9개교 11회,<br>시군 8개소     | 815명<br>(초등-260, 중고등-316,<br>공무원-239)              |
| 2016년 | 초중등학교 3개교,<br>민간단체 6개소,<br>시군 19개소, 심포지엄 1회 | 929명<br>(초,중-92, 민간단체-149명,<br>공무원-585, 심포지엄-103명) |
| 2017년 | 심화과정 1회,<br>민간단체 6개소,<br>시군 18개소, 심포지엄 1회   | 787명<br>(심화-25, 민간단체-140명,<br>공무원-525, 심포지엄-97)    |

④ 추진내용

- (추진내용) 미래세대의 공공 환경을 담당하게 되는 유·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보급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참고자료, 동영상 개발·보급
- 교육과정(미술 등) 제작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수록 협의
- 교사용 유니버설디자인 지도서 개발, 미술·도덕·사회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 IV. 추진과제

##### ⑤ 추진방안

- 문체부 참고자료, 동영상 개발 및 교육개설 협의
  - 시도교육청 교재 사용 협조 및 교사 직무연수과정에 포함 협의

## (2) 생활불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요소 발굴 및 국민과 함께 해결 계기 마련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서울 디자인거버넌스 예시

- 시민제안 선정 후 디자인전문가 참여 프로젝트로 문제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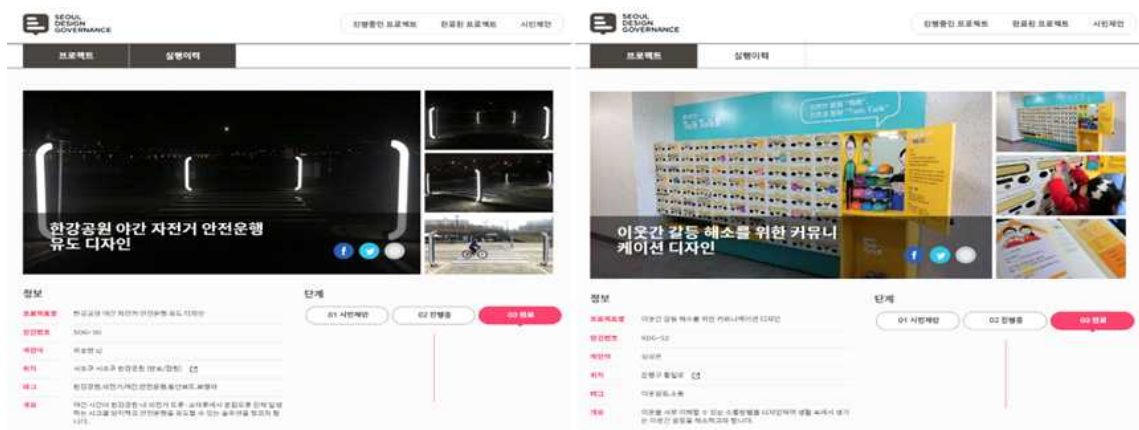


그림 IV-80. 00시 시민제안 디자인 프로젝트 안내 웹사이트

- 00시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하나의 정책해결 과제로 설정하고 ‘일리있는 디자인’ 사이트를 개설해 시민참여주도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생활 속의 시민불편사항이나 갈등요소, 격차해소와 관련된 다양하고 체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면, 아이디어 제안자가 참여하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일반 시민들을 모아 10여명의 팀 구성
- 진행과정은 문제의 재정의, 문제요소의 실제화 및 해결안 탐색을 거쳐 실제의 디자인 실험안을 만들어 현장에서 실험한 후 최종안 제안, 현실적 대안 확보시 관련 행정에 반영
- 2018년 1월 00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00디자인 거버넌스는



#### IV. 추진과제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 ④ 추진내용

-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요소를 발굴,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해결방안 제시
- 국민 아이디어가 사업과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참여의 공공디자인 가치 실현

##### ⑤ 추진방안

- 시범 적용(5개소) → 평가·개선 → 적용 및 결과물 보급
-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3)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디자인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을 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형식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 업무처리 절차 보급 필요

#### ③ 추진 내용

-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주민 참여와 관련 사업 추진 절차\*, 주민의견 조사 및 설문을 위한 가이드, 분야·사업 유형별 표준설문항목 등 개발
- \* 주민협의체 구성 → 마을의 문제점 및 대안 모색 → 전문가 협력 → 실행 및 해결

#### ④ 추진 방안

- 표준업무처리 절차 개발 → 시범사용 → 평가·개선 → 결과물 보급 및 교육 등

##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의무 이수제도 실행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18.1.18)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학력 및 경력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공공디자인 현장에서 요구되는 철학 및 지식 등 교육 필요

\*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의 전문역량 강화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③ 추진 내용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 공공디자인 철학, 이용자의 행태 분석 및 의견 수렴 절차,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등

※ 전문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이행토록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2019년)

#### ④ 추진 방안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평가

## (2)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공공디자인 교과목 개설 지원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디자인법 시행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의 육성 및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 등 현장 수요에 대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국내 디자인, 건축, 조경, 도시설계 관련 학부 학과 및 대학원에 공공디자인 관련 교과목 및 전공개설 부족
- 공간, 제품, 시각디자인, 건축설계, 조경설계 등 관련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다루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통합 및 연계교육 필요
-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미배출로 인한 초급 전문인력 부족
- 석·박사 과정 개설을 통해 기획력을 겸비한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육성 필요
- 공공디자인 교과목 개설을 통한 미래 전문인력의 공공디자인 이해 증진 및 관심 확대 필요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공공디자인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

### ③ 추진 내용

- 공공디자인 과정 개설교육기관에 교재 및 강사 지원, 성과우수교육기관 시상 등

### ④ 추진 방안

- 문체부는 교재 및 강사 지원 → 대학은 강좌개설 및 운영

### (3)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의 전문역량 강화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지자체별로 ‘도시디자인과’ 및 ‘공공디자인팀’ 등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갈수록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

표 IV-2.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 인력 현황(2015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지자체  | 광역도청 | 광역시청 | 구청  | 시청  | 군청  | 계   |
|------|------|------|-----|-----|-----|-----|
| 전담인력 | 3.1  | 4.1  | 1.2 | 1.2 | 0.7 | 1.2 |

- 공공디자인 실무 행정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기 실행된 ‘공공디자인 직무교육과정 교재(2017,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의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 기존 공공디자인 직무교육과정 및 일반교육과정 교재의 개발 이후 변화된 다양한 사항들이 많아 교재의 내용 보완 필요
- 타부처와 연계 또는 부처 내 연계협력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행정교육 내용 등 프로그램 보완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실시 필요성(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문체부)

- 지자체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90% 이상이 교육의 필요성 인정
- 중앙기관: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음
- 지자체: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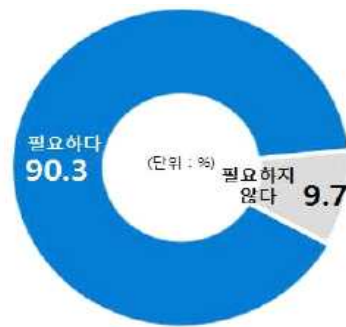


그림 IV-81. 지자체 대상 공공디자인교육의 필요성 조사

표 IV-3. 공공디자인관련 교육 커리큘럼 요구사항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순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
| 1  | 공공디자인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50.0%) | 공공디자인 활용 실무(36.1%)       |
| 2  | 공공디자인 활용실무(33.3%)        | 공공디자인 개념 및 기초과정(18.8%)   |
| 3  |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16.7%)     | 공공디자인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16.7%) |
| 4  |                          | 공공디자인 사업/용역 발주방안(16.7%)  |
| 5  |                          |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11.8%)     |

#### ④ 추진 내용

- 공공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교재 보완, 온라인 과정 개발 배포
- 교재 및 온라인 과정 개발 지원 → 공무원 교육기관에 보급
- 교육 내용에 타부처 및 부서와 연계 가능한 공공디자인 사업사례 소개 등 실무중심 교육
- 직급별, 업무별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고도화 추진

###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 (1)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현황 파악 및 제도를 뒷받침하는 연구 조사 부재
- 공공디자인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실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필요

##### ③ 추진내용

-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적인 R&D 계획이 필요
- 연차별 공공디자인 인력 및 사업 수행 현황 등 조사

\* 공공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

- 2016~2017 제1차 실태조사 실시: 공공디자인 사업 및 용역 발주현황,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전문인력 수요·공급, 공공디자인교육현황, 법·제도현황, 회사 등 단체현황, 부서 및 예산현황 등

- 공공디자인 R&D 로드맵 개발 및 실천 연구과제 지원
- 부드러운 규제 방식(Nudge)의 공공디자인 과제 발굴 및 연구모임 운영

##### ④ 추진 방안

-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연차별 연구 조사 분야 선정 → 공모 → 연구 조사 실시 → 결과물 보급



## 〈정책과제 예시〉

- 1) 정부기관 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등
  - 청와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연구

표 IV-4. 청와대와 백악관의 공간 배치와 특징 비교

| 청와대   | 백악관  |
|---|--|
| <p><b>청와대 본관 2층 구조</b></p> <p>※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은 외관~3관에서 근무</p> <p>대통령 집무실 (출입문에서 대통령 의자까지 15m)</p> <p>청와대 본관</p> <p>비서관 (동선(도로))</p> <p>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동선(차량)</p> <p>외관2관</p> <p>외관1관</p> <p>관할실</p> <p>우민3관</p> | <p><b>백악관 웨스트윙 구조</b></p> <p>웨스트윙</p> <p>백악관 본관</p> <p>이스트윙 (영부인 집무실)</p> <p>안보 보좌관실</p> <p>안보 보좌관실</p> <p>부통령인실</p> <p>반안관</p> <p>대변인실</p> <p>내각 회의실</p> <p>보좌실</p> <p>부통령실</p> <p>부비서실장실</p> <p>루스 벨트룸</p> <p>대통령 비서실장실</p> <p>대통령 근무실</p> <p>대통령 서저</p> <p>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서실과 대통령 집무실의 거리는 걸어서 10분~15분 소요.</li> <li>· 청와대 공간 재배치론은 90년대부터 빈번하게 논의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서실장실, 비서실, 자문관실, 부통령실 등이 같은 공간의 지척거리에 위치해 있어 일상적 호흡 속에서 토의 진행</li> <li>· 대통령 집무실 혹은 내각 회의실 등에 의회 관계자들을 쉽게 불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li> </ul>   |

- 국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연구

#### IV. 추진과제

표 IV-5. 유럽 국가들의 의회 공간 구성과 배치

| 국가   | 사진  | 특징  |
|--|---|---|
| 영국·캐나다<br>(사각형 구조,<br>여야 마주 보는<br>배치)              |    | [영국의회]<br>상호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심리적 간극을 줄여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하게 유도함. 지정좌석제를 시행하지 않아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음 |
| 스위스,<br>스웨덴,<br>노르웨이<br>(정당 구분 없이<br>선거구별<br>좌석배치) |   | 의원 좌석은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앉으며, 지위, 이름을 표시하는 명패가 없음   |
|  |  | 상호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열린 토론 가능   |

2) 교통안전을 위한 통합 가로환경 구성요소 개선 연구

-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공간구조, 사용자 인지특성, 시야확보의 과학적 데이터, 시설물 배치 및 위치, 설치방법 등의 다양한 문제의 기반연구 필요
- 시야각 범위와 가로환경 안전성 관계성 연구
- 표지판의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폰트 크기별 가독성에 관한 연구)
- 안내정보표지의 한글 및 픽토그램 적정 가독성 연구

3) 공공디자인 표준색채 활용 키트 연구 및 제작

- 같은 시설물 같은 녹색이더라도 색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표준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필요
- 금속, 목재, 플라스틱, 직물 등 소재와 마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색채 개발
- 인쇄, 영상 등 매체에 적합한 표준 색채 개발
- 색약자와 고령자를 고려한 인식하기 쉬운 색채 조합

4)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차별적 요소 검증방안 연구

- 도시 가로환경의 물리적 장애제거를 넘어선 인지적 문제해결, 색채와 재질감 등 고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을 위한 차별적 요소의 계량화 연구 지속 접근 필요
- 도시 가로환경의 UD수준 측정을 위한 UD요소 확립 및 측정 방안 연구
- 가로 환경 및 공공시설물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개발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용자 유형별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차별화
- 연구결과를 체크리스트로 개발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 보급

## 5.4.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및 점수체계 구축

### (1)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개발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특정지역·공간에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위원회가 각각 제정·운영 중이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한정된 행정인력과 전문가 풀로 인해 탄력적 운영 필요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의 인구, 도시구조 등에 따라 다루어야 할 공공디자인 조례의 내용상 차이 존재부분을 인정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
- 기초 지자체의 경우 조직 규모와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개별 심의, 자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보완책 제시 필요
- 심의, 자문, 평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에 따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포용하고 탄력적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맞춤형 조례안의 필요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점차 조례에 의해 경관위원회로 확연히 구분되는 추세 반영

표 IV-6. 지자체별 공공디자인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구분(단위 : 개, %) |          | 사례수   | 경관위원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 도시디자인위원회 |
|---------------|----------|-------|-------|----------|----------|
|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144) | 38.2  | 22.9     | 11.1     |
| 소속기관<br>분류    | 광역시청     | (6)   | 33.3  | 50.0     | 33.3     |
|               | 광역시청     | (8)   | 25.0  | 50.0     | 0.0      |
|               | 구청       | (28)  | 28.6  | 7.1      | 42.9     |
|               | 시청       | (59)  | 52.5  | 23.7     | 1.7      |
|               | 군청       | (43)  | 27.9  | 23.3     | 2.3      |
| 지자체<br>권역     | 서울       | (15)  | 6.7   | 6.7      | 80.0     |
|               | 인천/경기    | (36)  | 38.9  | 38.9     | 2.8      |
|               | 부산/울산/경남 | (22)  | 40.9  | 4.5      | 4.5      |
|               | 대구/경북    | (16)  | 43.8  | 6.3      | 0.0      |
|               | 대전/충청/세종 | (25)  | 44.0  | 40.0     | 4.0      |
|               | 광주/전남/전북 | (19)  | 42.1  | 26.3     | 5.3      |
|               | 강원/제주    | (11)  | 45.5  | 9.1      | 0.0      |

### ③ 추진내용

- 지자체 인구 규모,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개발 및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업 유도
- 특히 모범이 없는 유니버설·범죄예방·사회문제 해결, 공공조형물 조례 등을 통합하는 조례안 개발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차이점을 반영한 유형 개발

### ④ 추진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협력 유형별 통합 조례 및 통합위원회 운영 방안 개발 → 지자체 적용

## (2)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 사업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및 자료 관리가 미흡하고 과거 운영되었던 사이트도 폐쇄되어 공유가 되지 않음

\* 서울시는 2007년~2011년까지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서울’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말 사이트 폐쇄, 당시 축적된 국내자료 및 해외 특파원을 통해 모은 방대한 이미지 자료 등은 현재 모두 공유되지 않고 있음

- 사업 결과 등 공공디자인 데이터가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에게 개방된 데이터로서의 접근성 부족
- 공공디자인 사업 결과의 공공성, 개방성, 접근성을 강화하고, 과거 우수 사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

※ 공공디자인 분야 기술개발 관련 주요 애로사항 (2016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문체부)  
: 최신 공공디자인 정보 부족이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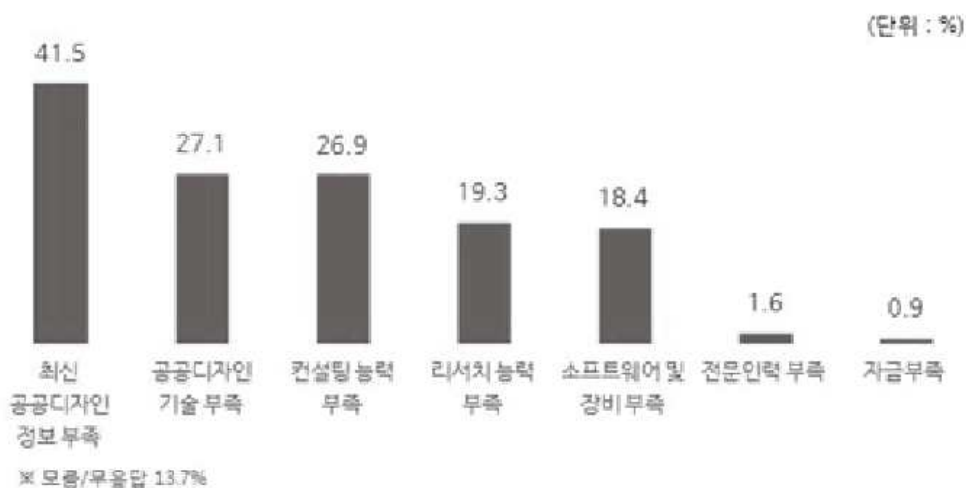


그림 IV-82. 공공디자인 분야 기술개발 관련 주요 애로사항 (2016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문체부)

③ 추진내용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공디자인 전문전자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공공 디자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상시 지원

④ 추진 방안

-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자료 협조 및 공유



### (3) 공공디자인 행정매뉴얼 개발 및 보급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위원회 운영사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이나 품질 검수 기준 등 공공디자인 업무처리시 행정지침이 필요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요청
- 공공디자인 용역과 사업 수행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 등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필요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 서울시 00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례

-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의 주요한 사항별로 A3 1페이지로 복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 활용의 용이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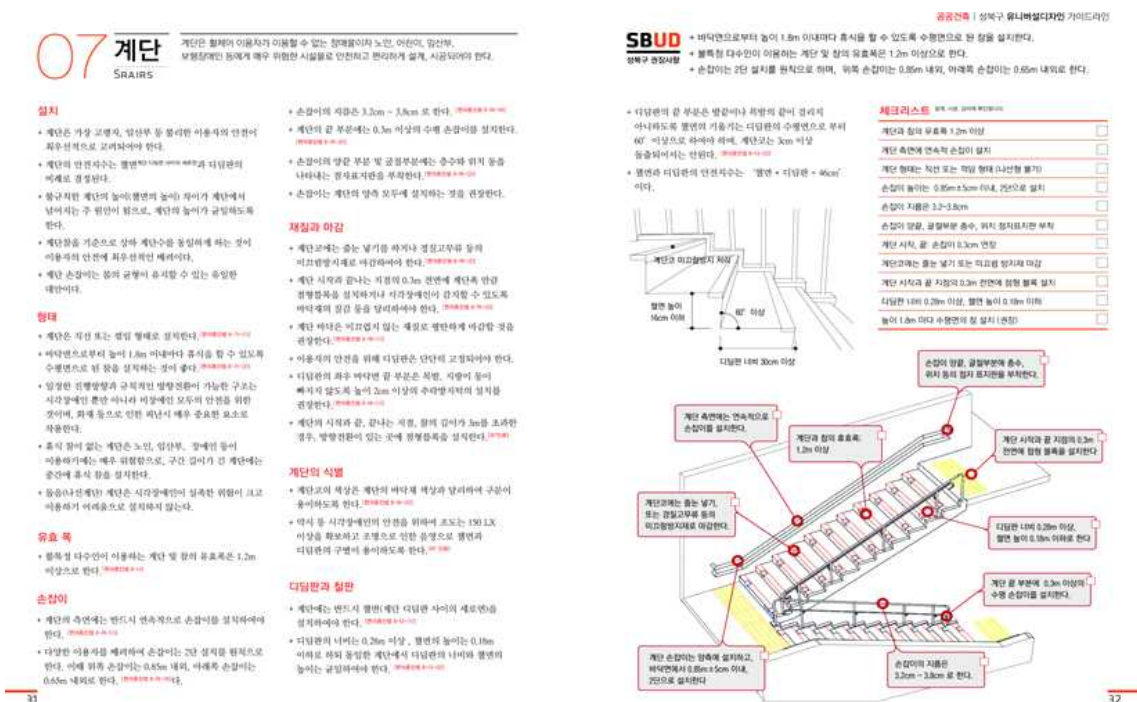


그림 IV-8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서울시 00구)

④ 추진내용

- 공공디자인 품질확보를 위해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결과 검수 등 각 단계별·사업 유형별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이용하기 쉬운 그래픽과 체크리스트 방식의 지침서 형식

⑤ 추진 방안

- 행정매뉴얼 개발 →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사용 → 평가·개선 → 매뉴얼 보급

## (4)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도 지원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공공시설물 품격 제고를 위해 우수공공시설물 인증 및 사용 지원 필요
- 가로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조달등록 제품을 사용 중이나, 이에 대한 인증이나 품질 검수 기준이 없어 품질편차가 매우 큼
-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인증을 통한 품질관리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서만 시행중

\* 공공디자인법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

### ③ 관련 사례 및 참조

※ OO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사례



그림 IV-84.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OO도청)

\*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사체계를 운영하여, 공공성, 기능성, 합리성, 경제성을 집중적으로 검증, 인증제품에 대해 2~3년 단위로 경기도내 시설물 설치공사 관련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의무사용토록 유도하여 기초품질 향상 도

모

- 인증신청자격 : 국내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업체 또는 개인,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군
- 대상시설 : 제작 또는 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예정인 공공시설
- 인증대상 : 공공시설물(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 판매관리, 기타)
- 인증심사 : 경기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주관
- 인증기간 : 인증제(3년), 재인증(2년 단위)
- 시 상 : 인증서·인증패 수여,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④ 추진내용

-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품의 조달우수제품 등록 지원 협의 및 추진, 우수공공디자인 전시회 및 장관상 시상 추진

## (5)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 ①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②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디자인법 등 법 및 제도의 시행과 관련, 미비사항을 조사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시 개선책 마련 필요
- 공공디자인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적정 수준의 공공디자인 품질 담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공공디자인의 창의성 독려와 전문 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 마련

### ③ 추진내용

- 공공공간과 시설물 연계 관련 등 법 개정사항 연구
- 공공조형물, 건축미술장식품 연계 법 개정 검토 연구
-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기준 고시 보완을 위한 ‘표준품셈’연구
- 공공디자인 용역 표준 제안요청서 연구

# V

---

과제별 추진 체계 및 일정

## V. 과제별 추진 체계 및 일정

###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사 업 명                              | 추진체계                   |    |    |          | 추진일정<br>(년)   |
|------------------------------------|------------------------|----|----|----------|---------------|
|                                    | 주관(협력)                 | 광역 | 기초 | 공공<br>기관 |               |
|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                        |    |    |          |               |
| 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 체계<br>디자인 및 시범적용 | 문체부(경찰청)               |    | ○  |          | 2018~<br>2021 |
| 2)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 체계디자인<br>및 시범적용    | 문체부<br>교육청(교육부)        |    | ○  |          | 2019~<br>2022 |
| 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 문체부<br>여성가족부           |    | ○  |          | 2019~<br>2022 |
| 1-2. 교통안전 디자인                      |                        |    |    |          |               |
| 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 체계<br>디자인 및 시범적용  | 문체부<br>행안부<br>교육청(교육부) | ○  | ○  |          | 2018~<br>2021 |
| 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 문체부                    | ○  | ○  | ○        | 2019~<br>2022 |
| 1-3.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                        |    |    |          |               |
| 1)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br>안전디자인 보급     | 문체부<br>소방방재청           | ○  |    |          | 2019~<br>2021 |



##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사 업 명                                   | 추진체계                         |    |    |          | 추진일정<br>(년)   |
|---|------------------------------|----|----|----------|---------------|
|   | 주관(협력)                       | 광역 | 기초 | 공공<br>기관 |               |
|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 공간 조성               |                              |    |    |          |               |
| 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 문체부, 복지부<br>국토부<br>(건축문화경관과) | ○  | ○  |          | 2019~<br>2029 |
| 2) 모두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                      | 문체부                          | ○  | ○  | ○        | 2018~<br>2022 |
|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 · 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                              |    |    |          |               |
| 1)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br>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문체부                          | ○  | ○  | ○        | 2018~<br>2021 |
| 2)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br>및 시범적용           | 문체부                          | ○  | ○  |          | 2020~<br>2022 |
|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                              |    |    |          |               |
| 1) 고령자 시각장애인 이용하기 편한<br>행정서비스 웹사이트 디자인  | 문체부                          | ○  | ○  | ○        | 2019~<br>2020 |
| 2)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br>개발, 보급          | 문체부<br>행안부<br>(정보공개정책과)      |    |    |          | 2019~<br>2022 |

##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 사 업 명                            | 추진체계                            |    |    |          | 추진일정<br>(년)   |
|----------------------------------|---------------------------------|----|----|----------|---------------|
|                                  | 주관(협력)                          | 광역 | 기초 | 공공<br>기관 |               |
| 3-1. 길 찾기 쉬운 도시만들기               |                                 |    |    |          |               |
| 1)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br>및 시범조성 | 문체부                             | ○  | ○  |          | 2020~<br>2022 |
| 2) 도로표지판 디자인 개선 · 보급             | 국토부(도로운영과)<br>문체부               | ○  |    | ○        | 2020~<br>2021 |
| 3)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보급               | 국토부(도로운영과)<br>문체부               | ○  |    | ○        | 2020~<br>2021 |
| 4) 광역철도/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 국토부(광역철도과)<br>문체부               | ○  |    | ○        | 2019~<br>2020 |
| 5) 전문상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br>디자인     | 문체부                             |    | ○  |          | 2020~<br>2021 |
|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                                 |    |    |          |               |
| 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 문체부                             | ○  | ○  | ○        | 2018~<br>2022 |
| 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br>디자인 개선 | 문체부                             | ○  | ○  |          | 2019~<br>2020 |
| 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 문체부<br>국토부(대중교통과)<br>해수부(연안해안과) | ○  | ○  | ○        | 2018~<br>2021 |
|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                                 |    |    |          |               |
| 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br>개발 · 보급   | 문체부                             | ○  | ○  | ○        | 2020~<br>2022 |
| 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 문체부<br>(행안부, 국토부<br>해수부, 환경부)   | ○  | ○  | ○        | 2020~<br>2022 |
| 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문체부                             | ○  | ○  | ○        | 2018~<br>2022 |
|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                                 |    |    |          |               |
| 1)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br>공간디자인  | 문체부<br>복지부(건강정책과)               |    | ○  |          | 2020~<br>2022 |
| 2) 문화예술공간의 청소용품 등<br>디자인 및 보급    | 문체부                             |    |    | ○        | 2020~<br>2022 |

## 4. 생활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사 업 명                              | 추진체계                              |    |    |          | 추진일정<br>(년)   |
|------------------------------------|-----------------------------------|----|----|----------|---------------|
|                                    | 주관(협력)                            | 광역 | 기초 | 공공<br>기관 |               |
|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                                   |    |    |          |               |
| 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br>시범조성      | 문체부<br>국토부(건축경관과)<br>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 |    | ○  |          | 2019~<br>2022 |
| 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 문체부<br>(행안부, 국토부)                 |    | ○  |          | 2019~<br>2022 |
| 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br>디자인 가이드라인 | 문체부                               | ○  | ○  |          | 2019~<br>2022 |
|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                                   |    |    |          |               |
| 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 문체부                               | ○  | ○  |          | 2020~<br>2022 |
| 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br>공동개발 및 설치    | 문체부                               | ○  | ○  |          | 2020~<br>2022 |
| 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br>공공디자인        | 문체부                               | ○  | ○  |          | 2020~<br>2022 |
|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                                   |    |    |          |               |
| 1)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br>디자인 개선    | 문체부<br>(국토부)                      | ○  | ○  |          | 2020~<br>2022 |
| 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 문체부<br>(국토부)                      | ○  | ○  |          | 2020~<br>2022 |
|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                                   |    |    |          |               |
| 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br>환경조명 디자인     | 문체부<br>문화재청                       | ○  | ○  | ○        | 2019~<br>2022 |
| 4-5.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                                   |    |    |          |               |
| 1) 차세대 여권디자인 개선                    | 문체부                               |    |    |          | 2018          |
| 2)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 표준색채<br>개발 및 보급    | 문체부                               | ○  |    | ○        | 2019          |
| 3) 공공디자인 시각기호(픽토그램)<br>개발 및 적용     | 문체부                               | ○  |    | ○        | 2019          |



##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사 업 명                             | 추진체계                              |    |    |          | 추진일정<br>(년)   |
|-----------------------------------|-----------------------------------|----|----|----------|---------------|
|                                   | 주관(협력)                            | 광역 | 기초 | 공공<br>기관 |               |
|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                                   |    |    |          |               |
| 1)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문체부<br>교육청                        | ○  |    |          | 2018~<br>2019 |
| 2) 생활불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 문체부                               | ○  |    |          | 2019~<br>2022 |
| 3)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문체부                               | ○  |    |          | 2020          |
|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                                   |    |    |          |               |
|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의무이수제도 시행 | 문체부                               |    |    |          | 2019~<br>2022 |
| 2) 국내대학 및 대학원 공공디자인 교과목 개설 지원     | 문체부                               | ○  |    |          | 2020          |
| 3)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문체부<br>(행안부)                      | ○  |    |          | 2019~<br>2020 |
|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                                   |    |    |          |               |
| 1)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 문체부                               | ○  | ○  |          | 2018~<br>2022 |
| 5-4.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                                   |    |    |          |               |
| 1) 공공디자인 통합조례 개발                  | 문체부<br>국토부(건축경관과)<br>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 | ○  | ○  |          | 2018~<br>2019 |
| 2)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 문체부                               | ○  | ○  | ○        | 2019~<br>2022 |
| 3) 공공디자인 행정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문체부                               | ○  |    | ○        | 2018~<br>2020 |
| 4)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도 지원             | 문체부                               | ○  |    |          | 2018~<br>2022 |
| 5)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 문체부                               |    |    |          | 2019~<br>2021 |